

---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1. 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기반본부장 김자현  
지식정보R&D센터팀장 노준석  
지식정보R&D센터 소지영

**등록**

KACES-1940-R000

**ISBN**

978-89-6748-384-5 (9360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mailto:contact@arte.or.kr)  
[www.arte.or.kr](http://www.arte.or.kr)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하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성충모 광운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이태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서예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안정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이슬빛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목차

---

요약 .....	i
Abstract .....	xxi
I. 연구개요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	5
1) 문헌 연구 .....	5
2) 양적 조사 .....	5
3) 질적 조사 .....	7
4)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 .....	9
5) 전문가 자문회의 .....	11
3. 기대 효과 .....	12
4. 연구 추진 일정 .....	14
1) 연구 추진기간 .....	14
II. 주요 연구 결과 .....	17
1. 문헌 분석 .....	17
1) 2018-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	17
2) 생애주기별 심리사회적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	21
2. 2020 문화예술교육 사전사후 효과 분석 .....	37
1)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특성 .....	37
2) 핵심지표: 문화예술적 차원 .....	47
3)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	59
4)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	98
5) 그 외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	114
3. 2020 문화예술교육 집단별 효과 차이 .....	123
1)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124
2)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130

3)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133
4) 교육 진행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135
5) 과거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137
6) 교육 기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141
4. 문화예술교육 효과 3개년(2018-2020) 비교 .....	145
1) 2018-2020 대응표본 t-test 효과 비교 .....	145
2) 2018-2020 질적 자료 텍스트 마이닝 .....	163
3) 요약: 문화예술교육 효과 3개년(2018-2020) 비교 .....	164
III. 결론 및 제언 .....	169
1. 결론 .....	169
2. 제언 .....	172
1)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를 위한 제언 .....	172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	175
참고문헌 .....	178
부록 .....	184
1. 양적 조사 설문 동의서 및 설문지 .....	184
2. 질적 조사 인터뷰 동의서 및 질문지 .....	204
3. 문화예술교육 효과 2개년(2019-2020) 비교 .....	207



## 표 목차

〈표 I-1〉 양적조사 표집틀	6
〈표 I-2〉 질적조사(FGI) 표집틀	8
〈표 I-3〉 텍스트 마이닝 pairwise correlation	9
〈표 I-4〉 전문 자문위원단 목록	11
〈표 I-5〉 연구 추진 일정표	14
〈표 II-1〉 2018, 2019년도 분석 비교	20
〈표 II-2〉 유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23
〈표 II-3〉 아동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26
〈표 II-4〉 청소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29
〈표 II-5〉 성인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33
〈표 II-6〉 노인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36
〈표 II-7〉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연령대	39
〈표 II-8〉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성별	39
〈표 II-9〉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거주지역	40
〈표 II-10〉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지역	41
〈표 II-11〉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최종학력	42
〈표 II-12〉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진행 형태	42
〈표 II-13〉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과거교육 경험여부	43
〈표 II-14〉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기간	43
〈표 II-15〉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참여 교육 분야	44
〈표 II-16〉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참여 경로	45
〈표 II-17〉 FGI 참여자 정보	46
〈표 II-18〉 문화예술감수성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47
〈표 II-19〉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감수성 효과	47
〈표 II-20〉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감수성 질적 효과	48
〈표 II-21〉 문화예술감수성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51
〈표 II-22〉 문화예술친숙성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52
〈표 II-23〉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친숙성 효과	52

〈표 II-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친숙성 질적 효과 .....	53
〈표 II-25〉 문화예술친숙성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57
〈표 II-26〉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 효과 종합 .....	58
〈표 II-27〉 자기조절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59
〈표 II-28〉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자기조절 효과 .....	59
〈표 II-29〉 생애주기별 자기조절 질적 효과 .....	60
〈표 II-30〉 자기조절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63
〈표 II-31〉 자기표현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64
〈표 II-32〉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자기표현 효과 .....	64
〈표 II-33〉 생애주기별 자기표현 질적 효과 .....	65
〈표 II-34〉 자기표현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68
〈표 II-35〉 자존감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69
〈표 II-36〉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자존감 효과 .....	69
〈표 II-37〉 생애주기별 자존감 질적 효과 .....	70
〈표 II-38〉 자존감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74
〈표 II-39〉 창의성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75
〈표 II-40〉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창의성 효과 .....	75
〈표 II-41〉 생애주기별 창의성 질적 효과 .....	76
〈표 II-42〉 창의성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80
〈표 II-43〉 행복감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80
〈표 II-44〉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행복감 효과 .....	79
〈표 II-45〉 생애주기별 행복감 질적 효과 .....	81
〈표 II-46〉 행복감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85
〈표 II-47〉 문제해결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86
〈표 II-48〉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제해결력 효과 .....	86
〈표 II-49〉 생애주기별 문제해결력 질적 효과 .....	87
〈표 II-50〉 문제해결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90
〈표 II-51〉 문화수용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91
〈표 II-52〉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화수용력 효과 .....	91
〈표 II-53〉 생애주기별 문제해결력 질적 효과 .....	92

〈표 II-54〉 문화수용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94
〈표 II-55〉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 효과 종합 .....	95
〈표 II-56〉 공감능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98
〈표 II-57〉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공감능력 효과 .....	98
〈표 II-58〉 생애주기별 공감능력 질적 효과 .....	99
〈표 II-59〉 공감능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101
〈표 II-60〉 친밀감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102
〈표 II-61〉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친밀감 효과 .....	102
〈표 II-62〉 생애주기별 친밀감 질적 효과 .....	103
〈표 II-63〉 친밀감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106
〈표 II-64〉 소통능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	107
〈표 II-65〉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소통능력 효과 .....	107
〈표 II-66〉 생애주기별 소통능력 질적 효과 .....	108
〈표 II-67〉 소통능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111
〈표 II-68〉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효과 종합 .....	112
〈표 II-69〉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 .....	114
〈표 II-70〉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	115
〈표 II-71〉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 .....	116
〈표 II-72〉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 .....	117
〈표 II-73〉 생애주기별 기타 질적 효과 .....	119
〈표 II-74〉 기타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	121
〈표 II-75〉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25
〈표 II-76〉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26
〈표 II-77〉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 .....	127
〈표 II-78〉 창의성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28
〈표 II-79〉 코로나19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29
〈표 II-80〉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0
〈표 II-81〉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1
〈표 II-82〉 자기표현력에 대한 성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32
〈표 II-83〉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3

〈표 II-84〉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4
〈표 II-85〉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5
〈표 II-86〉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교육 진행 형태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36
〈표 II-87〉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7
〈표 II-88〉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37
〈표 II-89〉 문화예술감수성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38
〈표 II-90〉 문제해결력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39
〈표 II-91〉 문화수용력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40
〈표 II-92〉 교육 기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42
〈표 II-93〉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	143
〈표 II-94〉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기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	144
〈표 II-95〉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145
〈표 II-96〉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	146
〈표 II-97〉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147
〈표 II-98〉 2018-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148
〈표 II-99〉 2018-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	149
〈표 II-100〉 2018-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150
〈표 II-101〉 2018-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151
〈표 II-102〉 2018-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	152
〈표 II-103〉 2018-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153
〈표 II-104〉 2018-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154
〈표 II-105〉 2018-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	155
〈표 II-106〉 2018-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156
〈표 II-107〉 2018-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157
〈표 II-108〉 2018-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	158
〈표 II-109〉 2018-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159
〈표 II-110〉 2018-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160
〈표 II-111〉 2018-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	161
〈표 II-112〉 2018-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162
〈표 III-1〉 만족도 조사 지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	174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20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문화예술적, 개인심리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지표로 구분하여 각 차원에서의 효과 변화를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하고자 함.
  
- 효과 검증의 타당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양적·질적 효과의 통합적 평가 필요
  - 진흥원에서 추진중인 타 사업과 구분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결과가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질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결과의 활용도 및 연계성을 높이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020년에 실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후 수요자의 필요 및 욕구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당위성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임. 매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속적인 사업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함.

## 2.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대상 : 발달심리학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정책보고서 및 연구물(2018,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포함)
- 방법 : 체계적 문헌분석

### 2) 양적조사

- 목적 : 2020년에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이 생애주기별 효과 분석
- 방법 : 온라인(구글) 설문조사를 활용한 사전 및 사후 조사
  - 2020년 9월 중순~ 12월 말(약 4개월간) 시행. 사전조사는 교육 시작 후 4주 이내, 사후조사는 교육 종료 1주전부터 교육종료일까지 이루어짐.
  - 2017년 기개발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지표 및 특수지표 36문항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해소정도를 묻는 1문항을 추가하여 총 37문항으로 진행함.
  -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참여자가 있는 기관에는 요청에 따라 종이 설문지를 발송함.
- 대상 : 2020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와 참여자의 법적보호자(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총 738명
  - 사업별 대상자의 특성, 기관, 규모를 고려한 층위표집방식으로 대상자 선정함.
  - 사전 및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19명, 사전 및 사후조사에 한번만 응답한 참여자 619명임
- 분석 내용
  - 문화예술교육 참여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비교
  -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대, 성별, 거주지역, 최종학력)과 참여 프로그램 현황(교육진행 형태, 과거 교육 경험 여부, 교육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실시
  - 생애주기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독립 및 대응표본 t-test 실시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사전-사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Two-way ANOVA를 실시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생애주기별 효과차이를 비교하는 ANCOVA 실시

### 3) 질적조사

- 목적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환경 및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양상 파악
- 방법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비대면 온라인(Zoom) 인터뷰
  - 2020년 9월 말~ 12월 중순(약 4개월간) 시행.
  - 양적 지표와 연계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해소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여 인터뷰를 진행함.
- 대상 :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와 참여자의 법적보호자(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강사, 시설관계자(담당자) 총 52명(10개 기관)
  - 문화예술교육 12개 사업 중 FGI를 진행하기로 한 9개 사업에서 각 1개 이상의 기관에 인터뷰를 진행함.
  - 단, 부처협력(방과후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일정에 변동이 잦고 인터뷰 참여자 섭외가 어려운 관계로 FGI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유아 대상 사업의 일부 기관은 참여자의 법적보호자 섭외가 어려워 강사와 시설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분석 내용
  - 내용분석을 통해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양적 지표의 타당도를 보완하고,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효과를 구체적, 심층적으로 이해
  - 교육환경(지역, 연령, 교육 분야 등) 및 참여 기간에 따른 교육 효과의 변화양상 파악

### 4) 텍스트 마이닝

- 목적 : 텍스트 마이닝 활용을 통한 질적 인터뷰 내용의 객관성 확보
- 방법 : 각 지표별로 키워드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워드네트워크로 시각화함.
- 대상 : 질적 조사를 통해 구성된 인터뷰 녹취록 총 18개
- 분석 내용
  - 생애주기별로 주요하게 나타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 관련 키워드들을 분석
  - 각 지표의 키워드들 간 상관분석을 통해 워드네트워크를 형성

## 5) 전문가 자문회의

- 목적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특성 반영
- 방법 : 국내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자문위원 2인을 섭외하여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함. 1차 자문회의는 비대면(Zoom) 온라인 회의, 2차 자문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함.
- 주요 내용
  - 1차 자문회의 : 양적 설문조사 시행에 앞서 2017년 기 개발된 효과지표의 수정보완 사항과 신규 개발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기 개발된 지표만을 활용하여 효과 측정
  - 2차 자문회의 : 양적 설문 결과 및 질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에 대한 자문



### 3. 기대효과

####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당위성 기반 마련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 검증 가능.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들의 축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개인의 행동적·심리적 다양한 변화 양상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보여줌으로써 객관적이고 타당한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당위성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

#### ○ 효과 검증의 타당성 및 신뢰성 증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개인, 기관,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통합적 효과 검증실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효과에 대한 통합적 평가는 효과 검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가치 확산을 도모

#### ○ 효과 검증의 타당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질적 지표 개발 연구 제안

- 질적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과정 동안 나타난 대상자의 변화를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 검증의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할 것임.

####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성 제시

- 생애주기별 특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질적 검증을 통해 사업별, 생애주기별 맥락에 따른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효과 증진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효과성 검증은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효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4. 주요 연구 결과

### 1) 문헌 연구

#### (1) 2018-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2017년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함.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응답자 인식에 기반한 설문조사 설계로 인해 객관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
-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사전-사후 조사 시점을 분리하여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추가하여 과거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함. 또, 질적 연구를 통해 효과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함. 그러나 대응표본 결과와 독립표본의 결과가 상이하고, 양적 연구결과와 질적연구 결과의 통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2020년에는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효과지표의 수정 없이 17년도에 개발된 효과지표를 활용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을 위해 지표별로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함. 사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를 묻고, 사후에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함.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져 비대면으로 진행된 곳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 방식에 따른 효과분석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음.
- 이외에도 앞서 보고서의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의견 및 2020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봄.

〈표 요약-1〉 2018,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비교

2018년도		2019년도
효과지표	참여자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활용	특수지표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구분 없이 측정 + 양적 지표 보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질적 효과 검증
측정시점	(현장 한계로 인해) 사후 응답자 인식에 기반	사전 -사후 조사 시점 분리
한계점	객관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의 한계	대응표본 결과와 독립표본의 결과가 상이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의 통합 미흡
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효과 지표의 수정 없이 17년도에 개발된 효과 지표를 모두 활용</li> <li>• 효과지표별로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li> <li>• 코로나19 특수 상황 반영 코로나19에 대한 문항 추가 분석</li> <li>• 보다 풍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집단별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차이 검증</li> </ul>		

## 2)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전사후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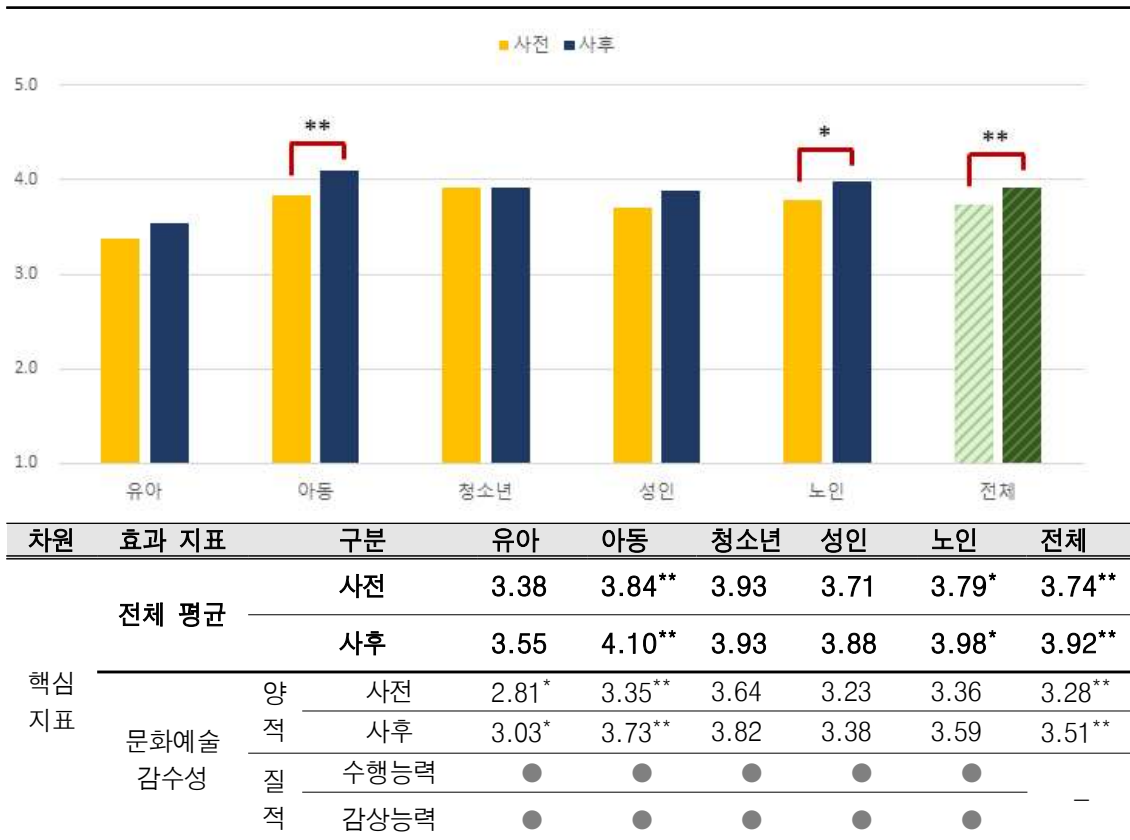
○ 2017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문화예술적 감상능력 및 친숙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2개)와 개인 내 인지정서적 특성 및 대인관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특수지표(10개)로 구성이 됨.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핵심지표: 문화예술차원, 특수지표를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7개)과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3개)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에서의 효과 변화를 분석하여 살펴봄.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효과 지표 뿐 아니라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보다 효과적인 양적·질적 효과의 통합적 분석을 위해 FGI 실시하여 기 개발된 양적 효과 지표에 상응하는 질적 효과 지표를 발견하고 분석하였음.

### (1)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 문화예술적 차원 효과

〈표 요약-2〉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 정의

<b>문화예술 감수성</b>	문화예술을 다양한 감각과 인지를 통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 체험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영감이나 자극, 감동을 받는 정도
<b>문화예술 친숙성</b>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거부감이 적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표 요약-3〉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 효과 종합



효과 지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문화예술	양 사전	3.94	4.32	4.21	4.19	4.22	4.20
	적 사후	4.06	4.46	4.03	4.38	4.36	4.33
친숙성	질 거리감감소	●	●	●	●	●	-
	적 관심 및 이해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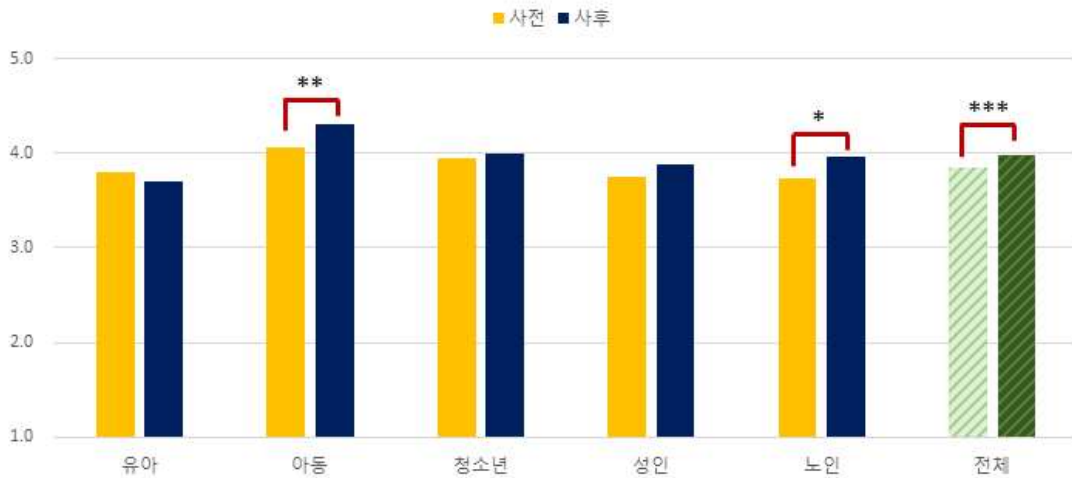
- 핵심지표: 문화예술차원 관련 양적 효과 분석에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모든 생애집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남. 유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3.38점에서 사후 3.55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아동의 경우 3.84점에서 4.10점으로 향상되어 생애집단 중 핵심지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남. 청소년의 경우 사전 3.93점과 사후 3.93점으로 핵심지표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음. 성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3.71점에서 3.88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79점에서 3.98점으로 향상되었음. 즉, 청소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생애집단에서 교육 전후의 변화가 나타났음. 특히 아동과 노인 집단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문화예술 감수성의 질적 효과지표로 감상능력, 수행능력이 나타남. 이러한 효과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성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일상 생활 속 감동, 위로, 위안 등과 같은 정서적 감상 능력 향상이 눈에 띈. 문화예술친숙성의 질적효과 지표에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거리감 감소, 관심 및 이해 증가가 나타남.
- FGI 내용분석을 바탕으로/추가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에서 수행능력은 노인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났으나 정서적인 측면은 “성인”에서만 나타남. 이는 질적 효과 지표에서 감수성이 증가한 성인집단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 문화예술친숙성에서 거리감 감소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심 및 이해 증가는 전 집단에서 나타난 편으로 특히 노인 집단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임.
- 핵심지표 관련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종합하면,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모든 참여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친숙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

## (2)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 효과

<표 요약-4>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 정의

<b>자기조절</b>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통해 평정심을 찾아나가는 능력
<b>자기표현</b>	자신의 의견, 생각, 감정 등을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b>자아존중감</b>	자기이해를 토대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b>창의성</b>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상상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
<b>행복감</b>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b>문제해결력</b>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상의 노력
<b>문화수용력</b>	문화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타문화를 열린 관점에서 수용하는 능력

<표 요약-5>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차원 효과 종합



차원	효과 지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전체 평균		사전	3.80	4.06**	3.95	3.75	3.73*	3.85***	
		사후	3.70	4.31**	4.00	3.87	3.96*	3.98***	
특수 지표 : 개인 심리	자기조절	양적	사전	3.64	3.73***	3.97	3.68	3.81**	3.74***
		사후	3.61	4.17***	4.39	3.83	4.14**	4.00***	
	질적	정서조절	-	-	-	-	●	-	
		행동조절	-	●	●	●	●	-	
자기표현	양적	사전	4.11	3.96*	3.82	3.42	3.55**	3.68	
		사후	4.06	4.26*	3.79	3.62	3.87**	3.87	
	질적	의견 및 주장	●	●	●	●	●	-	
		작품자기표현	●	●	●	●	●	-	
자존감	양적	사전	4.39*	4.30	4.09	3.98	3.86	4.08	
	사후	4.17*	4.51	4.30	4.09	4.04	4.20		

효과 지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질적	자기효능감	●	●	●	●	●	-
	자기가치	-	-	●	●	●	-
양적	사전	3.94	4.25	4.03	3.80	3.59	3.90
	사후	3.67	4.47	3.91	3.83	3.71	3.94
창의성	창의적 사고	●	●	-	-	●	-
	새로운 표현 및 시도	-	●	-	●	●	-
양적	사전	3.94	4.25	4.03	3.80	3.59*	3.90**
	사후	3.67	4.47	3.91	3.83	3.71*	3.94**
행복감	긍정정서	●	●	●	●	●	-
	정서적 해소	●	●	●	●	-	-
	삶의 의미	-	-	-	●	●	-
양적	사전	3.03	3.63	3.64	3.57*	3.72	3.57**
	사후	2.94	3.93	3.48	3.81*	3.94	3.75**
문제해결력	대처능력	●	●	●	●	●	-
	해결욕구	●	●	●	●	●	-
양적	사전	3.58	4.30	4.09	4.01	3.96	4.03*
	사후	3.81	4.35	4.21	4.11	4.28	4.17*
문화수용력	다양성 수용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차원 관련 양적 효과 분석에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를 제외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모든 생애집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남. 아동의 경우 4.06점에서 4.3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사전 3.95점과 사후 4.00점으로 향상됨. 성인의 경우, 사전 3.75점에서 3.87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노인의 경우도 3.73점에서 3.96점으로 향상되었음. 마지막으로 유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다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차원인 핵심지표와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유아가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상승하여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임.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봤을 때,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유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유아의 인지정서적 특성 뿐 아니라 측정 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왜냐하면, 자기보고식 설문이 어려운 유아를 대신하여 주양육자가 응답하기 때문에 개인 내 심리적 변화 지표의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음.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개인심리적 차원 양적 효과 분석에서 아동, 노인 집단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차원 관련 질적 분석을 통해,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존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에서 양적 및 질적 효과가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남. 질적연구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자기조절에서 노인 집단에서만 정서조절 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존감 효과지표 중 자기효능감 효과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나, 자기가치확인 효과는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또한, 행복감 효과지표 중 긍정정서와 정서적 해소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나,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만 삶의 의미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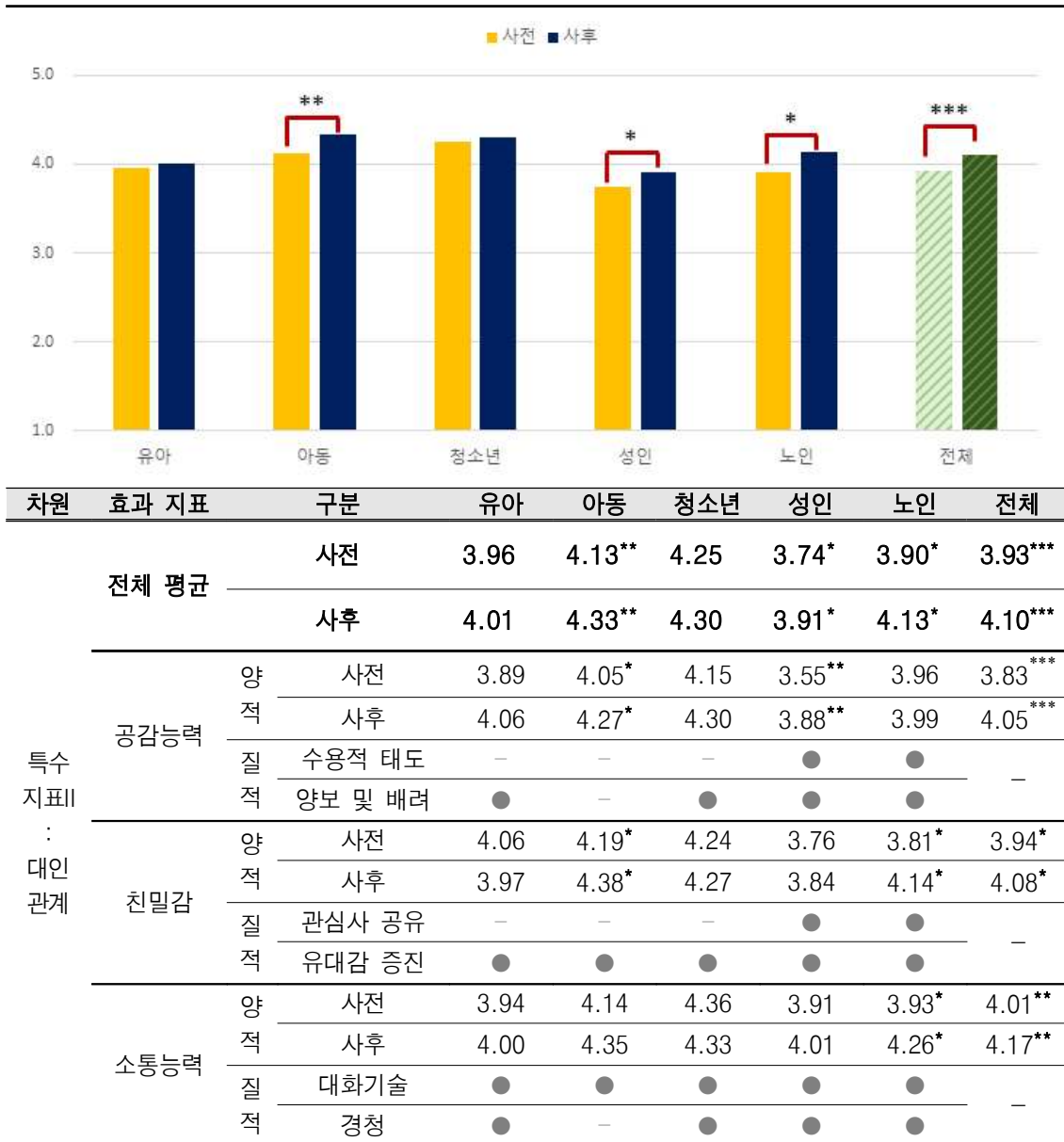
- FGI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한 결과, 자기조절, 자존감, 창의성, 행복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 자기조절의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행동 조절과 관련해서 아동과 청소년, 노인에서 나타남. 부정적 정서 조절은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자존감의 질적 지표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에 경우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자기가치 확인의 경우,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창의성의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집단에서 모두 나타남. 행복의 경우, 긍정정서 경험 및 정서해소는 청소년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삶의 의미는 노인과 성인 집단에서만 드러났는데 이는 질적 효과 지표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
  
- 핵심지표 관련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종합하면,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모든 참여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친숙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

### (3)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효과

〈표 요약-6〉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정의

<b>공감능력</b>	다른 사람의 인식, 태도, 입장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b>친밀감</b>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이들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는 상태
<b>소통능력</b>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능력

〈표 요약-7〉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효과 종합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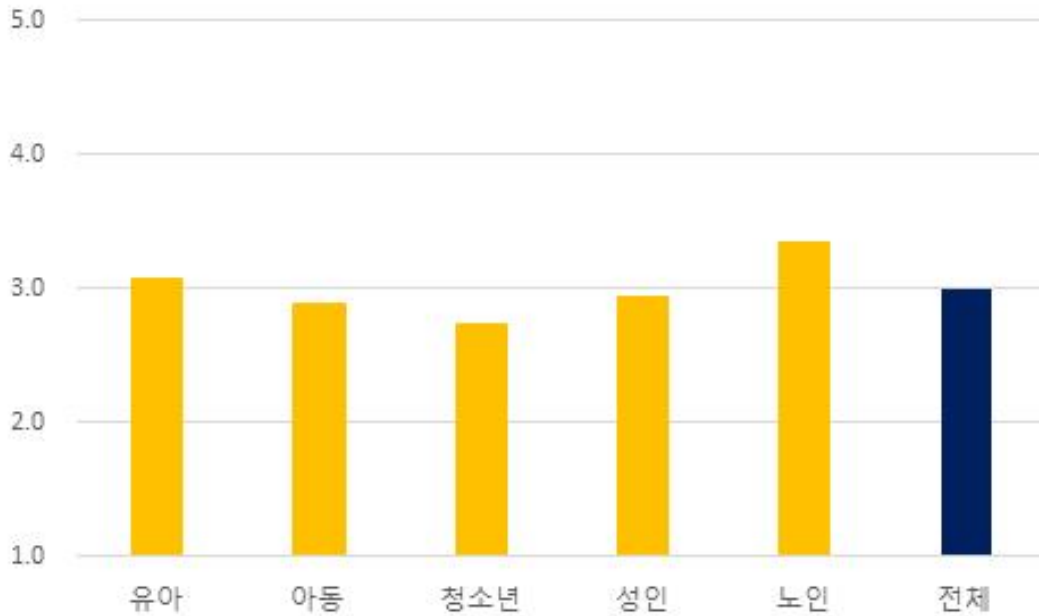


-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관련 양적 효과 분석에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모든 생애집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남. 유아의 경우 사전 3.96점에서 사후 4.0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아동의 경우 4.13점에서 4.33점으로 향상되어 생애집단 중 핵심지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음. 청소년의 경우 사전 4.25점과 사후 4.30점으로 향상됨. 성인의 경우, 사전 3.74점에서 3.9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노인의 경우도 3.90점에서 4.13점으로 향상되었음. 즉,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 지표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결과, 모든 집단에서 교육 전후의 변화가 나타났음. 특히 아동과 성인, 노인 집단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관련 질적 효과 분석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공감능력에서 양보 및 배려 효과만 나타난 유아와 청소년 집단과 달리 성인, 노인 집단에서는 수용적 태도 효과가 함께 나타났으며, 친밀감에서도 유대감 증진 효과만 나타난 유아, 아동, 청소년 집단과 달리 성인, 노인 집단에서는 관심사 공유 효과가 함께 나타남. 아동의 경우, 공감능력과 관련한 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보고식 양적 효과 지표에서 아동의 공감능력이 사전 4.05점에서 사후 4.27점으로 향상된 것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보다 FGI 아동 참여자가 참여한 프로그램 진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관찰자 시점에서 아동의 공감능력 관련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
- 추가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한 결과, 공감능력과 친밀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 공감능력 중에서 수용적 태도는 전 집단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며, 양보 및 배려의 경우 유아와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남. 친밀감 중 관심사 공유능력의 경우 해석이 가능한 결과가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관련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종합하면,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모든 참여자의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

#### (4) 코로나19 스트레스

##### ① 사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표 요약-8>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i>M</i>	3.08	2.89	2.73	2.93	3.35	3.00
<i>sd</i>	1.38	1.34	1.62	1.22	1.07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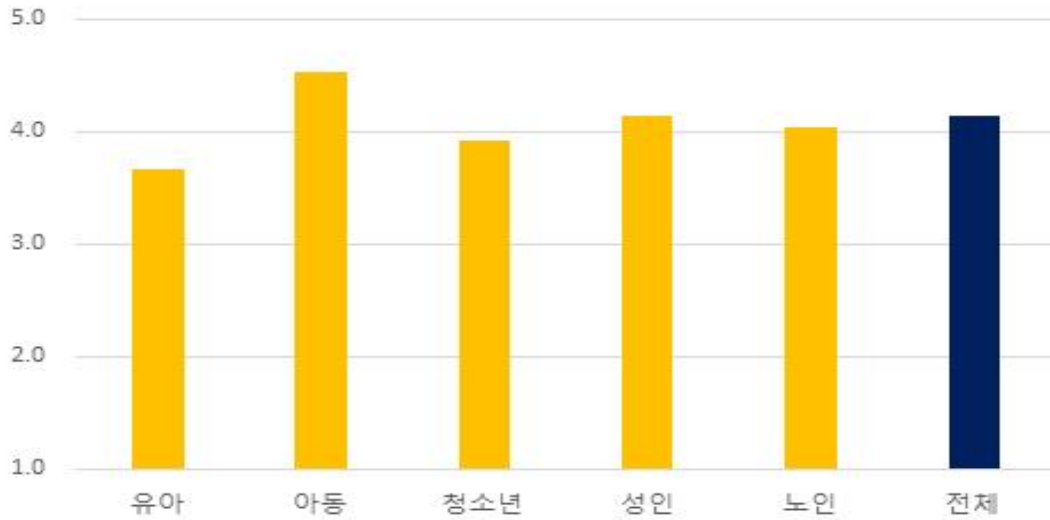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조사에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음.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평균 3점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3.35점) > 유아(3.08점) > 성인(2.93점) > 아동(2.89점) > 청소년(2.73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질적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 감소, 마스크 착용, 친목활동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음. 특히, 노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게 되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보고함.

② 사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여부

<표 요약-9>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i>M</i>	3.67	4.52	3.91	4.13	4.04	4.13
<i>sd</i>	.89	.64	.94	.98	.88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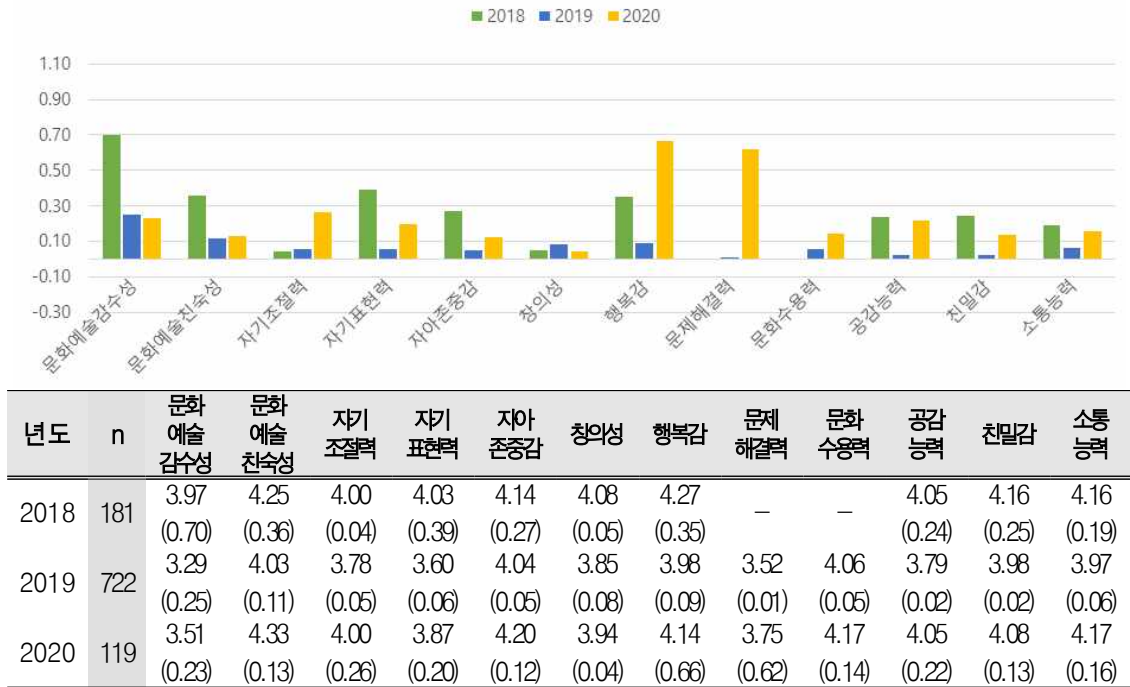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봄.
-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평균 4.13점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여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아동(4.52점) > 성인(4.13점) > 노인(4.04점) > 청소년(3.91점) > 유아(3.67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경험을 아동, 성인, 노인 집단에서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질적연구 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안전한 소통의 장과 기회 제공’이었음. 참여자들은 방역수칙이 지켜진 안전한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함.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됨.

### 3) 3개년도 효과 비교 분석

〈표 요약-10〉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3개년 양적 자료에 대한 효과크기를 분석함. 효과크기는 사후 점수에서 사전 점수를 감하여 구하였으며, 사후 평균을 제시함(표 요약-7). 3개년 양적자료에 대한 효과크기 분석 결과, 2018,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가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함. 2018, 2020년도에서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 효과지표가 사전보다 증가함. 자아존중감은 2018년도에만 특히 증가하였으며, 자기조절, 문제해결력은 2020년도에만 특히 증가함. 창의성과 문화수용력은 3개년 모두에서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유아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과가 감소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설문 대상이었던 부모가 유아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기 어려운 설문 문항에 응답한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임. 아동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에서 효과가 컸음. 이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얻는 아동기 발달특성과 일치함. 청소년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력, 행복감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그 크기가 크지 않음. 이는 자의식과 자아 정체감 발달하고, 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일치함. 성인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행복감에 대한 효과가 컸음. 노인의 경우, 행복감,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각 생애주기의 발달 특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3개년 질적 자료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개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함께 관계적 차원보다 자기와 관련된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가 더 많이 언급되었음. 2018년과 2019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다른 사람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변화가 많이 언급되었음. 또한, 뮤지컬, 예술, 미술, 발레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 문화예술 차원의 효과와 연결됨. 그러나 2018년과 달리 2019년의 경우, 관계차원의 질적 효과뿐 아니라 개인 심리차원의 질적 효과가 많이 언급되었음.

## 5.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다차원적인 효과 검증
  - 본 연구는 문화예술 교육 효과를 차원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효과 특성을 살펴봄. 추가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음.
  
- 3개년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경향성 파악
  - 본 연구는 3개년(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전반적으로 2019년도를 제외한 2018, 2020년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가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상호적 관계의 가능성 탐색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각 차원의 효과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차원의 변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감 및 잠재력 발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존감, 행복감과 같은 개인심리적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더 나아가, 개인심리적 차원의 변화는 대인관계적 차원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대인관계적 차원의 변화는 또다시 개인심리적 차원 및 문화예술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각 지표별 단편적인 효과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 이러한 효과간의 관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경우가 많았음.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목표했던 표본 수집 및 프로그램 진행 중단으로 인해 효과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함.
  - 아울러, 수집된 표본의 경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은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여자의 적극성과 자발성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긍정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 대응 표본 수의 부족으로 엄밀한 의미의 3개년 비교 및 사전/사후 비교가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시간에 흐름에 따른 동일한 참여자의 비교 분석이 아니기에 종단적 해석에 유의해야 함. 또한,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특성 및 효과 파악을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던 집단별 사전/사후 효과 비교 분석은 대응 표본이 아닌 독립 표본으로 분석하였기에, 사전 사후의 효과 비교보다는 집단별 특성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

## 2) 제언

### (1)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를 위한 제언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통합적인 분석 필요
  - 양적 효과 지표에서 측정하는 문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효과 지표에서 관찰된 질적인 효과 지표가 존재. 이에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통합적으로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찰 가능한 행동 지표로서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수정 및 보완 필요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적 및 질적 연구에서 특수 지표 외에도 효과가 발견되는 지표들이 존재하며 문헌에서도 생애주기별 기타 효과 지표를 밝히고 있음. 따라서, 관찰가능한 행동지표로서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유아의 경우, 모든 차원의 지표가 향상되는 다른 생애주기 집단과 달리 핵심지표: 문화예술적 차원과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효과가 증가하지만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 지표에서 감소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측정상의 문제일 수 있음.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할 시에는 보다 행동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이해를 위한 종단적 접근이 필요
  -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계열 분석을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 구축 및 동일한 참여자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장의 한계를 반영하여, 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효과분석 연구 설계 고려
  - 중도이탈과 같은 현장의 한계로 인해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프로그램 현장의 한계가 존재함. 이에, 참조점(Reference Point)를 제시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육 전/후의 주관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에서의 효과분석 연구도 일부 진행되는 바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의 연계성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
  - 지표를 통합 할 경우,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 지표 측정이 어려워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지원사업의 특성 반영 및 구체적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사업별 기존 효과 지표가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더 잘 드러냄.

○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조사 지표와 연계한 활용방안 고려

- 현재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측정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자기표현력, 창의성 향상, 또래관계 개선과 같은 총 4개의 항목을 측정함. 이러한 지표는 문화예술친숙성 및 감수성, 자기표현, 창의성, 친밀감, 소통능력, 공감능력과 연결될 수 있음.

<표 요약-11> 만족도 조사 지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만족도 조사 지표	효과 지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핵심지표: 문화예술적 차원	문화예술친숙성 및 감수성
자기표현력 향상	특수지표: 개인심리적 차원	자기표현
창의성 향상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창의성
또래관계 개선		친밀감, 소통능력, 공감능력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전문 문화예술교육 강사 양성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차원의 변화뿐 아니라 개인심리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문화예술 강사를 양성할 때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예술적, 개인심리적, 대인관계적 효과의 가능성과 구체적 내용을 교육하여 강사가 본인의 영향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 강사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참여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발달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제안함.

○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성

-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개인심리적 차원 및 대인관계적 차원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은 참여자의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따라서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함.

○ 중장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 지원의 필요성

- 심화 프로그램, 후속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지원이 필요함.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휴식기로 인해 교육 효과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증진 및 지속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휴식기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Abstract

---

### 1. Necessity and Purpose of Study

-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to examine different changes occurring in effectiveness on each level and to identify changing aspects on each life cycle. We want to demonstrate positiv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various aspects through integrated 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 Integrated evalu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is necessary to enhanc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ffectiveness verification
  - Research findings on the effect analysis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projects carried out by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re needed. By tak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encompass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have increased utility and connectivity.
-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for the advancement of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
  - We are in our third year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effe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our research findings, it is possible to find ways to advance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s. By identify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any room for improvemen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n 2020, we would like to provide help in developing cultural arts program tailored to future participants' needs and demands.
- Arranging a foundation for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
  - It is indispensable to conduct an effect analysis to verify that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s in fact providing a practical help to participants in the program. Every year,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s validated to ensure continuous provis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

## 2. Methods of Study

### 1) Literature Review

- Subjects :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logy, policy reports, and research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including the research on the effect analysi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18 and 2019)
- Methods :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 2) Quantitative Research

- Purpose : To analyze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on each life cycle
- Methods : Collecting pre- and post-surveys using online (Google) surveys
  - Surveys were collected from mid-September to end of December 2020 (about 4 months). Pre-surveys were submitted within four weeks after the beginning of education, and post-surveys were completed from one week before to the end of education.
  - Survey included a total of 37 questionnaires. 36 questionnaires developed in 2017 were composed of key indicators and special indicators from cultural arts education and 1 questionnaire was added to ask about the degree of stress caused and relieved by COVID-19.
  - Paper surveys were sent as requested for those who have troubles in accessing online surveys.
- Subjects : A total of 738 participants and legal guardians of participants (in case of infants) in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 Participants were sampled by using stratification method taking account of subjects' characteristics, institutions, and scale.
  - 119 participants responded to both pre- and post-surveys, and 619 participants responded only once either to pre-surveys or post-surveys.
- Content Analysis
  - Comparison of pre- and post-surveys on participa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 Cross-analysi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ender, area of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ogram participation status (progress, past experience, education period)
- Independent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 Two-way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pre- and post- interaction effects of variables that might interfere with the results. ANCOVA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on each life cycle by controlling these variables.

### 3) Qualitative Research

- Purpose :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and of the changes in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period
- Methods : Focus Group Interview (FGI)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non-face-to-face online (Zoom) interviews
  - Started at the end of September to mid-December 2020 (about 4 months).
  -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associated with quantitative indicators along with an added question asking about the degree of stress caused and relieved by COVID-19.
- Subjects : A total of 52 participants, legal guardians of participants (in case of infants), instructors, and institution officials in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from 10 different institutions.
  - Among 12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9 programs agreed to proceed with FGI.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ose 9 programs with at least one institution each.
  - However, we were unable to conduct FGI on the Ministry cooperation (after-school youth)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due to difficulties in recruiting institutions, and we were only able to interview instructors and institution officials for some of institutions that had infant education program due to difficulties in recruiting participant's legal guardians.

○ Content Analysis

- Through content analysis of FGI,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indicators is supplemented. Detailed and in-depth understanding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and programs could be obtained.
- Identifying changes in educational effects depending on educational environment (region, age, field of education, etc.) and participation period.

#### 4) Text Mining

○ Purpose : Securing the objectivity of qualitative interviews by utilizing text mining.

○ Methods : Achieving visualization with a word network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eywords in each index.

○ Subjects : A total of 18 interview recordings collected through qualitative methods.

○ Content Analysis

- Analysis of major keywords related to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 Forming a word network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eywords in each index

#### 5) Expert Consultation

○ Purpose : Improving understanding of the field of cultural art education and reflect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 Methods : Two advisors with experiences in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cultural arts education were invited to hold two advisory meetings. The first advisory meeting was held online (Zoom) as non-face-to-face, and the second advisory meeting was held in written form.

○ Main Contents

- 1<sup>st</sup> Advisory Meeting : Although revision process of the effectiveness index developed in 2017 and the validity of newly developed index was taken place before conducting a quantitative survey, the effectiveness was measured only with existing index to maintain research consistency.
- 2<sup>nd</sup> Advisory Meeting : Reviewed validity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 results and sought advise on policy suggestions.

### 3. Expectations

- Vitaliza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laying a foundation for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s
  - Effective comparative evaluation on cultural arts education becomes possible through analyzing the effe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fractionizing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Through accumulation of objective and valid results, the lasting value of cultural arts education can be demonstrated.
  - By showing various and multilateral aspects of individual's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hanges through cultural arts education and by providing objective and valid effect analysis, we can contribute to lay foundations, enhance effectiveness, and invigorate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s.
  
- Spreading value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improvin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ffectiveness verification
  - Conducting an integrated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specifically identifying the aspects of effects by specific program progress, individual, institution, and life cycle by accompany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parallel. The integrated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promotes spreading of its value through enhancin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ffect analysis.
  
- Research proposal for development of qualitative index by targets to improve validity of effect evaluation
  -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changes in participants during cultural arts education process will be comprehensively identified by dividing changes into personal, relat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levels. This will enable us to verify the needs and possibilities of developing qualitative index which will improve the validity of effect evaluation and propose a follow-up study.

- Present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sustainable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 Based on literature review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life cycle, we can verify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This will help 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icipants in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qualitative verification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e can specifically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any room for improvements of program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each project and life cycle. Developing pro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icipants can contribute to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 Integrated effect verifica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 enables provision of high quality programs. Also, the virtuous cycle of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gram can be established by seeking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s of program participants and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programs.

## 4. Key Findings

### 1) Literature Review

#### (1) Research Report : The Effect Analysis of Cultural Arts Education from 2018 to 2019

- The cultural arts education research in 2018 utilized effect index developed in 2017 cultural arts education research to measure and verify the effect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the light of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each life cycle. Through this,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were presented. However, there was a limit in measuring objectiv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due to the survey design based on the cognition of respondents.
- The cultural arts education research in 2019 secured objectivity of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and each program by separating the point-in-time of conducting surveys a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lso, by adding demographic variables to the effect analysis on cultural arts education,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period of past cultural arts education experience was identifi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and effect index, we were able to identify undiscovered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nd present analysis results of changes in effectiveness on each life cycle. However, there are some shortcomings in this study due to inconsistencies found between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results and insufficiencies found when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of the research, effect analysis in 2020 carried on using effect index developed in 2017 without any modification. Also, for integr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by indices were presented comprehensively.
- In 2020, additional analysis was made on the questionnaire about COVID-19 reflecting special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epidemic. Pre-survey asked the degree of stress caused by COVID-19 and post-survey asked whether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has helped in reducing COVID-19 stres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programs were carried out non-face-to-face due to COVID-19, effect analysis on different education methods was further examined.
- Aside from this, we also verifi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pre-/post-cultural arts education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reflecting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on the report and comments from advisory council in 2020.

<Table Summary-1> Comparison of the effect analysis in 2018 and 2019

2018		2019
Effects Index	Selectively utilized special indicators in each life cycle to minimize cognitive load on participants	To verify hypothesis on selective application of special indicators, measurements were taken without distinction of special indicators by life cycle + To supplement quantitative effect index, verification on qualitativ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ere made
Measurement Point	(Due to limitations on site) Based on cognition of post-respondents	Separation of point-in-time of pre-/post-survey
Limitations	Limitations in measuring objectiv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consistencies between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results Insufficiencies in integr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Directionality of Effect Analysi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 research consistency, effect index developed in 2017 were used without modification</li> <li>• Result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re presented comprehensively by effect index</li> <li>• Additional analysis on COVID-19 questionnaire to reflect COVID-19 epidemic</li> <li>•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post-cultural arts education by group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li> </ul>		



## 2) Effect Analysis on Pre-/Post-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 The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 index developed in 2017 consists of 2 key indicators that measure cultural and artistic appreciation and familiarity and 10 special indicators that measure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more specifically and accurately, indicators are separately divided and analyzed. The key indicators are measured on cultural and artistic level, special indicators I are measured on 7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s, and special indicators II measured on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s. Also, we aimed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using not only quantitative effect index but also qualitative effect index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integrated 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the FGI was conducted and identified qualitative effect index that corresponds to existing quantitative effect index.

### (1) Key Indicators of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s on Cultural and Artistic Level

<Table Summary-2> Definition of Indicators of Cultural Arts Education

<b>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b>	The degree to which culture and arts are perceived sensitively through various senses and perceptions, and to which they are inspired, stimulated, and moved in their lives through their experiences.
<b>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b>	The degree to which a person can approach culture and arts in a friendly manner due to his/her high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culture and arts and low resistance;

<Table Summary-3> Comprehensive Effects of Key Indicators of Cultural Arts Education



Level	Effect Index	Classification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Elderly	Total	
Key Indicators	Total Average	Pre	3.38	3.84**	3.93	3.71	3.79*	3.74**	
		Post	3.55	4.10**	3.93	3.88	3.98*	3.92**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QT	Pre	2.81*	3.35**	3.64	3.23	3.36	3.28**
		Post	3.03*	3.73**	3.82	3.38	3.59	3.51**	
	Quality of Culture and Arts	QL	Performance	●	●	●	●	●	—
		Appreciation	●	●	●	●	●	—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QT	Pre	3.94	4.32	4.21	4.19	4.22	4.20
		Post	4.06	4.46	4.03	4.38	4.36	4.33	
	Quality of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QL	Reduced sense of distance	●	●	●	●	●	—
		Interest and Understanding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Key Indicators: Quantitative effect analysis on cultural and artistic level revealed having visibl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cross all life cycles of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in their total average scores. In the case of infants, the score improved from 3.38 to 3.55, and in the case of children, it improved from 3.84 to 4.10, which showed the most improvements in key indicators among other life cycles. However, in case of adolescents, their pre-post score stayed the same as 3.93 which indicates that there was no changes in key indicators. For adults, the score improved from 3.71 to 3.88 and senile group also improved from 3.79 to 3.98. In summary, other than adolescent group,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ere evident across all life cycles. It was especially evident in children and the elderly.
- Qualitative effect index of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showed indicators of appreciation and performance. This was shown across all life cycles and was especially evident in adults. Unlike other groups, adults showed visible improvements in emotional appreciation such as finding impression, comfort, solace, and etc. in their daily lives. Qualitative effect index of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showed indicators of reduced sense of distance and increased interest and understandings across all life cy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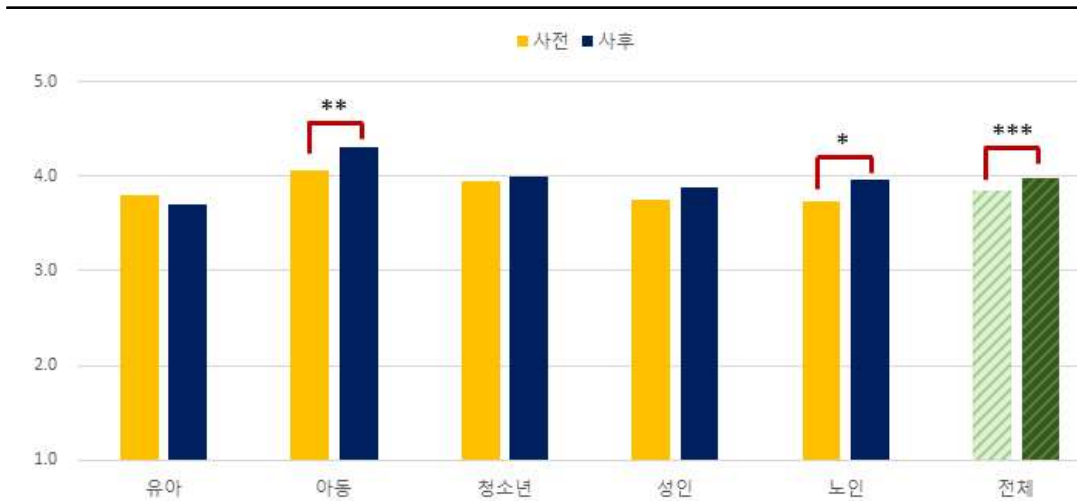
- Results of additional text mining analysis based on the FGI content analysis showed performance indicator from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was evident in overall life cycles except from the elderly groups. However, emotional aspects were only shown in “adults.” This seems to correspond to the results of adults with increased level of sensitivity in the qualitative effect index. Reduced sense of distance of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did not appear on the results of text mining analysis, but increase in interest and understanding was shown across all life cycle especially evident in the elderly group.
  
- By putting together al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related to key indicator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cultural arts education helps to improve sensitivity and familiarity with culture to all participants across all life cycle.

## (2) Special Indicators I of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Table Summary-4> Definition of Indicators of Special Indicators I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Self-regulation	Ability to find a sense of calmness through an appropriate balance agains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Self-expression	The ability to confidently show one's opinions, thoughts, feelings to others.
Self-esteem	A positive attitude toward oneself based on one's understanding
Creativity	The ability to imagine or create new, original, and useful things
Happiness	The state of feeling sufficient satisfaction and joy in life
Problem Solving	Process effort to discover and solve problems
Cultural Acceptance	Ability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specificity of culture and to accept other cultures from an open perspective

<Table Summary-5> Special Indicators I of Cultural Arts Education: Comprehensive Effect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Level	Effect Index	Classification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Elderly	Total	
Special Indicators I:	Total Average	Pre	3.80	4.06**	3.95	3.75	3.73*	3.85***	
		Post	3.70	4.31**	4.00	3.87	3.96*	3.98***	
Individual Psychology	Self-regulation	QT	Pre	3.64	3.73***	3.97	3.68	3.81**	3.74***
		Post	3.61	4.17***	4.39	3.83	4.14**	4.00***	
		QL	Emotional Regulation	-	-	-	-	●	-
		Behavioral Regulation	-	●	●	●	●	-	

Level	Effect Index	Classification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Elderly	Total		
	Self-expression	QT	Pre	4.11	3.96*	3.82	3.42	3.55**	3.68	
			Post	4.06	4.26*	3.79	3.62	3.87**	3.87	
		QL	Opinion and Assertion	●	●	●	●	●	-	
			Self-expression on the arts	●	●	●	●	●	-	
		Self-esteem	QT	Pre	4.39*	4.30	4.09	3.98	3.86	4.08
				Post	4.17*	4.51	4.30	4.09	4.04	4.20
QL	Self-efficacy		●	●	●	●	●	-		
	Self-worth		-	-	●	●	●	-		
Special Indicators I: Individual Psychology	Creativity	QT	Pre	3.94	4.25	4.03	3.80	3.59	3.90	
			Post	3.67	4.47	3.91	3.83	3.71	3.94	
		QL	Creative Thinking	●	●	-	-	●	-	
			New Expression and New Attempt	-	●	-	●	●	-	
		Happiness	QT	Pre	3.94	4.25	4.03	3.80	3.59*	3.90**
				Post	3.67	4.47	3.91	3.83	3.71*	3.94**
QL	Positive Emotion		●	●	●	●	●	-		
	Emotional Relief		●	●	●	●	-	-		
Problem Solving	QT	Pre	3.03	3.63	3.64	3.57*	3.72	3.57**		
		Post	2.94	3.93	3.48	3.81*	3.94	3.75**		
	QL	Coping Ability	●	●	●	●	●	-		
		Desire to Solve	●	●	●	●	●	-		
	Cultural Acceptance	QT	Pre	3.58	4.30	4.09	4.01	3.96	4.03*	
			Post	3.81	4.35	4.21	4.11	4.28	4.17*	
QL		Diversity Acceptance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Special Indicators I: Quantitative effect analysi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revealed having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overall life cycles of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senescence except for infants in their total average scores. In children, the score improved from 4.06 to 4.31 and in adolescents, the score improved from 3.95 to 4.00. In adults, the

score improved from 3.75 to 3.87 and for the elderly, the score improved from 3.73 to 3.96. Exceptionally for infants, there was no educational effect on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This result is a direct contrast to infants having the effects of key indicators an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where infants showed increase in the post-scores compared to the pre-scores. Possible reasons for not having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in infants can be explained by their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measurement difficulties. Due to the difficulties of infants having to evaluate self-reported surveys themselves, it is evaluated by the caregiver on behalf of the infants. Therefore, measurements and evaluations of individual's inner psychological changes could be inaccurate.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effect analysi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as the highest in children and the eld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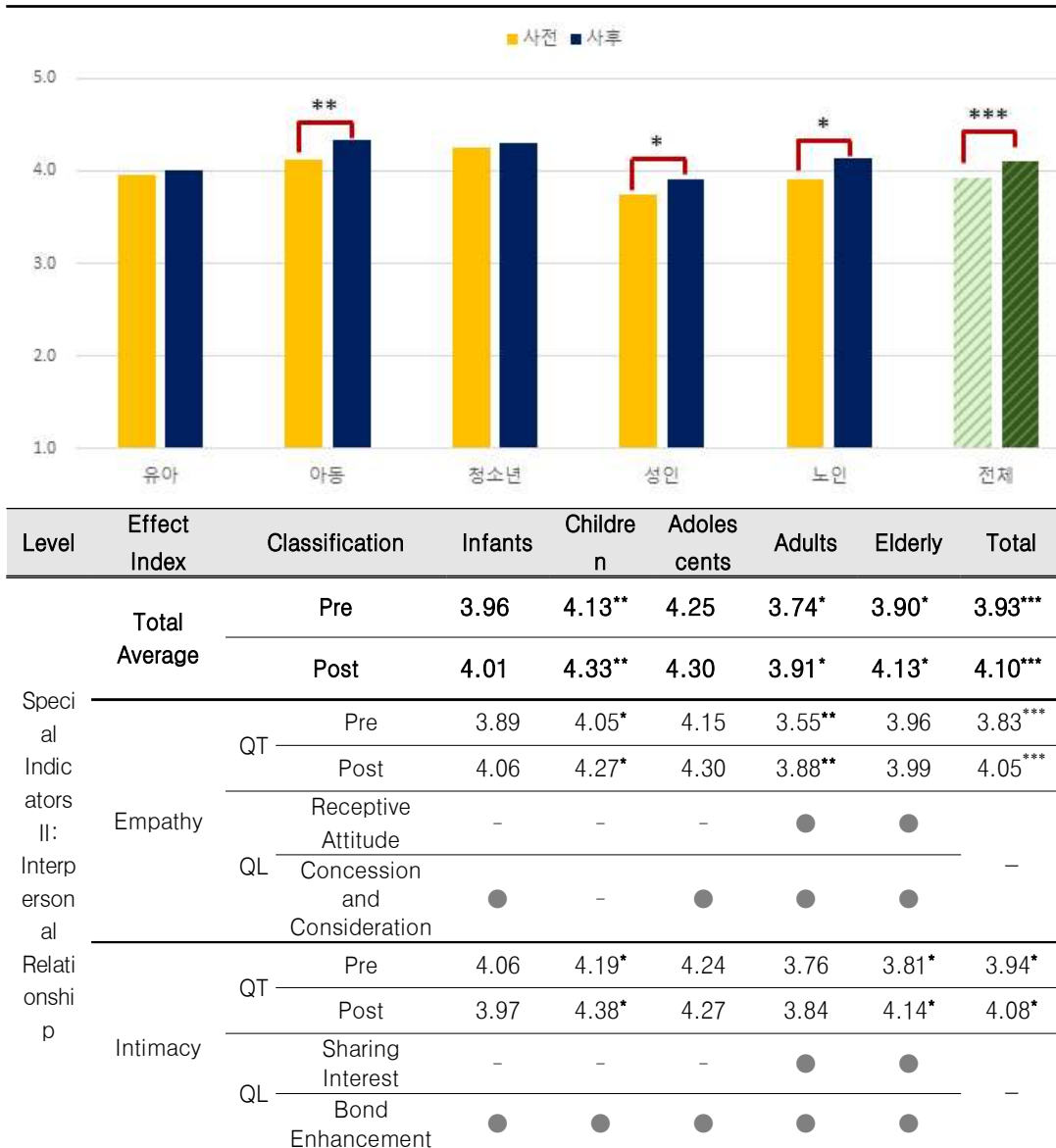
- Special Indicators I: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it is resulted t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were mutually complementary in areas of self-regulation, self-expression, self-esteem, creativity, happiness, problem-solving, and cultural acceptance. Qualitative research showed that the contents of the effect index varied depending on the life cycles. In the area of self-regulation, the emotional control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elderly. The self-efficacy effect within self-esteem effect index was shown across all life cycles, but self-affirmation effect was found only in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Also, the effects of positive emotion and emotional relief was found in all life cycles, but meaning of life effect was found only in adults and the elderly.
- Text mining analysis based on the FGI content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results on self-control, self-esteem, creativity, and happiness. Behavioral control, one of qualitative index of self-control, was shown in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elderly. Control of negative emotion was only found in the elderly. Self-efficacy, one of qualitative index of self-esteem, was shown in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Self-affirmation was only shown in the elderly. Creativity was found in all life cycles except adolescents. In the case of happiness, experiencing positive emotion and emotional relief appeared in all life cycles except adolescents and the meaning of life appeared only in the elderly and adults. This seems to correspond to qualitative effect index.
- By putting together al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related to key indicator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cultural arts education helps to improve sensitivity and familiarity with culture to all participants across all life cycle.

### (3) Special Indicators II of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Table Summary-6> Definition of Indicators of Special Indicators II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b>Empathy</b>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 people's perceptions, attitudes, positions, etc.
<b>Intimacy</b>	The state of being connected to other people, family, friends, neighbors, and affectionate and interested in them.
<b>Communication Skill</b>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coordinate opinions and thoughts with others.

<Table Summary-7> Special Indicators II of Cultural Arts Education: Comprehensive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Level	Effect Index	Classification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Elderly	Total
Communication Skill	QT	Pre	3.94	4.14	4.36	3.91	3.93*	4.01**
		Post	4.00	4.35	4.33	4.01	4.26*	4.17**
	QL	Conversation skill	●	●	●	●	●	-
		Attentive Hearing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Special Indicators II: Qualitative effect analysi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revealed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all life cycles of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elderly in their total average scores. In infants, the score improved from 3.96 to 4.01, and in children, the score improved from 4.13 to 4.33 which has shown the highest improvements in key indicators among other life cycles. In adolescents, the score improved from 4.25 to 4.30 and for adults, the score improved from 3.74 to 3.91. For the elderly, the score also improved from 3.90 to 4.13. In other words, analysi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using special indicators II, effect index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has revealed that the changes were evident after cultural arts education across all life cycles. Especially, the biggest effects were shown in children, adults, and elderly.
- Special Indicators II: Qualitative effect analysi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showed that the contents of the effect index varied depending on the life cycles. Unlike infants and adolescents that only showed concession and consideration effects in the area of sympathy, adults and the elderly additionally showed receptive attitude effect. Also, for intimacy,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only showed bond enhancement effect whereas adults and the elderly showed shared interest effect as well. Children did not show any qualitative effects related to sympathy, however considering the improved scores observed in quantitative effect index from 4.05 to 4.27, it is more appropriate to conclude that non-face-to-face programming made it difficult for observers to identify children participant's empathy related changes during FGI.
- Additional text mining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result on empathy and intimacy. Receptive attitude, one of empathy indicators, did not appear in any of the life cycles, and concession and consideration only appeared in infants and adolescents. Sharing interest, one of intimacy indicators, interpretable results were only found in adults and the eld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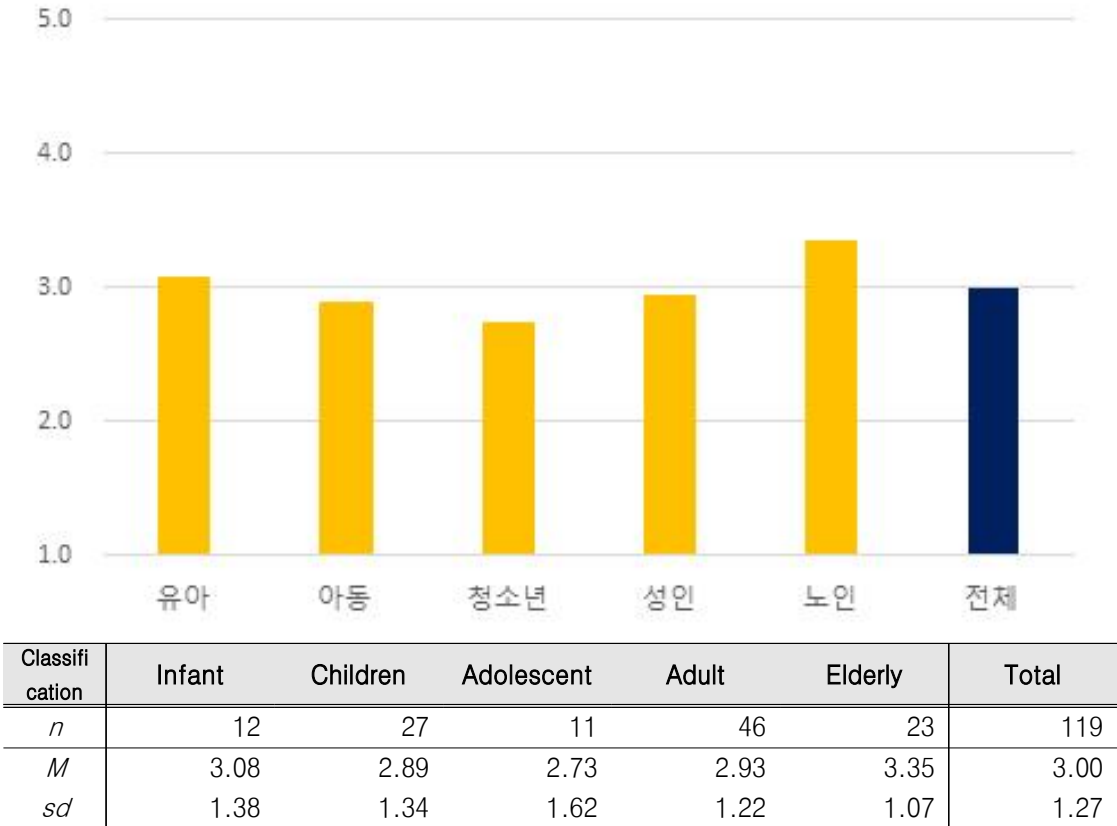


- Special Indicators II: By putting together al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cultural arts education helps to improve sensitivity and familiarity with culture to all participants across all life cycle.

#### (4) Stress related to COVID-19

① Pre: Stress related to COVID-19

<Table Summary-8> Paired t-test on the level of stress caused by COVID-19 by life cycle



\* $p < .05$ , \*\* $p < .01$

*M*: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 In this study, we added a questionnaire related to COVID-19 to reflect current COVID-19 pandemic. Participants who completed both pre- and post-surveys were asked about their level of stress caused by COVID-19 before the program participation.
-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from Covid-19 was somewhat high, with an average of 3 points. To place them in order by life cycle, the elderly (3.35 points) > infants (3.08) > adults (2.93 points) > children (2.89 points) > adolescents (2.73 points). This shows that the elderly were relatively more stressed out due to COVID-19, and adolescents were relatively less stressed.
- Qualitativ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caused by COVID-19 were due to reduced activity, wearing masks, restricting social activities, and etc. Especially for the elderly, they reported the stress of taking care of their grandchildren staying at home because of COVID-19 related school restrictions.

② Post: Resolution status of stress caused by COVID-19 through program participation

〈Table Summary-9〉 Paired t-test on the level of stress relief related to COVID-19 by life cycle



Classification	Infant	Children	Adolescent	Adult	Elderly	Total
<i>n</i>	12	27	11	46	23	119
<i>M</i>	3.67	4.52	3.91	4.13	4.04	4.13
<i>sd</i>	.89	.64	.94	.98	.88	.90

\* $p < .05$ , \*\* $p < .01$

*M*: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 Participants who completed both pre- and post-surveys were asked about how helpful was the program in relieving the stress caused by COVID-19.
-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caused by COVID-19 was somewhat high, 4.13 points on average, which showed that the program was helpful to relieve COVID-19 stress. To place them in order by life cycle, children (4.52 points) > adults (4.13 points) > elderly (4.04) > adolescents (3.91 points) > infants (3.67 points). Through this result, we can conclude that the program helped to relieve stress caused by COVID-19 and it was greatly experienced in children, adults, and the elderly. Ther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rograms due to COVID-19, conducting educational activities has helped participants to relieve stress caused by COVID-19.

- Qualitativ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one of the main reasons why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rograms being such a help to relieve stress caused by COVID-19 was 'Providing safe environment for communication and opportunities'. Participants pointed that social exchanges and communication in a safe space where quarantine rules are strictly complied as the main reason to help to reduce stress. And followed by focusing o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s another reason to relieve stress caused by COVID-19.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were encouraged to relieve stress caused by COVID-19 through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n that it provided opportunities for social exchanges under the safe environment protected from COVID-19.

### 3) Comparative Analysis of Effects of the 3 years

<Table Summary-10> Comparison of Overall Cultural Arts Education Effects 2018-2020



Year	n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Self-regulation	Self-expression	Self-esteem	Creativity	Happiness	Problem solving	Cultural acceptance	Empathy	Intimacy	Communication skill
2018	181	3.97 (0.70)	4.25 (0.36)	4.00 (0.04)	4.03 (0.39)	4.14 (0.27)	4.08 (0.05)	4.27 (0.35)	-	-	4.05 (0.24)	4.16 (0.25)	4.16 (0.19)
2019	722	3.29 (0.25)	4.03 (0.11)	3.78 (0.05)	3.60 (0.06)	4.04 (0.05)	3.85 (0.08)	3.98 (0.09)	3.52 (0.01)	4.06 (0.05)	3.79 (0.02)	3.98 (0.02)	3.97 (0.06)
2020	119	3.51 (0.23)	4.33 (0.13)	4.00 (0.26)	3.87 (0.20)	4.20 (0.12)	3.94 (0.04)	4.14 (0.66)	3.75 (0.62)	4.17 (0.14)	4.05 (0.22)	4.08 (0.13)	4.17 (0.16)

- As a result of the effect size analysis of the three-year quantitative data, the effect index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18 and in 2020 has shown an increase in post-education rather than in pre-education. In 2018 and in 2020, indicators such as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self-expression, happiness, empathy, intimacy, and communication skills increased after education. Self-esteem has increased especially in 2018 and self-control and problem-solving skills have increased especially in 2020. Creativity and cultural acceptance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in all three years.
- In infants, overall effects were reduced. However, these results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as they were the result of parents responding to questionnaires that were difficult to observe about changes in infants. In childhood,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self-control,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showed the biggest effect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where they are gaining self-efficacy in the process of improving cultural and art related skills. In adolescence, it was effective in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self-regulation, and happiness, but the size was not big. This is consistent with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where they are developing self-consciousness and self-identity and

showing tendency to negatively evaluate about themselves. In adulthood, there was a great effect on sensitivity of culture and art, self-expression, and happiness. In the elderly, the effects of happiness,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self-esteem, and intimacy were found to be great. These results are agreeing aspects to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 As a result of text mining analysis on the three-years of qualitative data,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20 were shown through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art activities. Also, the effect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were more mentioned than the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along with the effects of stress relief related to COVID-19.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2018 and in 2019 was shown through participating in art activities with other people or friends, thus more mentioning of chang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evel. Also, specific contents of programs such as musicals, arts, fine arts, and ballet were often mentioned which can be linked to the effects of cultural and artistic level. Unlike 2018, however, in 2019, not only the qualitative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evel but also the qualitative effect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were mentioned a lot.

## 5.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1) Conclusion

- Multi-dimensional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each life cycle by dividing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different levels. Additionally, in order to reflect current special circumstances caused by COVID-19 epidemic, we examined whether cultural arts education has helped to relieve stress caused by COVID-19.
  
- Identifying trends i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a three-year comparative research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the 3 years(2018-2020) by dividing them by life cycles. Overall effect index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creased afterwards in 2018 and in 2020 except for 2019.
  
- Exploring possibilities for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 By putting together all results from this study, we were able to identify that the effects on each of different levels interferes with each other and change. Generally, changes occurred on cultural arts education level according to cultural arts education may have an affect on the level of confidence and on discovering potential in culture and arts. Such experience may have an impact to make difference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such as self-esteem and happiness. Furthermore, change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can cause chang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which again can cause changes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and on cultural and artistic level.
  - Therefore,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re not fragmentary effects of each index, but rather have a mutual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constantly exchanging impac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understand such association between these effec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 Limitations of this study

- Most of the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were either suspended or postponed due to COVID-19. Therefore, there exists a difficulty in effect analysis due to interruptions in the sample collection and program progression.
- In addition, despite these difficulties research continued and the progress ma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initiative and proactiveness of program directors and participants. Thus, the results of the survey may be positively biased by respondents.
- Although comparative analyse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were conducted between 2018 to 2020, it is difficult to make comparisons between 3 years and between pre-/post- measurements in a strict sense due to insufficient number of corresponding samples in 2020.
- Therefore, it must be noted to not to make longitudinal assumptions on this study because this study is no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ame participants over time. Also,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participants who has failed to complete the program, additional analysis was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e-/post-effects by groups was carried out by independent sample instead of comparative samples so that it is more plausible to interpret the results as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y groups rather than comparison of pre-/post-effects.

## 2) Suggestions

### (1) Suggestion for Studie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 Integrated 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is required
  - There are some qualitative effect index observed that are not measured in quantitative effect index. Thus, by utiliz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ex complementarily to measure and analyze it in an integrated manner, it is expected to gain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 Need to modify and supplement effect index of cultural arts education as observable behavioral index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are indicators that are found other than special indicator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Related literature also specifies other effect index by life cyc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effect index of cultural arts education as observable behavioral index.

- Especially for infants, the effects increase in key indicators: cultural and artistic level and special indicators II: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but they decrease in special indicators I: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This may represent a problem in measurement method rather than cultural arts education being ineffective on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for infants. Therefore, it seems that more behavioral indicators are needed to measure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infants.
  
- A need for longitudinal approach to understand mid- to long-term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 In order to continuously carry out effect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is require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panel data and to analyze changing aspects in the same participants over time.
  
- Considering the design of the effect analysis research that measures change perception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s on the field
  - Due to the limitations on the field, such as drop outs, carrying out pre-/post- types of program has practical limitations. Therefore, measuring subjectiv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tion by providing reference points for the participants can be an alternative to current methods.
  
-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linkage between other support programs(Dream Orchestra, Culture and Art Healing) and the research o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he usage of the results.
  - If indicators are integrated, there are possibilities for the effects to not to appear due to the difficulties with measuring effect index by the purpose of projects.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support programs and using existing effect index by projects are much better at reveal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s concerned.

-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plan linked to cultural arts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 index
  - Current education survey measures a total of 4 items including interest in culture and arts, self-expression, improvement in creativity, and improvement in peer relationship. These index can be linked to familiarity and sensitivity to culture and arts, self-expression, creativity, intimacy,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Table Summary-11> Effect Index of Cultural Arts Education Corresponding to Satisfaction Survey Index

Satisfaction Survey Index	Effect Index	
Degree of interest in culture and arts	Key Indicators	Sensitivity and familiarity to culture and arts
Improvement in self-expression	Special Indicators I: Individual Psychological	Self-expression
Improvement in creativity	Level	Creativity
Improvement in peer relationship	Special Indicators II: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imacy,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Level	

## (2) Suggestion for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 Training professional cultural arts instructors specialized in cultural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 Cultural arts education can cause changes on not only the cultural and artistic level, but also on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When training cultural arts instructors, the possibilities and specific detail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effec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should be thought.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can be enhanced by supporting instructors to recognize their leverage on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we suggest for instructors to be educated on the areas of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by each life cycle so that they can incorporat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hen planning and operating the programs.
- Organizing various cultural arts progra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 The specific aspects of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on individual psychological leve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vel differ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Thus, we propose to organize cultural arts progra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ife cycle.

- Needs for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s and providing continuous support for programs
  - Mid- to long-term program support is necessary for the continuity of cultural arts education such as intensified programs and follow-up programs. Participants in the qualitative research suggested that they wish the programs to continue rather than being an one-time clas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articipate. Also, it is reported that the effects of education tends to be reduced due to inevitable periods of inactiv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education programs so that the participants can participate continuously in order to enhance and sustain the effects of cultural arts education.



---

# I.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기대 효과
4. 연구 추진 일정



---

## I. 연구개요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20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문화예술적, 개인심리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지표로 구분하여 각 차원에서의 효과 변화를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애주기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다 나은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봄. 이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됨.
  
- 효과 검증의 타당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양적·질적 효과의 통합적 평가 필요
  - 진흥원에서 추진중인 타 사업과 구분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결과가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질적 효과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결과의 활용도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효과성 분석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 변화를 검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양적 조사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질적인 변화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차이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통합적 평가가 가능하며, 양적·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통합적 평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증진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020년에 실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후 수요자의 필요/욕구에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무엇보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도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교육환경은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차원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당위성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임. 매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속적인 사업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함.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지표를 체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교육효과를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 대상 : 발달심리학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정책보고서 및 연구물(2018,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포함)
- 방법 : 체계적 문헌분석
  - 2018,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보고서 문헌적 고찰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관련 국내외 논문 문헌적 고찰

### 2) 양적 조사

#### (1)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 목적: 2020년도에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효과 분석
- 방법: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실시
  - 2020년도에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분석을 위해 2017년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및 특수지표(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존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 36 문항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해소정도를 묻는 1문항을 추가하여 총 37문항으로 측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시작 시기와 참여 인원, 교육방식 유형에 변동이 있어 종이 설문지로 설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제한된 기간 내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실시간 자료 수집 및 코딩이 가능한 온라인(구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약 4개월간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함. 사전 설문조사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4주 내에 실시되었으며 사후 설문조사는 교육 종료 1주 전부터 종료일까지 실시됨. 양적 설문조사를 실시함. 단,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참여자가 있는 기관에는 요청에 따라 종이 설문지를 발송하여 진행함.
  - 본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자기보고식 응답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시작 전과 시작 후에 각각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별, 기관별 프로그램 시작 시기가 상이해 일부 기관에서는 교육이 진행된 후 교육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함.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모바일 기프트콘을 발송함.

○ 대상: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와 참여자의 법적보호자(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총 738명

-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법적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총 738명(대응표본 119명, 독립표본 619명)의 자료를 수집함.
- 사업별 대상자의 특성,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층위표집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유아 및 아동(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의 법적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드림아트랩 4.0 프로그램,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표 1-1〉 양적조사 표집틀

사업명	유아 문화 예술 교육	예술꽃 씨앗 학교	부처(방후) 청소년 협력 문화 예술 교육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노인 영상 시범 사업	작가인 문화 예술 교육	부처(근로자) 협력 문화 예술 교육	지역 특성화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생애 전환 문화 예술	미가입*	총계
유아기 (0~5세)	142명												142명
아동기 (6~12세)				32명						51명			83명
청소년기 (13~19세)		94명	14명							12명			120명
성인기 (20~64세)							15명	53명	178명		21명		267명
노년기 (65세~)					54명	22명							76명
미가입												50명	50명
계	142명	94명	14명	32명	54명	22명	15명	53명	178명	63명	21명	50명	738명

\* : 미가입 인원은 참여자가 교육기관을 기입하지 않아 참여사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 분석 내용

- 문화예술교육 참여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비교
-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대, 성별, 거주지역, 최종학력)과 참여 프로그램 현황(교육 진행 형태, 과거 교육 경험 여부, 교육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실시
- 생애주기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독립 및 대응표본 t-test 실시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사전-사후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Two-way ANOVA 를 실시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생애주기별 효과차이를 비교하는 ANCOVA 실시

○ 결과 활용

-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파악, 비교하고,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
- 생애주기별 교육 효과에 대한 양적-질적 결과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의 시사점 제시

(2) 2018-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3개년 비교분석

- 목적: 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구체적인 변화 추이 파악
- 대상 및 방법: 2018-2020년도의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구해 효과크기를 제시함.
- 결과 활용: 연도별 비교를 통해 시간의 흐름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증가 여부 규명

3) 질적 조사

- 목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환경 및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양상 파악
-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및 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 진행
  - 연구자가 교육 기관에 방문하여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관계로 비대면 온라인(Zoom) 인터뷰를 진행함.
  - 양적 지표와 연계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참여자 대상용, 관계자 대상용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해소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함.
- 대상 :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와 참여자의 법적보호자(유아 대상 교육의 경우), 강사, 시설관계자(담당자) 총 52명
  -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법적보호자, 강사,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52명(10개 기관)에 인터뷰를 시행함.
  - 유아의 경우 인터뷰 응답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의 법적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문화예술교육 12개 사업 중 FGI를 진행하기로 한 9개 사업에서 각 1개 이상의 기관에 인터뷰를 진행함. 단, 부처협력(방과후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기관 섭외가 어려워 FGI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유아 대상 사업의 일부 기관은 참여자의 법적보호자 섭외가 어려워 강사와 시설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표 1-2〉 질적조사(FGI) 표집틀

사업명	유아 문화 예술 교육	예술꽃 씨앗 학교	부처(방과후 청소년) 협력 문화 예술 교육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노인 영상 시범 사업	직장인 문화 예술 교육	부처(근로자) 협력 문화 예술 교육	지역 특성화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생애 전환 문화 예술	미기입	총계
유아기 (0~5세)	14명												14명
아동기 (6~12세)				6명						2명			8명
청소년기 (13~19세)		6명	0명										6명
성인기 (20~64세)								5명			8명		13명
노년기 (65세~)					7명	4명							11명
미기입													-
계	14명	6명	0명	6명	7명	4명	-	5명	-	2명	8명	-	52명

○ 분석내용

- 내용분석을 통해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양적 지표의 타당도를 보완하고, 생애주기별 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특성 및 효과를 구체적, 심층적으로 이해
- 교육환경(지역, 연령, 교육 분야 등) 및 참여 기간에 따른 교육 효과의 변화양상 파악
- 실효성 있는 사업 발전 방안 제언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결과 활용

- 생애주기별 성장발달을 돕는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내용 개선안 마련
- 사업별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침 제시
-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효과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한 시각적 자료 마련

#### 4)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

- 목적 :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 중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질적 인터뷰 내용의 객관성 확보
  -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FGI 질적 내용 분석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고, 시각화하여 생애주기별 특성과 효과 차이를 직관적으로 제시
    - ① 생애주기별 키워드 분석: 생애주기별로 주요하게 나타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 관련 단어들을 분석
    - ②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키워드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해당 효과지표와 관련된 내용 및 변인 탐색 가능
- 방법 : 각 지표별로 키워드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워드네트워크로 시각화함. 양적 조사를 통해 구성된 면담 녹취록을 대상으로 R(버전 4.0.2)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진행한 후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이를 통하여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한 효과를 양적인 분석 방법으로 재확인 하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또한 효과 지표별 생애주기 집단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함.
- 대상 : 질적 조사를 통해 구성된 인터뷰 녹취록 총 18개
- 분석 내용: 이를 통하여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한 효과를 양적인 분석 방법으로 재확인 하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함.
  - 한 문서에서 동시 출현하는 키워드들의 상관을 계산함. 이때, 한 문서의 기준은 연구진의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 하나를 기준으로 함. 즉 연구진의 질문에 답한 참여자의 대답이 하나의 문서가 되며 같은 문서 내에 쓰인 키워드들을 동시에 출현했다고 가정함. 이를 바탕으로 상관(pairwise correlation)을 계산함. 구체적으로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각각 출현한 빈도 대비 동일 문서 내에서 함께 출현한 횟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상관 값을 가짐. 따라서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키워드가 함께 언급된 비율이 각기 따로 등장한 비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스스로”와 “표현”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두 키워드가 함께 출현한 문서의 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1-3〉 텍스트 마이닝 pairwise correlation

	단어2가 출현	단어2가 출현하지 않음	총 문서 수
단어 1이 출현	$n_{11}$	$n_{10}$	$n_{1.}$
단어 1이 출현하지 않음	$n_{01}$	$n_{00}$	$n_{0.}$
총 문서 수	$n_{.1}$	$n_{.0}$	$n_{..}$

$$\text{pairwise correlation} = \frac{n_{11}n_{00} - n_{10}n_{01}}{\sqrt{n_{1.} \cdot n_{0.} \cdot n_{.1} \cdot n_{.0}}}$$

- 각 지표별로 지표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구성하여 해당 키워드들과 상관을 가지는 단어들을 네트워크로 그림. 이때 분석은 생애주기인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각각 진행함.
- 분석에 앞서 형태소 분석 및 한글 전처리를 실시함. 동사, 형용사 및 부사를 제외하고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정리함. 이때, 본 연구에서 중요한 단어이지만 용법에 따라 명사로 구분되지 않고 부사로 구분되는 “서로”, “자기”와 기본적으로 부사로 형태소 분석이 되는 “스스로”를 개별적으로 추가함. 따라서 일반명사, 고유명사와 함께 “자기”, “서로”, “스스로”를 추가하여 자료를 구성함.
- 분석 결과에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 및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같은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연구진들의 간략한 연구소개가 나타나는 면담의 시작과 마무리 인사 등의 끝 부분은 분석 포함하지 않음. 또한 각 생애주기 집단마다 본 연구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 상관 분석을 통해 각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 후, 이를 워드네트워크로 시각화함. 각 지표별로 상관을 보고자하는 키워드를 투입하여 상관이 0.3이상인 단어 관계만 보이도록 설정함. 따라서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 이상임을 의미하며 상관이 높을수록 진한 색으로 표현됨.
- 각 지표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 키워드일지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효과 지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주되게 나타난 경우, 해당 키워드의 네트워크는 시각화 결과에서 제외하여 제시함. 또한 각 지표별로 생애주기 전 집단의 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효과 지표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를 보였거나, 효과 지표와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 경우만 선택하여 시각적인 결과로 보고함.

## 5) 전문가 자문회의

- 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에 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특성을 반영
- 방법 : 국내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자문위원 2인을 섭외한 후 1차 자문회의는 비대면 온라인(Zoom) 회의, 2차 자문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음.

〈표 1-4〉 전문 자문위원단 목록

이름	소속	직함	참여여부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육학	교수	1차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1차, 2차

### (1)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 내용
  - 2017년 기 개발된 효과지표의 수정보완 사항과 신규 개발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함.
  - 체계적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제안한 수정 보완된 효과 지표의 타당성 자문을 통해 지표의 안면 타당도 확보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생애주기별·사업별 특성 및 효과 자문
- 결과 활용
  - 기 개발 문항들을 수정하고 신규 개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연속비교연구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자문위원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음.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적인 효과 비교 분석을 위해 기 개발된 지표만을 활용하여 효과를 측정함.

### (2)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 내용
  - 양적 설문 결과 및 질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함.
- 결과 활용
  -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3. 기대 효과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당위성 기반 마련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교육 대상자들은 발달과정에 따라 공통적 심리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대상자 및 사업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 검증 가능.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들의 축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양적 질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추적하고, 서로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개인의 행동적·심리적 다양한 변화 양상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음. 즉, 문화예술교육의 단기적 장기적 교육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해 질적으로 어떤 변화의 요인과 양상이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음. 객관적이고 타당한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당위성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
- 효과 검증의 타당성 및 신뢰성 증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양적 검증을 통해 교육의 단기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양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장기적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효과성 분석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 변화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개인, 기관,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통합적 평가 실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효과에 대한 통합적 평가는 효과 검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가치 확산을 도모
- 효과 검증의 타당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질적 지표 개발 연구 제안
  - 현재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2017년 개발된 효과지표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되고 있음.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체계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양적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결과만 분석된다는 점, 통일된 양식으로 인해 문항의 난이도와 길이가 특정 참여자들(아동, 노인 등)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무성의한 반응, 실제 참여자가 경험했을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되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과정 동안 나타난 대상자의 변화를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 검증의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성 제시

- 생애주기별 특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2020년에 실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생애주기별 효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해석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개선점을 파악함. 특히,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질적 검증을 통해 사업별, 생애주기별 맥락에 따른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효과 증진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을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은 이후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 및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효과성 검증은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효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4. 연구 추진 일정

1) 연구 추진기간 : 2020년 5월 ~ 2021년 1월 (9개월)

〈표 1-5〉 연구 추진 일정표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b>1. 문헌연구</b>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2018-2019 효과분석 연구 검토									
<b>2. 양적연구</b>									
2020 효과분석 조사 설계 및 섭외									
사전 설문 조사									
사후 설문 조사									
2020 효과분석 조사 결과 분석									
2018-20 효과성 시계열 분석									
<b>3. 질적연구(FGI)</b>									
인터뷰 설계 및 섭외									
FGI 실시									
FGI 녹취록 작성 및 결과 분석									
<b>4. 전문가 자문회의</b>									
-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b>5. 보고 및 회의</b>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서 작성 및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회									
연구진 정례 회의									

---

## Ⅱ. 주요 연구 결과

---

1. 문헌분석
2. 2020 문화예술교육 사전사후 효과 분석
3. 2020 문화예술교육 집단별 효과 차이
4. 문화예술교육 효과 3개년(2019-2020) 비교



---

## II. 주요 연구 결과

---

### 1. 문헌 분석

#### 1) 2018-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 (1) 2018년 보고서

###### ① 연구 목적

- '2017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세부지표 구축 및 조사 연구'에서 개발된 효과지표를 활용하여 진흥원 정책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나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 및 분석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이해하고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및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② 주요 결과

- 문헌연구를 통해 생애주기 구분 및 단계별 특징과 관련한 학술연구, 생애단계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하였으며, 문화부 정책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검토함.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을 위한 특수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이는 선행연구 내용, 전문가 의견, 사업팀 의견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 혹은 일종의 가설이라고 밝힘.
- 설문 조사를 통해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측정 후 차이검증(t-test)를 실시함. 참여자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인 여건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사후 대응표본을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후 시점에서 응답자인식 기반으로 사전-사후 효과 측정함. 그 결과, 핵심지표인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 응답자 인식 기반(사후에 사전-사후 측정)에서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특수지표에서는 조사 시점 기반보다는 응답자 인식 기반에서 대부분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③ 제언

-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을 위해 사전과 사후로 조사 시점을 나누어 조사할 것 제안함. 2018년 연구에서도 사후에 교육 전/후에 대한 응답자 인식 기반한 준석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사전/사후로 조사 시점을 나누어 분석한 경우 보다 보수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결과가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도구는 대상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하되 풍성한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추가 수집할 것을 제안함. 연구특성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에 근거하여 효과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을 제안함. 최소 3년(2018-2020)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 (2) 2019년 보고서

### ① 연구 목적

-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보이는 변화양상을 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생애주기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함.

### ② 주요 결과

- 문헌연구를 통해 발달심리학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와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 교육 효과분석 정책보고서 및 연구물(『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포함)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효과를 파악함. 이를 통해 집단과 사업별 교육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함,
- 2017년 개발된 효과지표를 조사도구로 사용함.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지표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생애주기별, 사업별 특수지표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의미로 모든 특수지표를 사용함. 생애주기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도 제언을 반영하여 사전-사후 조사 시점을 나누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별 효과 비교를 추가하여 분석함.
- 양적연구에서 2019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보호자(유아 및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총 1,969명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함. 대응표본 집단과 독립표본 집단을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2018년도 응답자 기반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효과가 낮음.

-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의 과거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간이 길수록 사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질적연구에서 2019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 운영 강사 및 담당자, 참여자 부모(아동 참여자의 경우) 7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양적 연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및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효과 증대요인을 탐색함. 그 결과, 개인적, 관계적,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발견됨.

### ③ 제언

-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의 중단적 연구를 제언함.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의 차이로 보는 단기적 효과보다 지속적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중단적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기간별 양적 지표 분석에서 생애주기별 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 차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해 생애주기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중단적으로 설계된 패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게끔 함
- 문화예술교육 효과 파악과 효과 증대를 위해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지속적인 질적 연구를 제언함.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양적 자료에 대한 지속적 축적과 변화 추이 분석과 질적 연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구체적 맥락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논의

-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2017년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함.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응답자 인식에 기반한 설문조사 설계로 인해 객관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
-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사전-사후 조사 시점을 분리하여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생애주기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추가하여 과거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함. 또, 질적 연구를 통해 효과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함. 그러나 대응표본 결과와 독립표본의 결과가 상이하고, 양적 연구결과와 질적연구 결과의 통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2020년에는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효과지표의 수정 없이 17년도에 개발된 효과지표를 활용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을 위해 지표별로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함. 사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를 묻고, 사후에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함.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져 비대면으로 진행된 곳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 방식에 따른 효과분석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음.

- 이외에도 앞서 보고서의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의견 및 2020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봄.

<표 II-1> 2018, 2019년도 분석 비교

2018년도		2019년도	
효과지표	참여자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활용	특수지표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생애주기별 특수지표 구분 없이 측정 + 양적 지표 보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질적 효과 검증	
측정시점	(현장 한계로 인해) 사후 응답자 인식에 기반	사전 -사후 조사 시점 분리	
한계점	객관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측정의 한계	대응표본 결과와 독립표본의 결과가 상이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의 통합 미흡	
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효과 지표의 수정 없이 17년도에 개발된 효과 지표를 모두 활용</li> <li>• 효과지표별로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li> <li>• 코로나19 특수 상황 반영 코로나19에 대한 문항 추가 분석</li> <li>• 보다 풍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집단별 사전/사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차이 검증</li> </ul>			



## 2) 생애주기별 심리사회적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 (1) 유아

#### ① 심리·사회 발달

- 유아기에 자신의 특성, 능력, 태도, 느낌을 모두 포괄하는 자아개념 (self-concept)이 발달함. 이러한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형성됨. 대체로 유아의 자기개념은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경향이 있음. 또 유아기에 자아존중감이 출현하는데,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포함함.
- 유아기 동안 개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위를 탐색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형성함. 자신의 방법과 속도대로 행동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자율성이 발달하며, 그렇지 못하면 수치심을 발달하게 됨. 이 시기 자율성을 획득한 유아는 이후, 진취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성장함. 반면 이때 유아의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어른이 못하게 하면 유아가 혼나고 있다고 느껴 죄의식을 갖게 되어 자신감을 잃고 외부세계에 두려움을 갖게 됨.
- 유아는 정서발달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함. 유아는 성인이 감정을 다루는 것을 관찰하면서 정서조절 전략을 배움. 예술적이고 정서가 풍부한 동화책을 많이 읽고 부모와 안정적 애정을 교류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됨. 유아기 감정 조절능력 발달은 행동 통제에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함.
- 유아기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인 양심이 형성됨. Kohlberg에 따르면, 인지발달을 바탕으로 도덕성 발달이 이뤄짐. 유아는 자신의 행위 결과가 벌인지 칭찬인지, 또는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악을 판별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이면 옳다고 판단함. 인지발달이 유아의 도덕적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 유아는 성인 혹은 또래 집단과 도덕적 문제에 논의하고 그들이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관찰하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 사고가 발달함.

#### ② 사회적 관계 발달

- 유아는 또래와의 대화가 더 빈번해지고 상호작용이 증가함. 이들은 친구를 함께 놀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별함. 4세경부터 성인보다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며, 그 이후 또래와의 접촉이 계속 증가함. 유아의 성장에 따라 놀이유형도 변화함. 특히, 역할놀이 등 가상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됨. 또 가상놀이에서 역할을 나누고, 놀이 계획을 타협하면

서 관찰력, 주의집중, 기억, 창의성, 의사 표현, 타인의 의견 수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을 강화함(신명희 외, 2017; Bergen & Meuer, 2000; Ruff & Capozzoli, 2003).

### ③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

- 문화예술 활동은 유아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침. 한 연구에서 만 5세의 유아 23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통합문화예술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변화를 주는 지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활동을 한 유아 집단의 유창성, 상상력, 신체 창의성이 활동을 하지 않은 유아 집단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이은영, 고영미, 김은영, 2016). 강은영과 최미숙(2014)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언어 창의성, 도형 창의성, 신체 창의성이 더 높았으며, 자기인식·표현 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 능력, 타인조절/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정서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은 유아의 문화예술 능력과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며(이채영, 박연선, 2017), 자기표현력과 행복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박민지, 김지은, 2017).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자기표현력, 공감능력, 창의성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17년에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토대로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선정함. 이때, 유아기 대상 특수지표로써 개인심리적 차원의 지표인 행복감, 문화수용력, 창의성, 자기표현력을 선정함.
-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 연구 결과 개인심리적 차원의 지표로서 자기조절력, 유창성, 상상력, 신체창의성이 추가적으로 나왔음. 자기조절 능력은 기존 효과지표에서 개발된 하위 요소임. 생애주기별 특수 지표확인을 위해 대상별 특수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특수지표를 사용하여 효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에서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러한 차이는 ‘자기조절력’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7년에 기 개발된 효과지표에서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와 같은 개인 내 정서 및 인지 변화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을 하는 것임. 유아는 자기보고식 설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 대상 연구를 진행 할 시, 주로 주양육자 혹은 연구자가 행동관찰을 실시함. 하지만, 본 측정문항은 관찰자 관점에서 드러나는 변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효과지표에서 측정하는 자기조절능력은 자기보고식 설문이 불가능한 유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측정 방법이 아님.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할 시에는 보다 행동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II-2〉 유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유아기	0~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사회적 발달: 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자아개념 형성,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이해, 기초적 도덕개념 형성</li> <li>• 발달과업: 놀이를 통한 전인적 발달, 자율성 및 주도성 획득</li> </ul>	17년 개 발 효 과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향상</li> <li>• 특수지표 (개인심리적 차원): 창의성, 상상력, 자기표현력, 문화수용력, 행복감</li> <li>•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공감능력</li> </ul>
			그 외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지표 (개인심리적 차원): 자기조절력, 유창성, 상상력, 신체창의성</li> <li>•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정서지능-타인조절, 대인관계 능력</li> </ul>

## (2) 아동

### ① 심리·사회 발달

-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자아개념에 변화가 생김. 이제 아동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능력, 행동, 소유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함. 이는 아동기가 되면서 사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아동은 자신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개인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자아를 규정함.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더욱 복잡한 자아상을 구성함.
-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보다 분화되고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재형성됨. 이는 아동의 사회 비교뿐 아니라 또래의 피드백, 학업성적, 교사의 평가가 아동의 자기 평가 속에 통합되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즈음 자아존중감이 소폭 하락하다가 4학년과 6학년 사이 상승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하락함. 실제 성취에 기초하지 않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경쟁과 비판에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게 하므로 아동에게 유해할 뿐임. 따라서 아동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아동기는 자아효능감 형성에 중요함.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함. 아동은 특정한 영역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가 발달하므로 이 시기 자기효능감 형성이 시작됨.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향적 노력을 촉진하여 높은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낮은 성취수준에 머무르게 함(Bandura, 1993).
-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 친구와 집단생활로 집단 혹은 단체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함. 아동은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함. 이에 따라 자신과 또래를 비교할 수도 있고, 가치관의 토대를 형성하며,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도 획득함. 또 학교의 규칙이나 법을 준수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닦음.
- 아동은 자랑스러움,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를 더 잘 이해하며, 이러한 정서는 개인적 책임감과 통합됨. 이들은 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정서가 경험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서 반응을 일으킨 사건을 더 잘 인지함. 아동의 정서표현은 성장 과정을 통하여 수용 가능한 형태로 사회화되는데, 효과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함(장미경, 정태연, 김근영, 2014).
- 아동의 도덕 판단 기준이 변화함. Kohlberg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의 여부가 선악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사회질서와 권위를 지향하고, 법은 절대적이고 사회질서는 유

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도덕성을 판단함. 개인적인 문제보다 전체를 위한 의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어진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② 사회적 관계 발달

- 아동은 성장하면서 점차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가 분명해지고 보다 안정된 또래 관계가 형성됨. 한국의 초등학교 아동은 공부나 운동을 잘하고 정직하며 착한 아동 즉, 도덕성이 강한 아동을 좋아함(신명희 외, 2017). 초등학교 연령에서 아동의 놀이는 공식적인 게임으로 발전하고, 여러 사람이 동의한 목표와 지켜야 할 규칙을 갖게 됨. 협동 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함.
- 아동이 경험하는 우정의 기능은 다양함. 초등학생 아동은 가까운 동성 친구와 자주 만나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우정을 느낌(Buhrmester & Furman, 1987). 친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도 하며, 신뢰감과 소속감, 친밀감, 안정감을 얻음(Buhrmester & Furman, 1985). 특히, 가까운 친구는 중요한 정서적 자원이 됨. 또래 집단에 수용되고, 또래와 친구가 되면서 자기 가치감이 향상되며, 친구의 수와 우정의 질은 낮은 외로움과 우울, 불안 및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
- 또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학습하고, 자기 견해의 한계를 이해하기 시작함. 친구들과 서로 주장하고, 흥정하며 결국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충함. 또, 또래와 함께 놀이함으로써 사회적 규칙과 또래 집단의 압력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게 됨. 즉,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융통성 있는 성인사고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줌.

## ③ 아동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과 역량 관련 단소 지도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시행한 결과, 음악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공감, 타인의 음악적 표현 및 실수에 대한 존중과 격려, 음악을 통한 효율적 소통과 조정이 향상되었음(김화숙, 2018).
-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한 결과, 아동들은 전통 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의범절을 익혔으며, 차츰 대화법도 긍정적으로 변화. 또, 전통춤 프로그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아동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함(배나래, 2017).
- 박소연과 이진구(2019)는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과 더불어 행복감, 창의성, 자기 표현력을 아동

기에 중요한 효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박소연과 박용호(2016)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 문헌 연구, 예비조사, 전문가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를 거쳐 요인분석을 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 자기 효능감, 자기 표현력, 사회성, 행복감, 창의인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

- 아동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친밀감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17년에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토대로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선정함. 이때, 아동기 대상 특수지표로써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지표인 행복감, 창의성, 자기표현력, 자존감과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지표인 친밀감을 선정함.
-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 연구 결과,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생활만족도 향상,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사회성, 학교적응력 향상, 가족관계 개선, 예의범절 및 긍정적 대화법 학습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기존지표 외 아동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로서 학교적응력 향상, 가족관계 개선, 예의범절 및 긍정적 대화법 학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II-3〉 아동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성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아동기	6~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사회적 발달: 또래와의 비교를 통한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 형성,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규칙 학습</li> <li>• 발달과업: 학업, 또래관계에서의 근면성(성실성) 및 유능감 획득</li> </ul>	17년 개발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li> <li>• 특수지표Ⅰ (개인심리적 차원): 창의성, 자기표현력, 행복감</li> <li>• 특수지표Ⅱ (대인관계적 차원): 친밀감</li> </ul>
			그 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지표Ⅲ (개인심리적 차원): 생활만족도 향상</li> <li>• 특수지표Ⅳ (대인관계적 차원): 사회성, 학교적응력 향상, 가족관계 개선, 예의범절 및 긍정적 대화법 학습</li> </ul>

### (3) 청소년

#### ① 심리·사회적 발달

-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기 탐색에 열중하여 자아 정체감을 형성함.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으며,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함.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시기 정체감의 위기를 제안함.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갖는 상태임.
- 청소년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발달함. Kohlberg에 의하면 12~17세 청소년은 타인의 관점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함. 이 시기 청소년은 타인, 특히 권위 있는 타인에게 칭찬을 받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함. 따라서 신뢰, 의리, 충성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김. 그 다음 단계의 도덕성에 도달한 청소년은 법과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함. 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함.

#### ② 사회적 관계 발달

-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 신체적, 인지적 발달로 부모의 물리적 처벌이 어려워지고, 부모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가치관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며, 점점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청소년-부모 사이의 갈등이 증가함. 이러한 갈등은 중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고등학교 시기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차츰 감소함.
- 우정은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중요해짐. 친구는 아동기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던 정서적 지원의 일부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녕에 기여함(Vitaro, et al., 2009). 청소년기에 친구 사이의 친밀감이 크게 증가하며, 부모보다 가까운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노출함(Buhrmester & Cabery, 1992).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비교하여 우정의 질이 더 중요해짐. 청소년기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주로 동성으로 구성되며 친한 친구는 단 한 사람이거나 작은 집단인 동년배 집단을 형성함.
- 청소년은 우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함. 청소년은 동조압력의 영향으로 아동보다 동년배의 표준에 더 많이 일치하려고 하며, 동년배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집단압력의 영향을 받음. 청소년은 동년배 집단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기대대로 행동함으로써 집단 동일시를 통해 긍정적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음. 또, 자기가치감을 확장하고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 지원을 받음. 즉, 친구와 함께하는 경험의 다양한 측면이 청소년기 학업 및 사회 정서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음(Cynthia, & Hellen, 2017).

- 청소년은 주로 동성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나누지만, 이성 친구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함.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③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가 다수 존재. 김소영과 이근매(2010)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형성 및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힘. 또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됨(맹영임, 2005; 백령, 2012; 정경은, 임영식, 조영미, 2019; Hapshire & Matthijsse, 2010).
- 노승환과 조덕주(2018)는 문학, 음악, 연극을 중심으로 개발한 중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 분석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창의성 및 자아 정체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공감능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질적인 측면에서는 창의성의 경우 감정 표현의 풍부화·구체화 및 능동적 사고의 신장, 자아정체감의 경우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 공감능력의 경우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과 공동체의 힘 깨닫기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음.
- FGI와 문헌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를 개발(임영식, 정경은, 2017).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효과 척도는 개인적 역량(즐거움, 자존감, 창의성), 소통(가족응집력, 우정), 사회적 상호작용(유대감, 공감, 참여, 교류), 문화예술 일상화(문화 예술 태도, 문화예술 경험 변화), 여가 향유 태도(여가 태도, 여가 경험) 요인으로 구성. 실제 문화예술교육 참여 청소년과 비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의 개인적 역량,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 문화 향유의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비참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검증.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17년에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토대로 20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선정함. 이때, 청소년기 대상 특수 지표로서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지표인 행복감, 문제해결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지표인 소통능력을 선정함.
-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 연구 결과,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학습능력 향상, 창의력, 정서발달 구체적으로 정서의 순화, 감정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성취감, 생활만족도 향상이 나타남.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 지표로서 사회성, 공감능력이 나타났으며, 기타(사회적 효과) 효과 지표로서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공동체의 힘 깨닫기 등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효



과 변인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기존지표 외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로서 개인심리적 차원에서는 학습능력 향상, 창의력, 정서발달 및 성취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사회성과 공감능력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II-4> 청소년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17년 개 발 효 과 지 표	그 외 효 과
청소년기	13~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사회적 발달: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향상, 법과 사회질서 준수에 대한 의무감 형성, 부모와의 갈등과 이해를 통한 독립적 자아 형성, 친구들과의 우정 및 친밀감 형성</li> <li>• 발달과업: 긍정적, 통합적 자아정체감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li> <li>•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 행복감, 문제해결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li> <li>•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소통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 차원): 학습능력 향상, 창의력, 정서발달 -정서 순화, 감정 표현의 풍부화 및 구체화, 성취감</li> <li>•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사회성, 공감능력</li> <li>• 기타(사회적 차원): '나'에서 '우리'로의 성장, 공동체의 힘 깨닫기</li> </ul>

#### (4) 성인

##### ① 심리사회적 발달

- 성인기 전기에는 자신의 특성 이해하고 다양한 역할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체감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진로에 대한 구체적 탐색과 의사결정 하는 시기임 (Super, 1990). 전환기(18~21세)에는 희망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현실적 요소를 탐색하고, 시행기(22~24세)에는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하기 시작함. 한국 사회의 발달 맥락에서 성인 전기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현실 요소를 탐색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 선택하는 전환기와 시행기에 해당됨.
- Levinson(1978)의 인생의 사계절에서 30세 전후는 전환기로 첫 번째 인생 구조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기임. 자기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초기 선택 재고해보고, 변화를 시도해보는 기회를 가짐. 전환기 마지막 무렵에는 인생 방향 발견하거나, 새로운 선택 혹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다른 것을 개입하기도 함. 이 시기 친밀감과 직업 성취 못한 경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성인 초기 생애 구조 완성하면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양식 확립함.
- Erikson의 발달 이론에서 중년기 성인들은 다음 세대와 가족, 지역사회, 직장,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을 영속화하는 데 관심 가짐. 이 시기에 중년들은 미래 세대의 멘토 역할, 자녀 양육에 힘쓰는 부모 역할, 예술적·창의적 작품 통해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욕구 만족을 위해 노력함.
- Jung은 개인이 가족과 사회의 요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적 측면을 발달시켜왔다면, 중년기에 개성화(individuation)을 통해 이전에 부정했던 인성의 갈등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진실된 자아가 출현한다고 봄. 예를 들어 중년기 남성은 점차 가정과 자녀에 대한 관심 많아지고, 중년 여성은 사회적 활동에 관심 가지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바뀌게 됨. 즉 Erikson의 중년이 외적인 전환을 설명한다면 Jung의 중년은 내적 전환의 시기로 설명함.
- 한편 중년기의 성격과 생활 스타일의 변화는 인생의 재평가와 스트레스를 동반함. 이를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라고 함. 이 시기는 청소년기 이후 두 번째 정체성의 위기로 성인들은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찾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에서 언급한 발달 심리학자(Erikson, Jung, Levinson)들은 중년기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보지만 많은 연구에서 중년기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아님이 드러남(Burns & Leonard, 2005). 오히려 중년은 '새로운 출발'의 시기로 인식되며 다른 과거 시기보다 더 만족스러운 시기로 인식되기도 함.

## ② 사회적 관계 발달

- 친밀한 관계 형성은 성인기의 중요 과제임(Erikson, 1963). 사람들은 자기 공개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상호 간 수용과 존중을 통해 친밀감 발달시킴.
- 친구 관계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전기에 대체로 정점 이루는 경향. 이 시기에 성인들은 가장 많은 친구와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 함.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는 가장 큰 정서적 지원이 됨. 취업과 결혼, 육아 등 이후 발달 과업의 성취 과정 중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 관계는 중요함. 교우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며,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더 높은 자존감 가짐.
- 중년기 부부관계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 성인 자녀의 결혼, 독립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부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함. 이 시기 자녀의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도록 지원함.
- 중년기 부부는 과거에 비해 기대수명의 증가로 부부관계의 유지 기간 역시 증가하였으며, 많은 자녀를 키우지 않아 자녀 독립 후 부부 둘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중년 초기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과 직업에서의 경력 개발이 중요한 시기라 결혼 만족도가 극히 낮음.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경험할 때 부부 만족도가 정점에 달함(Orbuch et al., 1996).
- 중년기 부부가 위기감을 줄이고 건강한 인생주기 형성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 중요함. 여가 활동은 결혼 만족도 높이고, 중년의 위기 줄이며, 부부 간 대화를 증가시킴으로써 갈등 감소시킴.

## ③ 문화예술교육 효과

- 성인 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감 형성임. 이 시기의 주요 인생사건은 결혼, 육아, 취업 등으로 타인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유지하고,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됨.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고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음.
- 성인 전기 대학생의 음악교양수업을 통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의 경험은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 대학 사회 적응, 개인 정서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한수정, 한경훈, 2013). 이는 음악 매체의 효과로 집단의 유대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적 수준에서 긴장 및 이완을 돕는 기능으로 인한 효과임(Kogan, 1997).
- 또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길러주며, 반복적 연습은 두뇌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 발달 능력을 길러줌(Wood, 1996). 성인 전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성인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부모 역할 역시 빠질 수 없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 성숙은 성인으로서의 주요 발달과업이자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발달과업임. 심리적 성숙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과 긍정적 사고 등의 특성을 가짐(서봉연, 황상민, 1993; 박정희, 2002).

- 문화예술교육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심미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심리적 성숙을 향상시킴(장영희, 최성우, 2016). 성인 중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중년기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아를 재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산업단지 종사자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 및 문화자본 향상, 공동체 의식 고양 등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은 개인의 더 나은 삶의 질, 더 높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정헌수, 한준, 김기현, 박종효, 2017).
- 또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예술적 본능, 창조성,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스스로에 대한 가치 경험은 예술 공동체적 실천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며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줌(신현경, 이은영, 2017).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심리적 성숙에 그치지 않고 관계와 사회에 대한 소통, 공감은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줌.
- 성인 후기 문화예술교육은 공감능력, 행복감, 자기표현력,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17년에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토대로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선정함. 이 때, 성인기 대상 특수지표로써 개인심리 차원의 효과지표인 행복감,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차원 효과지표인 공감능력, 소통능력을 선정함.
- 성인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연구 결과, 개인심리적 차원의 지표로서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정서적 안정,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성숙,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기술 학습, 부부 공감 및 관계의 질 향상, 인간관계의 폭과 소통 확대 효과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남. 또한, 사회적 차원의 지역 공동체성 회복 효과가 나타났음.
- 따라서, 기존 지표 외 성인기의 문화예술교육 지표로서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학습, 부부 공감 및 관계의 질 향상, 인간관계의 폭과 소통 확대, 지역 공동체성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II-5〉 성인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성인기	29~6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사회적 발달</li> <li>- 성인 전기 및 중기: 배우자, 가족,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수행</li> <li>- 성인 후기: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노화 및 죽음을 넘어서는 영속적 유산을 남기 고자 함, 자녀의 독립 및 결혼으로 인한 부부 관계의 변화, 직업적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li> <li>• 발달과업</li> <li>- 성인 전기 및 중기: 중요한 타인들과의 친밀감, 성공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성취감, 직업적 정체성 확립</li> <li>- 성인 후기: 삶의 의미 재경립, 사회적 생산성 확보</li> </ul>	17년 개 발 효 과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 친숙성</li> <li>• 특수지표Ⅰ(개인심리적 차원): 자기표현, 행복감, 자아존중감</li> <li>• 특수지표Ⅲ(대인, 관계적 차원): 소통 능력, 공감</li> </ul>
			그 외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 심미적 감수성 향상,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 및 체험 향상</li> <li>• 특수지표Ⅰ(개인심리적 차원):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정서적 안정, 대학생의 학교 적응,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성숙, 대인관계 문제 관련 스트레스 해소</li> <li>• 특수지표Ⅲ(대인관계적 차원):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학습, 부부 공감 및 관계의 질 향상, 인간관계의 폭과 소통 확대</li> <li>• 기타(사회적차원): 지역 공동체성 회복</li> </ul>

## (5) 노인

### ① 심리사회적 발달

-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노인기의 발달 과제는 자아 통합(ego integrity)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 자아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삶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면 절망(despair)과 무력감을 경험함. 이러한 절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함. 반면 자아 통합을 완수하면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음. 자아 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참여, 창조적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Erikson, Erikson, & Kivnik, 1986)
- Levinson은 노인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기를 ‘노인기의 전환기(60~65세)’와 ‘노인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노인기의 전환기는 중년기를 정리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재평가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노화를 확연히 인식하는 시기임. 이어지는 노인기는 사회적 권력으로부터는 멀어지지만 가정에서 손자녀에게 조부모, 자녀에게 지혜와 조력을 제공하는 지원자 역할을 하는 시기임.
- 위 이론을 정리하면 성공적 노화는 고령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성공적 노화의 요소는 크게 신체적 질병, 장애 예방, 인지적, 신체적 기능 수준 유지, 적극적 사회 참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은퇴는 노인기에 경험하는 주요 생애사건 중 하나로,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는 은퇴자가 은퇴를 심각한 위기로 보는지, 새로운 기회로 보는지에 큰 영향을 받음.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면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면 바뀐 상황에 맞게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음. 충분한 자산, 꾸준히 유지한 좋은 부부관계,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 신체 및 정신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부양해야 할 자녀나 가족이 있는데 조기 은퇴했거나 과업 지향적으로 살아 온 경우에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

### ② 사회적 관계 발달

- 노인기의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핵심적인 요소임. 일반적으로 노인기 대인관계의 폭은 지인의 사망, 선택적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좁아짐. 이러한 대인관계의 축소는 심리적,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신체적 노화, 배우자 및 지인들과의 사별, 은퇴, 경제적 어려움 등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주변인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생활 보조는 노인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함. 지인과의 관계망이 넓고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삶의 질이 높으며 우울감, 사망률이 낮음(김병하, 남철현, 1999; Blazer, 1982). 노인기 사회적 관계망 유지를 위해 은퇴와 사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인들과의 정기적 만남 및 연락, 단체 및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노인기의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체적 쇠약, 질병, 수발, 은퇴,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음. 우리나라 노인기 부부의 관계는 크게 가부장적 관계, 수정된 가부장적 관계, 평등한 관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 중 가부장적 관계는 남편의 가부장 위치, 부인의 종속적 위치가 확고하게 굳어져 부부 사이가 냉랭한 관계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 배우자와의 사별은 이혼만큼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사건으로, 심각한 경우 우울증,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사별은 남은 배우자에게 큰 충격이며 무감각, 회피, 부정 등 혼돈의 시기를 지나면 죄책감, 우울, 그리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별을 받아들이고 삶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됨. 이러한 사별 극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 지인과의 대화 등 사회적 교류임.
- 친구는 자기개방을 통해 관심사와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애정, 배려, 이해, 수용, 존중, 조언,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임. 노인기의 우정은 이전부터 유지해 온 것일 수도 있으나, 취미생활을 통해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도 있는 정서적 역량과 가능성이 있음. 친구와의 정기적 만남과 연락, 함께하는 여행이나 휴가를 통해 필요한 실질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

### ③ 문화예술교육 효과

- 노년기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기표현을 통한 사회정체성, 자아존중감 회복이었음. 삶의 질 향상에는 스트레스 및 부정 정서 해소, 생활만족 향상,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예술적 취향의 발견 및 개발, 삶의 활력 및 감성 회복,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 사회정체성 및 자아존중감 회복에는 창조적 공동체 형성, 기존 관계에 대한 성찰 및 자신감 회복,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등이 포함됨.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거나, 문해가 불가능하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노유진, 심교린, 2019; 이송하, 안지연, 2019; 이원아, 문지영, 2019; 한수정, 한경훈, 2019; 민경숙, 2018; 정혜연, 2018)
-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관찰,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참여 유도, 예술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의 형성, 문화적 생산자로서의 역할, 감정의 정화작용을 통한 치유, 문화적 양극화 해소, 공동체 의식 형성 등에 기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하여 노인들의 위축된 삶을 전환시켜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맺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음(민경숙, 2018)
- 한국 춤 활동과 같은 노인기의 신체활동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체력증진, 신

체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일상생활의 수행력을 높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MI, 근육량, 체지방률, 체중, 민첩성, 동적 평형성, 평형성, 심폐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영옥, 오수학, 2017)

- 노인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가 있었음(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9)
- 17년에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를 토대로 218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수지표를 선정함. 이때, 노인기 대상 특수 지표로써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지표인 행복감,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지표인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을 선정함.
- 노인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 연구 결과,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스트레스 및 부정정서 해소, 생활 만족도 향상,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가 나타남. 또한, 사회적 차원의 효과지표로서 창조적 공동체 형성,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효과가 나타남.
- 따라서 기존지표 외 노인기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로서 스트레스 및 부정정서 해소, 생활만족도 향상,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 창조적 공동체 형성,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II-6> 노인기 발달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

생애주기	연령	생애주기 특징 및 주요 발달과업	문화예술교육 효과	
노인기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사회적 발달: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관계 형성, 배우자, 지인과의 사별,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li> <li>• 발달과업: 신체적 노화,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 삶의 의미 통합</li> </ul>	17년 개발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li> <li>• 특수지표I(개인심리적 차원): 행복감, 자아존중감,</li> <li>• 특수지표II(대인관계적 차원): 친밀감, 소통능력, 공감능력</li> </ul>
			그 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지표(개인심리적 차원):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해소, 생활만족도 향상,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li> <li>• 특수지표III(대인관계적 차원): 소통과 공감을 통한 치유</li> <li>• 기타(사회적 차원): 창조적 공동체 형성,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li> </ul>



## 2. 2020 문화예술교육 사전사후 효과 분석

### 1)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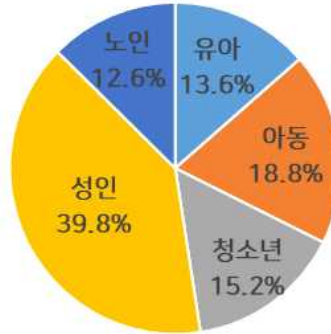
#### (1) 양적조사

○ 총 참여자 : 738명

- 본 연구의 양적조사는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사전 설문조사만 응답한 참여자 358명, 사후 설문조사만 응답한 참여자 261명,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19명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특성은 생애주기별(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성별(남성, 여성), 거주지역(시 지역, 읍면 지역), 교육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최종학력(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기타), 교육진행형태(대면, 비대면, 대체과제, 혼합), 참여교육분야(국악, 연극, 미술, 음악, 영화, 무용, 만화 및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문화, 전통문화), 과거 교육 경험 여부(있음, 없음), 교육기간(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 참여경로(지역 및 기관 홍보물 정보, 주변사람의 참여 권유,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기타)로 구분됨.
- 생애주기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유아(0~5세)는 100명(13.6%), 아동(6~12세)은 139명(18.8%), 청소년(13~19세)은 112명(15.2%), 성인(20~64세)은 294명(39.8%), 노인(65세 이상)은 93명(12.6%)이었음.
- 성별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200명(27.1%) 여성이 536명(72.6%),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사람이 2명(0.3%)이었음.
-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53명(88.5%),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85명(11.5%)이었음.
- 교육지역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58명(7.9%), 광역시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268명(36.3%),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2명(1.3%),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85명(11.5%), 경상도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46명(19.8%), 충청도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25명(3.4%), 전라도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87명(11.8%),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38명(5.1%), 제주도에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9명(2.6%)이었음.
- 최종학력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157명(21.3%),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가 106명(14.4%), 대학교 졸업 응답자가 187명(25.3%), 대학원 졸업 응답자가 65명(8.8%), 기타 응답자가 132명(17.9%),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가 91명(12.3%)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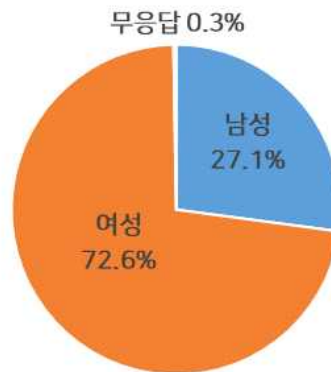
- 교육진행형태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대면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457명(61.9%), 비대면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131명(17.8%), 대체과제로 교육을 수행한 응답자가 18명(2.4%), 혼합 형태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132명(17.9%)이었음.
- 과거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3년 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58명(62.1%), 3년 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80명(37.9%)이었음.
- 교육 기간은 과거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1년 미만 경험의 응답자가 275명(37.3%), 1년~3년미만 경험의 응답자가 156명(21.1%), 3년이상 경험의 응답자가 98명(13.3%), 과거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한 무응답이 209명(28.3%)이었음.
- 참여교육분야는 과거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측정되었음. 국악 프로그램 경험자가 69명(7.2%), 연극 프로그램 경험자가 105명(10.9%), 미술 프로그램 경험자가 172명(17.8%), 음악 프로그램 경험자가 87명(9.0%), 영화 프로그램 경험자가 63명(6.5%), 무용 프로그램 경험자가 74명(7.7%), 문화 및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경험자가 28명(2.9%), 전통문화 프로그램 경험자가 74명(7.7%), 과거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한 무응답이 281명(29.1%)이었음.
- 참여경로에 따른 응답자를 살펴보면, 지역 및 기관 홍보물 정보를 통한 참여자는 308명(41.7%), 주변사람의 참여 권유를 통한 참여자는 308명(41.7%),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한 참여자는 82명(11.1%), 기타 이유에 의한 참여자는 40명(5.4%)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등의 응답을 포함했음.

〈표 II-7〉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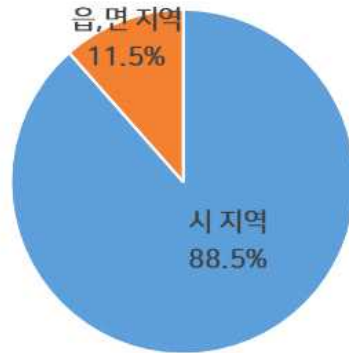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연령대	유아(0~5세)	12	21	67	100
	아동(6~12세)	27	77	35	139
	청소년(13~19세)	11	67	34	112
	성인(20~64세)	46	164	84	294
	노인(65세 이상)	23	29	41	93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8〉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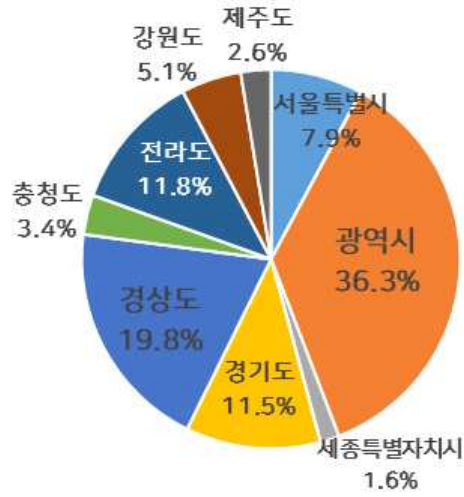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성별	남성	36	78	86	200
	여성	83	280	173	536
	무응답	0	0	2	2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9〉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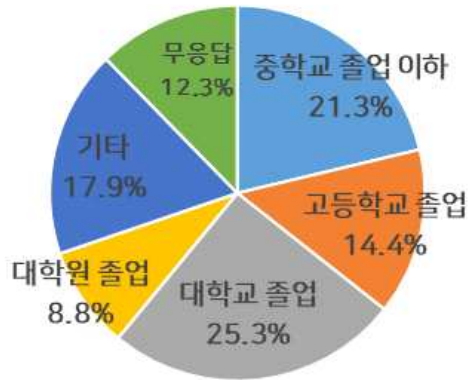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거주지역	시 지역	112	306	235	653
	읍,면 지역	7	52	26	85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10>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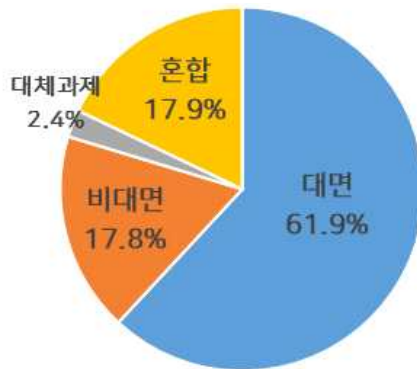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교육지역	서울특별시	19	29	10	58
	광역시	49	81	138	268
	세종특별자치시	0	3	9	12
	경기도	11	60	14	85
	경상도	10	74	62	146
	충청도	1	22	2	25
	전라도	20	51	16	87
	강원도	2	32	4	38
	제주도	7	6	6	19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11>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최종학력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5	85	47	157
	고등학교 졸업	20	47	39	106
	대학교 졸업	30	102	55	187
	대학원 졸업	11	37	17	65
	기타	24	22	86	132
	무응답	9	65	17	91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12>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진행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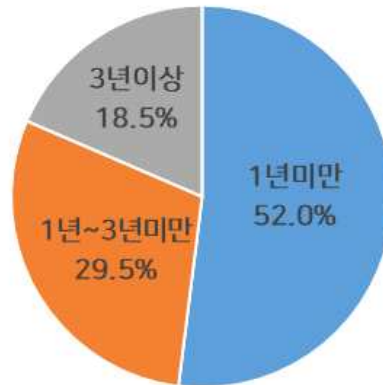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교육 진행형태	대면	88	194	175	457
	비대면	24	82	25	131
	대체과제	0	14	4	18
	혼합	7	68	57	132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13〉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과거교육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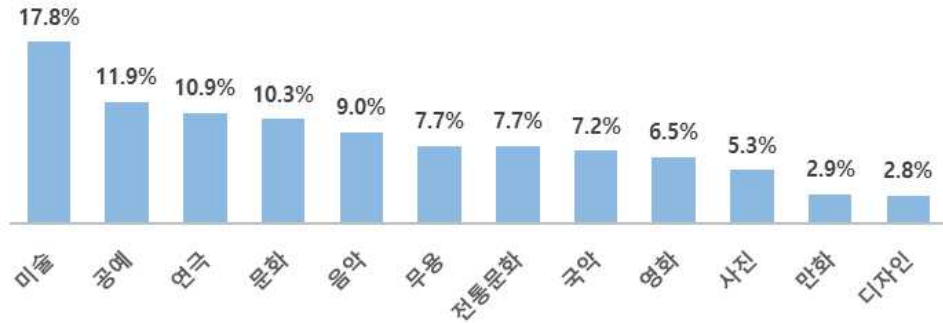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과거교육 경험여부	있음	66	205	187	458
	없음	53	153	74	280
	전체	119	358	261	738

〈표 II-14〉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교육기간(과거경험자 대상)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교육기간	1년미만	49	100	126	275
	1년~3년미만	25	68	63	156
	3년이상	14	51	33	98
	무응답	31	139	39	209
	전체	119	358	261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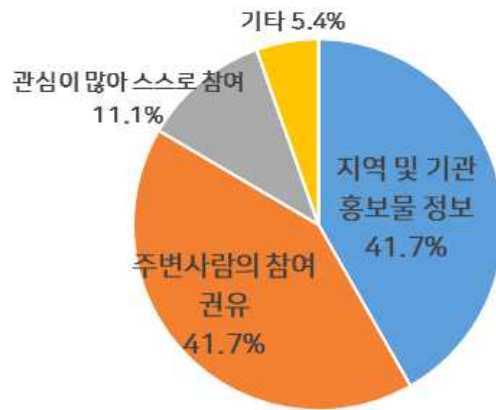
<표 II-15>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참여 교육 분야(복수응답)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참여교육 분야 (복수응답)	국악	15	28	26	69
	연극	13	43	49	105
	미술	32	60	80	172
	음악	14	41	32	87
	영화	5	22	36	63
	무용	10	27	37	74
	만화, 애니메이션	1	8	19	28
	공예	17	61	37	115
	사진	12	17	22	51
	디자인	4	11	12	27
	문화	9	36	54	99
	전통문화	10	32	32	74
	무응답	53	153	75	281
	<b>전체</b>	<b>195</b>	<b>539</b>	<b>511</b>	<b>1245</b>



〈표 II-16〉 202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참여 경로



참여자 특성	구분	대응표본	독립표본		전체
		사례 수	사전 사례 수	사후 사례 수	사례 수
참여경로	지역 및 기관 홍보물 정보	56	146	106	308
	주변사람의 참여 권유	42	152	114	308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13	43	26	82
	기타	8	17	15	40
	전체	119	358	261	738

## (2) 질적 조사

○ 총 참여자 : 52명

- 본 연구의 질적조사는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 참여자의 법적 보호자(유아), 사업 및 시설 담당자, 강사 중 5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당초 60명을 인터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의 재개일정이 기관 및 사업별로 상이하고 교육 참여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 52명을 인터뷰 하였음.
- 양적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인터뷰 시점에 프로그램이 50% 이상 진행된 기관을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여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10개 기관을 인터뷰 하였음. 유아대상 교육기관 3곳(14명), 아동대상 교육기관 2곳(8명), 청소년대상 교육기관 1곳(6명), 성인대상 교육기관 2곳(13명), 노인대상 교육기관 2곳(11명)과 인터뷰 진행함.

〈표 II -17〉 FGI 참여자 정보

생애 주기	사업구분	기관	참여자	총 참여자 수	
유아	유아	○○유치원	담당자 1, 강사 2, 보호자 2	5명	14명
	유아	○○어린이집	담당자 1, 강사 1, 보호자 4	6명	
	유아	○○어린이집	담당자 1, 강사 2	3명	
아동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	담당자 1, 강사 1, 참여자 4	6명	8명
	꿈다락문화학교	○○문화원	담당자 1, 강사 1	2명	
청소년	예술꽃씨앗학교	○○중학교	담당자 1, 강사 1, 참여자 4	6명	6명
	부처(방과후청소년)*	-	-	-	
성인	생애전환문화예술	○○산업단지공단	담당자 1, 강사 4, 참여자 3	8명	13명
	부처(근로자)	○○문화예술지원센터	담당자 1, 강사 2, 참여자 2	5명	
노인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담당자 1, 참여자 6	7명	11명
	노인영상시범사업	○○미디어센터	담당자 1, 강사 1, 참여자 2	4명	
<b>전체</b>				<b>52명</b>	

\*: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의 재개가 불투명하고 교육 참여자 섭외가 어려워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함.

## 2) 핵심지표: 문화예술적 차원

### (1) 문화예술감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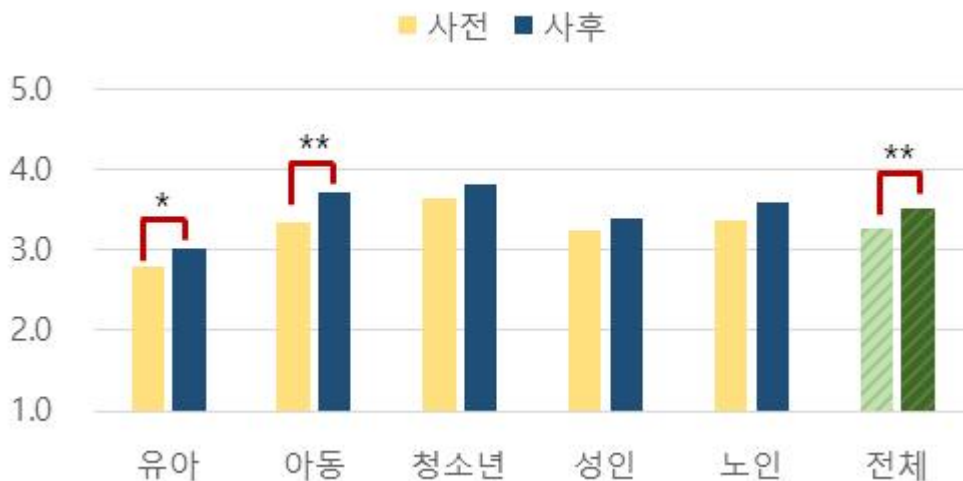
- 정의: 문화예술을 다양한 감각과 인지를 통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 체험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영감이나 자극, 감동을 받는 정도

〈표 II-18〉 문화예술감수성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li> <li>▪ 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li> <li>▪ 나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li> </ul>	감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증가</li> <li>▪ 삶 속의 작은 것에 감동</li> <li>▪ 감성 풍부</li> </ul>
	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술 및 특성 향상</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19〉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감수성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사전	<i>M</i>	2.81	3.35	3.64	3.23	3.36	3.28
	<i>sd</i>	.85	1.04	.80	1.07	.78	.97
사후	<i>M</i>	3.03	3.73	3.82	3.38	3.59	3.51
	<i>sd</i>	.94	.93	.78	.92	.51	.86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 $p < .05$ )와 아동( $p < .05$ )의 문화예술감수성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청소년과 성인, 노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감수성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감수성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 < .01$ ).

○ 질적 효과 지표

<표 II-20>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감수성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감상 능력	●	●	●	●	●
수행 능력	●	●	●	●	●

- 문화예술감수성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감상 능력 향상과 수행 능력 향상이 나타났음. 감상 능력 향상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증가, 삶 속의 작은 것에 대한 감동 등이 나타났음. 수행 능력 향상에는 관련 기술 및 특성이 향상이 포함 됨.

- 유아의 경우 회차가 지나갈수록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수행 및 감상 능력>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리감을 느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요즘 애들이 과감하게 그림을 잘 그려요. 점점 더 잘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 유아, 관계자

“음악을 조금 더 음악을 들어놓고 느낀 점을 그려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세히 더 잘 들어봅니다. 맘에 드는 건 한번 씩 더 물어달라고 하기도 해요.”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삶 속에서 관련 감성을 느끼는 능력이 관찰되었음.

<수행 및 감상 능력>

“한번은 어린이집 가기전에 벌레를 아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미술시간에 그걸 그렸다고 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이 친구는 많다 보니까 자기가 관찰한 낙엽잎 같은 것을 미술프로그램에 그림, 만들기를 다 적용할 때가 있어요.”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감사 능력과 수행능력 모두에서 질적 효과가 나타남. 특히나 수행능력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이는 프로그램이 목공예 및 유리공예, 도자기 등 교과목과 접목시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수행 차원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수행 및 감상 능력〉

“목공은 교육 중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는데 사포질도 해보고 드릴질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구멍 뚫는 것도 해보고 색다른 경험들을..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봐서 기억에 남았어요.” - 청소년

“우리학교 공예도 아마 유리공예를 접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일이 아이들은 물론 저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학교 저 젊은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감명을 받더라고요. 또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놀라게 되고, 자기의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청소년, 관계자

“저는 약간 이게 다 미술이니까 좀만 더 나한테 손재주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림 감각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도면도 그리고 하다보니까 자도 일자로 그리게 되고 그런 세세한 성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 청소년

- 성인의 경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화예술 자극을 통해 삶속에서 문화예술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경향성을 보였음.

〈수행 및 감상 능력〉

“제가 접했던 그런 전혀 색다른 분야에 사람들 만남으로 해서, 저의 또 감성 이런 것도 더 풍성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성인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학교 졸업이후로 좀 놓치고 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한 감성을 끌어내가지고 2시간 다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움직임 이유가 없으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 성인

“마이크 쓰는 법이라든지, 또 원고를 보고 발음하는 거라든지, 또 뭐 이제 많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얼굴근육, 입술근육을 푸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저는 지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 성인

- 노인의 경우, 관련 문화예술매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고 일상에서 기술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

<수행 및 감상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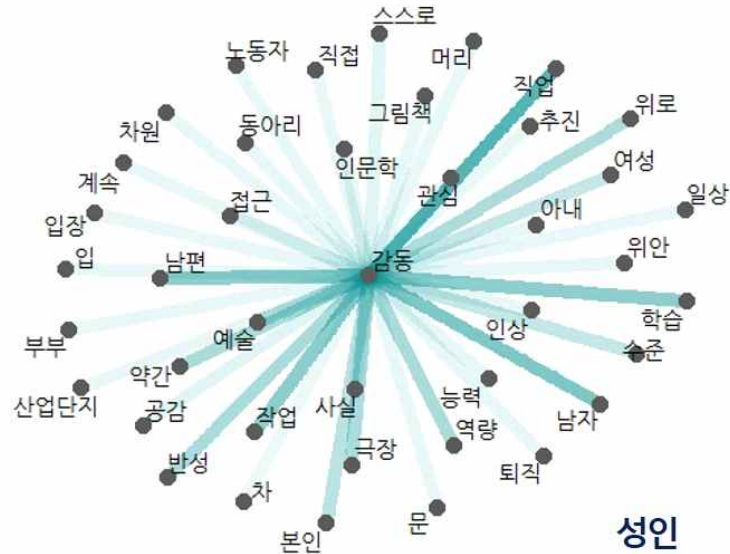
“ 예전에는 그냥 연속극이나 뉴스 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봤는데, 지금은 뉴스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찍다보니까 어떤 구도에서 찍으면 더 좋을까 아니면은 또 어떤 연속극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 노인

“ 어르신들이 (사진 반 수업 후)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찾아요. 빛하고 각도. 저는 그 부분에서 일단, 그게 좀 깜짝 놀랐던 거고요. 또 우리가 행사할 때 또 사진을 찍으세요. 그분들이 (전에는 못하던) 포토샵으로 조정해갖고 넘겨주세요. 사진을.” - 노인, 담당자

○ 텍스트 마이닝

- 문화예술감수성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관찰(력)”, “감동”, “이해”, “악기”, “미술”, “사진”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수행능력은 노인을 제외한 전 집단에서 나타났으나 정서적인 부분은 성인에서만 드러남. 따라서 성인 집단의 네트워크 중 “감동”과 관련된 네트워크만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1>과 같음.

<표 II-21> 문화예술감수성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관찰(력)”, “감동”, “이해”, “악기”, “미술”, “사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능력은 노인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났으나 정서적인 측면은 “성인”에서만 나타남. 이는 질적 효과 지표에서 감수성이 증가한 성인집단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인 집단에서만 “감동”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도출되었으며 “관심”, “접근” 등 다양한 키워드와 상관을 가지는 양상을 보임. 또한 “인문학”, “그림책”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어들 및 “역량”, “능력” 등의 단어들과도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감동”이라는 단어와 문화예술감수성과 연관 있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됐을 것으로 추정됨.</li> </ul>

## (2) 문화예술친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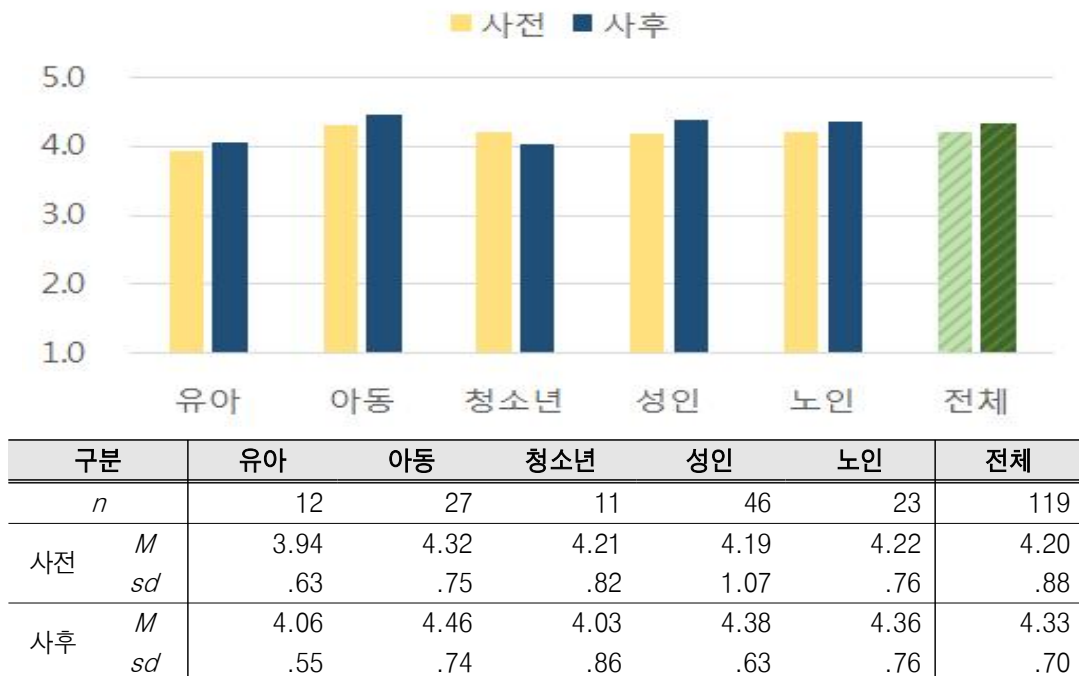
- 정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거부감이 적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표 II-22〉 문화예술친숙성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li> <li>▪ 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li> <li>▪ 나는 남은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li> </ul>	거리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향유 및 기회 확대</li> <li>▪ 새로운 도구 및 재료에 대한 두려움 감소</li> </ul>
	관심 및 이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참여 의사</li> <li>▪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li> <li>▪ 관련 분야(사진, 유리공예, 목공, 도자기, 미술 등)에 대한 이해도 증가</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23〉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친숙성 효과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아동, 성인, 노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친숙성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청소년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친숙성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친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친숙성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 질적 효과 지표

- 문화예술친숙성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문화예술 거리감 감소, 문화예술 관심 및 이해 증가가 나타났음. 문화예술 거리감 감소에는 문화예술 향유 및 기회 확대, 새로운 도구 및 재료에 대한 두려움 감소, 연주회에 대한 거리감 감소 등이 나타났음. 문화예술 관심 및 이해 증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과, 이전에는 없었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었다는 것, 관련 분야(사진, 유리공예, 목공, 도자기, 미술 등)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포함됨.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가는 실제 관련 수행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줌. 노인에게서 거리감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연구에 참여해주셨던 노인분들 모두 이미 과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유경험자가 많았음(가장 적게는 2년, 많게는 9년 동안 연극 활동 및 영상 제작 활동을 하심). 이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표 II-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친숙성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거리감 감소	●	●	●	●	
관심 및 이해 증가	●	●	●	●	●

- 유아의 경우 질적 효과 지표에서 평소 잘 표현하지 않았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 교육을 통해 낮설었던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 감소를 경험하고, 수행 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임.

<거리감 감소>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리감을 느끼면서 낯설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요즘 애들이 과감하게 그림을 잘 그려요.” - 유아

<관심 및 이해증가>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 유아, 보호자

- 아동의 경우, 문화예술이란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 속 다양한 매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 감소가 나타나며,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 및 이해증가가 나타남.

〈거리감 감소〉

“사실 미술에 재능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기가 싫고 지겹고.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아이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고싶은 만큼만 하게 해주고 절대 미술이 어렵고 재미 없는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 액자에 예쁘게 걸리게 미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술이 아니라 하다 못해 종이에 작은 낙서를 하더라도 미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 아동, 관계자

〈관심 및 이해증가〉

“ 굉장히 이제 흥이 많고 음악을 굉장히 즐길 줄은 아는 아이지만 저희가 아동반을 가르칠 때 음악용어를 전혀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전혀 모르고 들어오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브릿지 과정을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고 들어와서는 거기서 브릿지 과정은 저희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서 이제 음악 이론을 좀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매번 매번 공부를 해오더라고요.”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질적 효과가 거리감 감소, 관심 및 이해도 증가에서 모두 나타났음. 특히나 목공예, 유리공예, 한지공예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거리감이 감소하였고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거리감 감소〉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조금 힘들겠다 싶었는데 미술이 꼭 그리고 만들고 이러는게 아니라 한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 풀 붙여서 바르고 자기가 색골라서 칠하고 하면 되니까 미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 청소년

강사: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공구에 대한, 처음에 접하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연구자: 어, 네네 그렇죠.

강사: 전통공구에 대한 인제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써보면서 우리가 사용법을 잘 익히면 전혀 위협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기들이 좋아지는 것이구요.” - 청소년 관계자

<관심 및 이해 증가>

“저는 일단 시작할 때 도자기의 이론에 대해서 배웠단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도자기 이론이 뭔지, 역사에 대해서 알수있게 되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직접 만든것도 좋았어요.” - 청소년

- 성인의 경우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거리감 감소, 관심 및 이해 증가에서 질적 효과 지표가 나타났음.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 감소는 처음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로 볼 수 있는 효과 지표로 나타났음. 과거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적은 반면, 처음 접한 분들은 처음에 생소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교육 후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이 감소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봄.

<거리감 감소>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연주도 하러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접근성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듯하다. 연주를 보러가고 이렇게 하는게 부담스럽고 약간 어색할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인식의 변화가 조금 많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성인, 관계자

“이게 자신이 문화예술에 많이 노출되어서 문화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태도나 느낌, 사고방식 등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어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한다. 할줄 모르는데 아니라 안해봐서. 그런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도 너무 적고 많은 시민들한테 이..참여의 기회가 너무 적구나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 성인, 관계자

“이분들이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같이 계셔도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없다보니까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악기들을 접해보고 사람들이랑 좀 같이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취미로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게 좀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 성인, 관계자

<관심 및 이해 증가>

“음악수업을 하면서는 제가 좀 더 이렇게 단절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값비싼 돈을 안내도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하는 음악회라던 지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참 많았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집하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오롯이 그거에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제가 조금 문화에 눈을 뜨다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인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에 산다는 거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싶어요.” -성인

“직장인을 떠나고 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진짜 이 시간이 좋았고. 그 다음에 OOO밴드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음악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부들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음악의 길, 작곡가들, 음악가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소녀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성인

- 노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가에서 질적 효과가 나타남. 평소 그냥 지나쳤던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특성을 보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가〉

“예전에는 그냥 연속극이나 뉴스 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봤는데, 지금은 뉴스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찍을 수 있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찍다보니까 어떤 구도에서 찍으면 더 좋을까 아니면은 또 어떤 연속극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 노인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 영화 저 장면을 어떻게 찍었을까, 그 다음에 아, 저 장면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이제는 들고. 활동을 하기 전 일반인이었을 때의 시각과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보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

“담당자: 사진반은요, 사진을 배우면 빛을 찾기 시작해요. 빛

연구진: 빛을 찾는다고요?

담당자: 어르신들이 빛을 찾아요. 빛하고 각도

연구진: 어떤거요?

담당자: 빛. 각도. 사진 찍을 때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단, 그게 좀 깜짝 놀랐던 거고요. 미술반은, 미술반도 그렇고 사진반도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할 때 또 사진을 찍으세요. 그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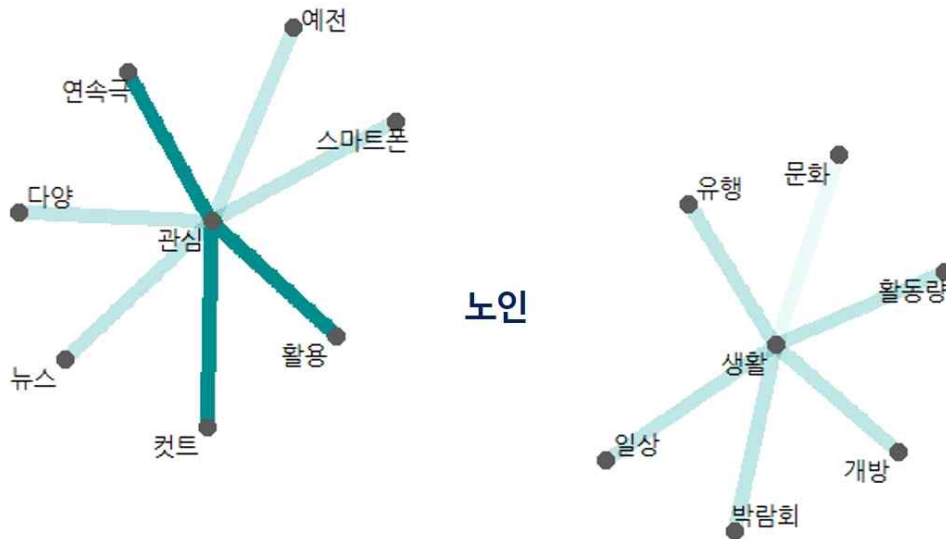
연구진: 아아

담당자: 그래갖고 그분들이 포토샵으로 조정해갖고 넘겨주세요. 사진을.” - 노인, 담당자

○ 텍스트 마이닝

- 문화예술친숙성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거부감”, “생활”, “속”, “안”, “관심”, “흥미”, “자유”, “여가”, “취미”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즉,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비중이 각기 따로 언급된 비중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거리감 감소는 전 집단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음. 관심 및 이해 증가는 전 집단에서 나타난 편이며 특히 노인 집단에서 두드러짐. 따라서 노인 집단 결과에서 관심 및 이해 증가와 연관 있는 결과를 보여준 키워드 “관심”, “생활”만 네트워크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5>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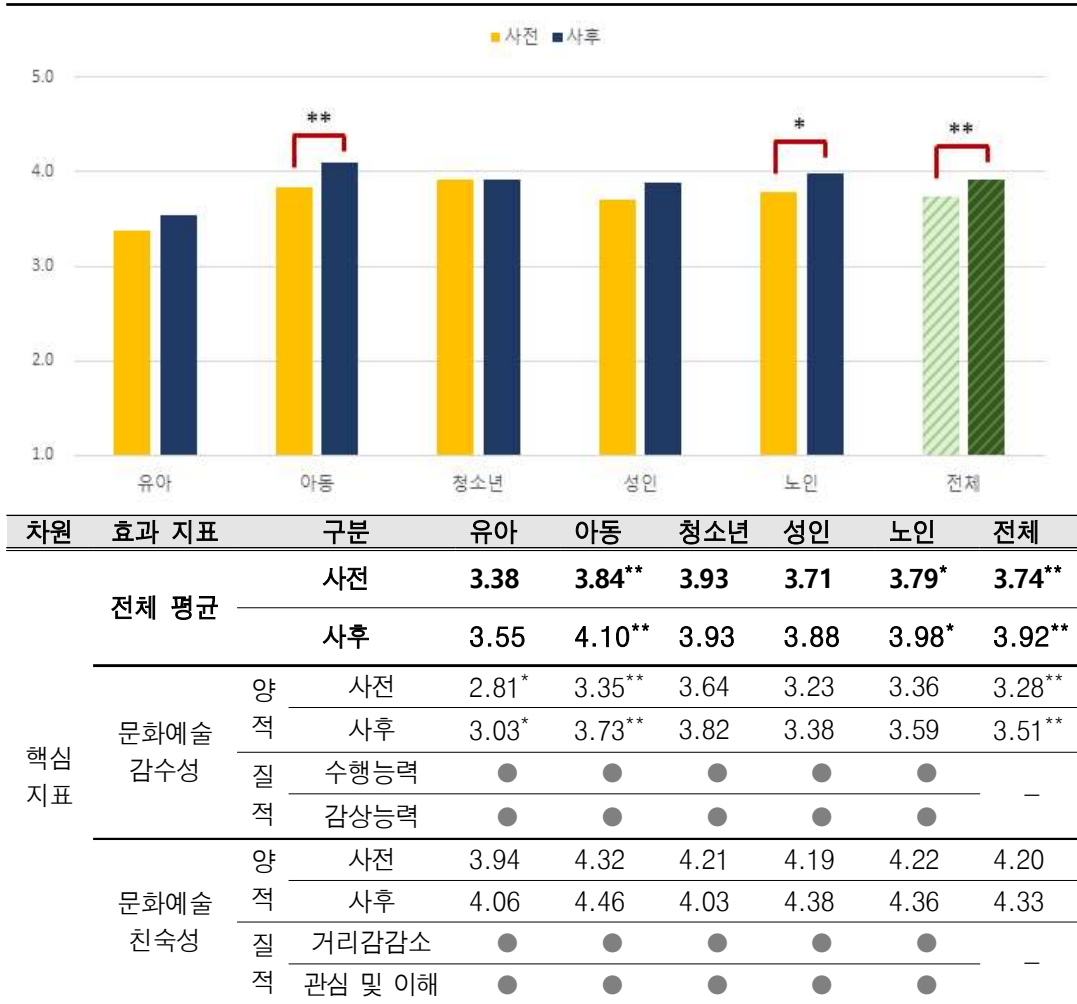
<표 II-25> 문화예술친숙성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거부감”, “생활”, “속”, “안”, “관심”, “흥미”, “자유”, “여가”, “취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리감 감소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심 및 이해 증가는 전 집단에서 나타난 편으로 특히 노인 집단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노인 집단에서 “관심-스마트폰”, “관심-다양”, “관심-뉴스”, “관심-활용” 과 같은 상관관계와 더불어 “생활-문화”, “생활-개방”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친숙성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li> </ul>

(3) 요약: 핵심 지표 - 문화예술적 차원

<표 II-26>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 효과 종합



차원	효과 지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전체 평균		사전	3.38	3.84**	3.93	3.71	3.79*	3.74**	
		사후	3.55	4.10**	3.93	3.88	3.98*	3.92**	
핵심 지표	문화예술 감수성	양적	사전	2.81*	3.35**	3.64	3.23	3.36	3.28**
		사후	3.03*	3.73**	3.82	3.38	3.59	3.51**	
	질적	수행능력		●	●	●	●	●	-
		감상능력		●	●	●	●	●	-
문화예술 친숙성	양적	사전	3.94	4.32	4.21	4.19	4.22	4.20	
		사후	4.06	4.46	4.03	4.38	4.36	4.33	
	질적	거리감 감소		●	●	●	●	●	-
		관심 및 이해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차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의 사전 사후 전체 평균을 구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 집단의 문화예술차원의 사후 평균이 사전평균에 비해 상승함. 특히, 아동, 노인, 전체 집단의 변화가 유의미하였음.
- 구체적으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의 양적 및 질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친숙성의 양적 및 질적 효과가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남. 문화예술감수성의 질적 효과지표로 감상능력, 수행능력이 나타남. 이러한 효과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성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일상 생활 속 감동, 위로, 위안 등과 같은 정서적 감상 능력 향상이 눈에 띈. 문화예술친숙성의 질적효과 지표에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거리감 감소, 관심 및 이해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 질적 효과 지표들은 마찬가지로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음. 양적 효과 분석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청소년 집단에서도 질적 효과 분석에서는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효과가 모두 나타남.

### 3) 특수지표 I : 개인심리적 차원

#### (1) 자기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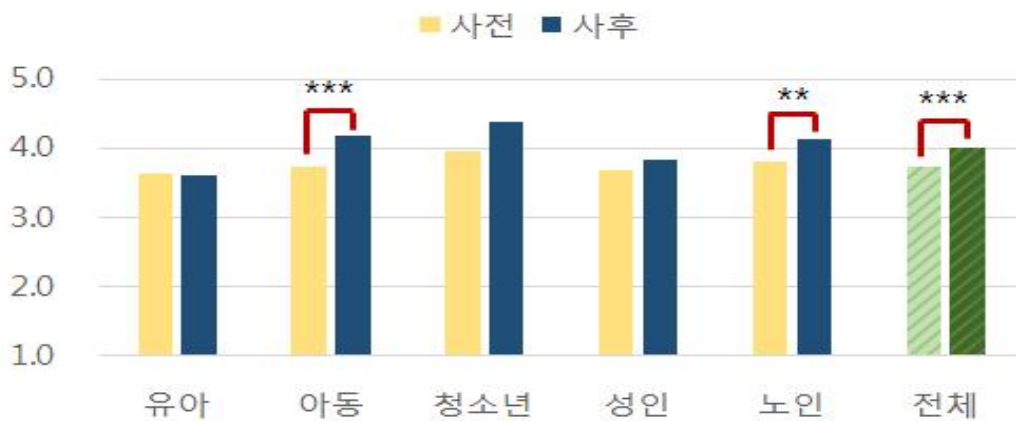
○ 정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통해 평정심을 찾아나가는 능력

〈표 II-27〉 자기조절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li> <li>▪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li> <li>▪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li> </ul>	정서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정서 표출 자제</li> </ul>
	행동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를 위한 인내</li> <li>▪ 숙달을 위한 연습</li> <li>▪ 집중력</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28〉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자기조절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사전 <i>M</i>	3.64	3.73	3.97	3.68	3.81	3.74
<i>sd</i>	.78	.81	.90	.73	.58	.74
사후 <i>M</i>	3.61	4.17	4.39	4.83	4.14	4.00
<i>sd</i>	.60	.79	.65	.69	.62	.72

\* $p < .05$ , \*\* $p < .01$ , \*\*\* $p < .0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조절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아동( $p<.00$ )과 노인( $p<.01$ )의 자기조절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조절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자기조절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00$ ).

○ 질적 효과 지표

- 자기조절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정서 조절과 행동 조절이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정서 조절에는 부정적 정서 표출 자제가 있었으며, 행동 조절에는 결과를 위한 인내, 숙달을 위한 연습, 집중력이 포함되었음. 노인의 제외한 집단에서 정서 조절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까지 정서를 조절하는 대뇌의 성숙이 더 이뤄진 발달적 특성에 따른 양상일 수 있음. 성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보다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정서 조절에 대한 효과 지표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노인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해야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서 조절과 행동 조절이 효과로 나타났음.

<표 II-29> 생애주기별 자기조절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정서 조절					●
행동 조절		●	●	●	●

- 유아의 경우, 자기조절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효과로서 정서 조절 및 행동 조절의 효과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음. 특히나, 자기조절은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개발 및 효과분석에서도 유아의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로써 자기조절에서 정서 조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행동 조절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동 조절은 작품 완성을 위한 집중으로 나타났음.

<행동 조절>

“제가 항상 미술 수업에서 하는 약속이 제가 오늘 하기로 하는 것을 완성을 하는거예요. 아이들한테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거든요. 자기 것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집중력을 보여요.”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정서 조절이 아닌 행동 조절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나타남.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 숙달을 위한 연습과 결과를 위한 인내,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나타남.

“목공수업할때 여름에 땀이 좀 나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쉬엄쉬엄하면서 나쁜 생각도 했는데 만들다보니까 제가 만들고 제가 완성시킨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 청소년

“사실 시험도 꺼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전까지도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동아리에는 자습시간을 주시는데 시험전까지 이걸하니깐 살짝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하면 되게 약간..집중을 해야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잡생각이 빠지고 머리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 청소년

- 성인의 경우, 숙달을 위한 연습으로 행동 조절의 특성이 나타났음.

<행동 조절>

“또 그 작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서 숙제를 해오게 되거든요. 집에(소리 먹힘) 해 올리고 있고, 또 OOO밴드는 저희가 음악 공부를 하고나면 저는 이제 하모니카를 했는데, 제가 이걸 빨리 한번 완창을 하고싶고, 완곡을 하고 싶어 제가 집에 와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 성인

- 노인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 표출 자제에 대한 정서 조절효과와 숙달을 위한 노력, 결과를 위한 인내에서 행동 조절의 효과가 나타났음.

<정서 조절>

“-연구진: 그렇다면 자기조절력을 어때요? 자제력이라든지 이런 거 향상에 지금 활동이 도움이 되는 게 있다. 이거랑은 좀 관련은 없는 것 같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되세요.

-참여자1: 자, 자제력은. 자제를 많이 해야 하죠.

-연구진: 어떤 부분에서 그런걸 느끼시나요?

-참여자1: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활동을 하러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뭐 있잖아요.

-연구진: 그렇죠, 그렇죠.

-참여자1: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 화가 난다고 예를 들면 화를 풀 수가 없잖아요. 꼭꼭 삼켜야지. 자제력이 많이 생깁니다.” -노인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될 때, 아까 oo님이 말씀했듯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있잖아요 다 화 낼 수 없고, 참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제력이 많이 생기죠.” - 노인

<행동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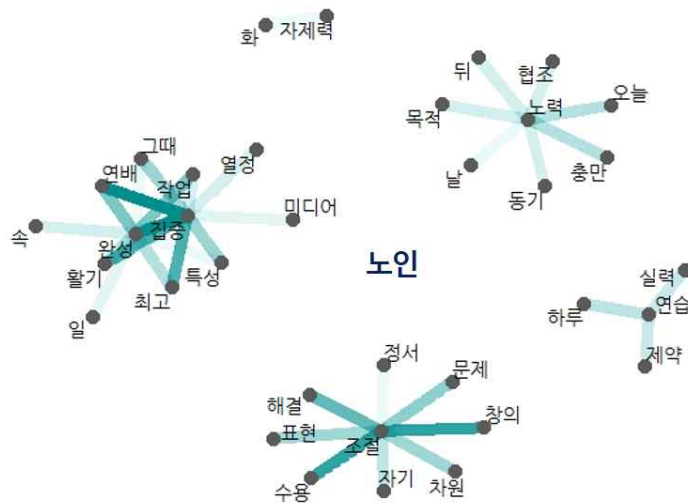
“연습 많이 하죠. 하루에 4시간까지도 해요. 안 쉬고, 욕심에. 그래서 무대 올라갔더니 진짜 실수안하고 잘해버려.” - 노인

“제 대사만 외울 것이 아니라 상대편 대사까지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해요. 그래야지만이 상대편이 대사를 까먹고 넘어가도 제가 커버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관람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선배 어르신, 여사님께서도 끝나고 나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미리미리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서 제일 후배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답하려고 항상 대본에 충실하려고 암기하는데, 70대가 넘어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정신력으로 그 대사를 외우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듣지요. 제일 힘든 게 대사 암기입니다. 사실은.” - 노인

○ 텍스트 마이닝

- 자기조절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자제(력)”, “완성”, “연습”, “노력”, “집중(력)”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행동 조절은 유아를 제외한 전 집단에서 드러났지만 정서 조절은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따라서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정서 조절 내용이 드러난 노인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30>과 같음.

<표 II-30> 자기조절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자제(력)”, “완성”, “연습”, “노력”, “집중(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 조절과 관련된 상관관계는 아동, 청소년, 노인 집단에서 드러났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서는 “완성”, “집중(력)” 과 관련된 상관이 주로 나타남. 노인의 경우, “집중”, “완성”, “연습”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며, 특히 “완성-활기”, “집중-열정” 등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된 양상을 보임.</li> <li>• 질적 효과 지표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제력-화” 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조절은 노인집단에서만 나타남. 구체적으로 “조절” 과 상관을 가진 단어들 중에서도 “정서”, “자기”, “해결”, “표현” 등이 도출됐으며, 그 중 “정서” 는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li> </ul>

## (2) 자기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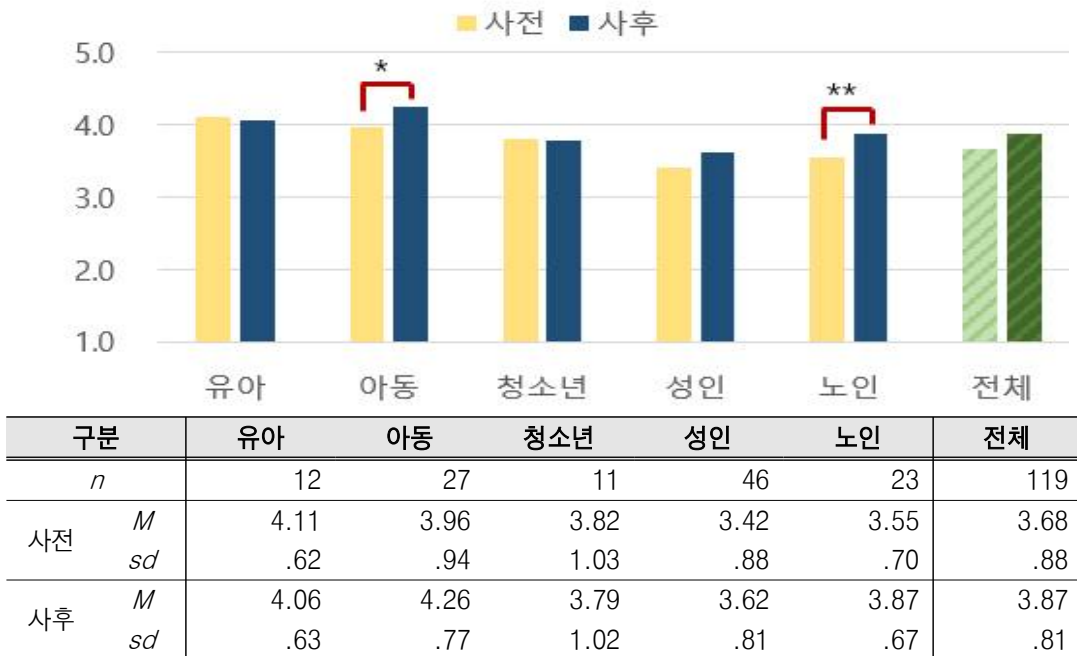
○ 정의: 자신의 의견, 생각, 감정 등을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표 II-31〉 자기표현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li> <li>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li> <li>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li> </ul>	의견 및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에 대한 의사 및 정서 표현</li> </ul>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을 통한 자기표현</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32〉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자기표현 효과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청소년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표현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아동( $p < .05$ )과 노인( $p < .01$ )의 자기표현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성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표현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자기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표현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 질적 효과 지표

- 자기표현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의견 및 주장과 자기표현이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의견 및 주장에는 교육에 대한 의사 및 정서 표현이 있으며 자기표현에는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이 포함됨.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으나, 의견 및 주장은 아동과 성인에서만 나타났으며, 모두 교육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는 발달상의 특징이라기보다 프로그램과 강사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II-33> 생애주기별 자기표현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의견 및 주장	●	●	●	●	●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	●	●	●	●

- 유아의 경우, 평소 감정 표현 및 자신의 의견 표현을 잘하지 못하였는데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의견 및 주장과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 됨.

<의견 및 주장>

“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서툴렀는데 그렇게 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도 이렇게 또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지 뭐 좋고 싫고의 분명함이 이렇게 드러난다던지.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 관계자

<자기표현>

“종이에 그림이 점점 커진다던지, 재료를 바꿔서 나만의 뭔가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유아, 관계자

“처음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작게 말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되게 망설이고 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좀 더 회차가 지나 갈수록 자신감 있게 자기 마음과 생각들을 표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알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서 저 또한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사 표현 및 자유롭게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됨.

<의견 및 주장>

“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이제 진짜 작곡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아동, 관계자

“음악을 그냥 엄마에 의해서 따라왔지만 자기가 나중에는 악기도 배워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악기도 배우고 피아노 학원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엄마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학원에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깐, 그것도 굉장히 좀 발전된 모습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아동, 관계자

<자기표현>

“ 다른데 처음 미술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이들은 요즘 하는 미술은 사실은 뭔가를 두고 틀을 정하고 색을 칠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 근데 저는 애들한테 하얀 종이를 주고 주제를 주고 그리라고 하니깐 처음 하는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2년 한 친구들은 종이주고 그리라하면 그려요!” - 아동, 관계자

“그다음에 음악을 듣고 몸으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감정인지라는 그런 것들도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계속 시키는 거죠. 시키면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서로서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음, 아이들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끔 저희가 마인드맵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임. 또한 목공예 프로그램 특징상 도면을 따라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작품을 통해 표현함.

<의견 및 주장>

“능숙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구를 다루어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말하고, 그걸 만들 수 있겠다는 그 시점까지 왔죠.” - 청소년, 관계자

<자기표현>

“처음엔 뭘 만들지는 정해주시고 형태만 주시고 예를 들어 저희는 조명을 만드는데 조명을 만들려면 이게 사각형 모양이거든요? 전개도 같은걸 선생님이 주시면 저희가 맞게 디자인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유리도 자르고” -청소년

- 성인의 경우, 능동적으로 수업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며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자기 주장적인 모습들이 나타남. 또한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양상을 보임.

<의견 및 주장>

“교육이라는건 원래 시키는거 잘하고 이런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안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좀 통했던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뭘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 성인, 관계자

“또 이제 각자의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선곡해서 그 음악을 틀면서 자기의 그 음악에 관한 설명을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실제 DJ마냥.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랬어요.” - 성인

<자기표현>

“첫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중에 남자분이신데 한번도 자기 삶을 산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 두명을 예술 관련된 대학에 보내다 보니 친구도 만날 수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을 가진거죠. 근데 그 분이 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게 뭔지를 여기서 조금 찾은 거 같다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게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자기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 성인, 관계자

- 노인의 경우, 수업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며, 활동을 통해 본인의 감정을 담아내는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됨.

<의견 및 주장>

“우리는 이 연극이 좋다. 이 연극을 해주라. 우리는 요런게 좀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 뭐 연극 대본 주라, 뭐 주라, 수업에 대한 열의 및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죠.” - 노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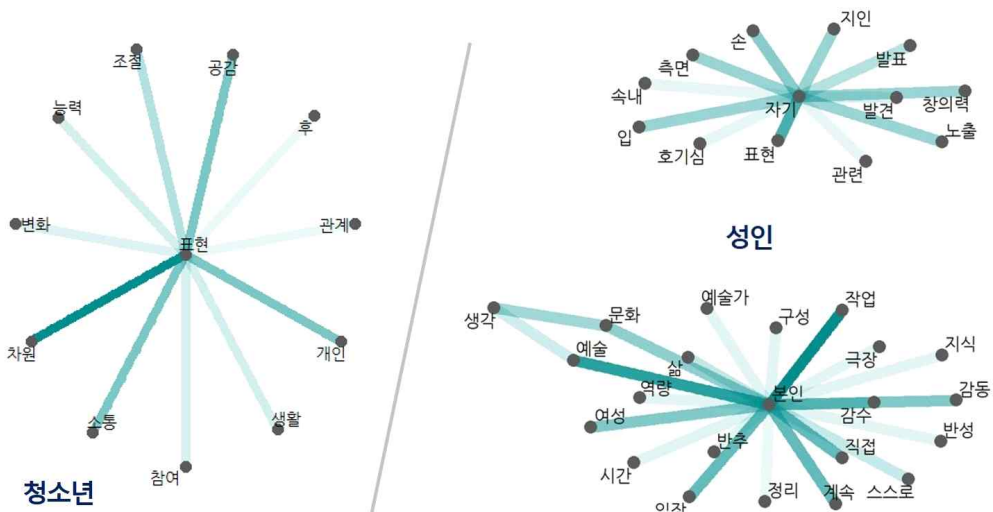
<자기표현>

“외워서 대사만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합도 맞춰야하고 내 감정도 담아내야 한다.” - 노인

○ 텍스트 마이닝

- 자기표현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본인”, “의사”, “표현”, “자기”, “생각”, “목소리”, “의견”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성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의견 및 주장,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은 전 집단에서 드러남. 키워드 “표현”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잘 드러난 청소년 집단과 타 집단과 다르게 정서적인 측면이 함께 드러난 노인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34>와 같음.

<표 II-34> 자기표현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본인”, “의사”, “표현”, “자기”, “생각”, “목소리”,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및 주장,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측면 모두 전 집단에서 어느 정도 드러남.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에서 “표현-소통”, “표현-공감”, “표현-개인”, “표현-변화” 등과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남.</li> <li>•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성인의 경우 “본인-감수”, “본인-감동” 등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보임. 또한 “본인-반추”, “본인-삶” 등과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자기-속내”, “자기-표현”, “자기-노출”, “자기-발표” 등 자기표현도 함께 드러남.</li> </ul>



### (3)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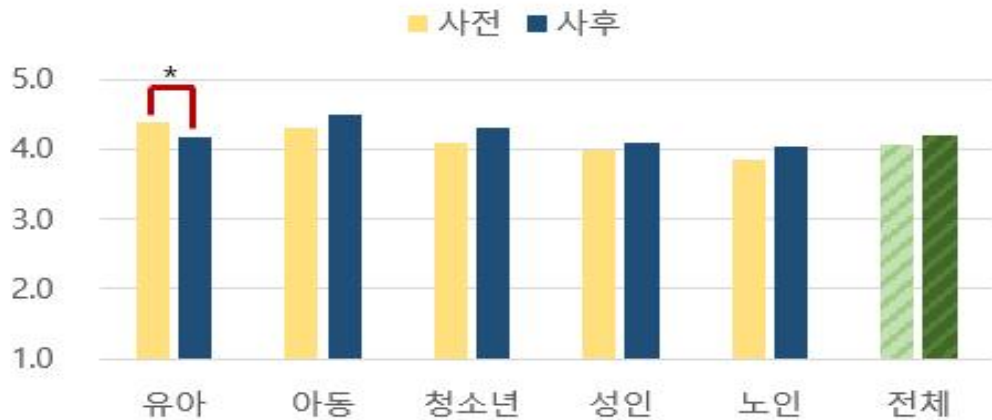
○ 정의 : 자기이해를 토대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표 II-35〉 자아존중감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li> <li>▪ 나는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li> <li>▪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li> </ul>	자기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력 발견</li> <li>▪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li> </ul>
	자기가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통한 자기가치 확인</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36〉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사전	<i>n</i>	12	27	11	46	23	119
	<i>M</i>	4.39	4.30	4.09	3.98	3.86	4.08
사후	<i>sd</i>	.60	.69	.91	.73	.60	.72
	<i>M</i>	4.17	4.51	4.30	4.09	4.04	4.20
	<i>sd</i>	.48	.54	.89	.77	.70	.71

\* $p < .05$ , \*\* $p < .01$   
 편차

*M*: 평균, *SD*: 표준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 $p < .05$ ) 집단의 자아존중감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 질적 효과 지표

- 자아존중감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기가치 확인이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에는 성취감, 자부심, 자신감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력 발견이 포함됨. 자기가치 확인에는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통한 자기가치 확인이 포함됨.
- 자기효능감은 모든 생애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 확인은 청소년과 노인에게서만 나타났음.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적 비교를 활발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통한 자기 가치 확인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함. 이러한 자기가치 확인과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도 연결이 되는 특성을 보임. 기술습득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임. 모든 시기에 자기효능감과 자기가치 확인은 중요하지만, 특히나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감퇴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기효능감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한 자기가치 확인은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II-37>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자기효능감	●	●	●	●	●
자기가치 확인			●	●	●

- 유아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이 되면서 자기효능감을 경험함.

<자기효능감>

“처음에는 못했다가 너무나 좋아하고 완성된 걸 봤을 때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 유아, 관계자

“인형을 만드니까 그 인형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역할놀이도 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높아져요).”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유아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자기효능감을 경험함.

<자기효능감>

“본인이 완성을 했구나. 뿌듯함? 자신감? 을 느끼는 것 같다.” - 아동 관계자

“교육 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쪽으로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미술하면 아 그림 잘그리네 미술에 재능이 있

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술 안에서 글쓰는 부분도 있고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표현을 한다던가 애는 글쓰는 재주가 보이네? 새로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 아동, 관계자

“참여하기 전에 처음 할때는 쑥스러웠지만 나중에는 대답을 잘했어요.” - 아동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하니까 계속하니까 재밌어졌어요.” - 아동

- 청소년의 경우, 기술습득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런 경험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도 연결이 되는 특성을 보임.

#### <자기효능감>

“우리는 각자 자기가 결과물을 가져가는건데 목공은 한 모듬당 4-5명씩 해서 목재를 사포질하고 색칠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었다라는 성취감이랑 어깨 으쓱 하는 그런게 있어요.” - 청소년

“아직 가져가진 않았고 그냥..전시한거 둘러볼 때 뿌듯함 느껴요.” - 청소년

“저는 약간 나중에 미래를 공부 밖에 생각을 안했었는데, 왜냐면 그 외에 어떻게 꿈을 찾아야되는지 몰라서 생각안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예선생님들이 그 때마다 이 꿈을 이루기위해서는 어느 과에 진학하고 이분야에서 잘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식으로도 꿈을 찾아갈 수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 청소년

“우리학교 학생들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면, 유리공예를 하는데.. 유리를 직접 이제 자르고, 재단하고, 그 날카로운 부분을 또 연마기로 다듬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일반인들이 위험한 유리를 어떻게 그걸 재단을 하고 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학생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그 경험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도 아주 좋은 경험이지 않나. 처음에 원래 제가 과학교사인데, 과학 실험 안전 연수를 가는데, 유리공예를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학교 공예도 아마 유리공예를 접목을 했거든요. 애들한테는 저도 그게 쇼킹하게 다가왔거든요. 유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일이. 우리학교 저 젊은 애들도 거기에 많은 감명을 받더라고요. 또 자기 스스로를 좀 놀라게 되고, 자기의 능력도 발휘하게 되고...” - 청소년, 관계자

<자기가치 확인>

“그 다음에 이번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예술꽃씨앗학교에서 재료는 나오지만 아이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공동으로 만든 작품들을, 3학년들이 만든 벤치를 1,2학년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졸업 전에 학교에다가 재능을 기부해서 만든 공동작품들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학교, 이렇게 우리 교과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협동심이나, 그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 간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아닐까.” - 청소년, 관계자

- 성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은 성인들에게 평소 잘 인지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잠재력 발견을 통해 나도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경험함.

<자기효능감>

“제가 숨은 재능이,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 성인

“제가 봐도 너무 잘 색칠하고 너무 잘 만들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코디, 에디터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사진 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 두세 개 좀 찍어주라’ 했어요” - 성인

“(3년차 문화예술교육 에디터로 있는 동안) 아!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본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부부였는데, 원래는 부부가 신청한게 아니고 아내분이 신청하셨는데 우연찮게 남편분이 따라왔어요. 근데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시로 표현을 잘 하시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따라오기를 참 잘 했다라던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활동을 1회차 하고 2회차, 3회차는 안했지만 2회차에 나름대로 동아리가 꾸려지고 거기서 작품활동을 하고 표현을 하고 흔히 말하는 시 등단처럼 수준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때..그 변화를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변화되니 모습이 아닐까 그게 제일 인상이 깊었고 지금 3년이 됐는데도 머리에 꼭 각인이 되어있었고..네...너무 진짜 관촬았던.. 감동 깊었던 그런 변화였었습니다.” - 성인, 관계자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다보니까 그동안의 직업을 떠나서 가정에만 있다가 소심해 있다가 이런거에서 약간의 자아존중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 성인, 관계자

- 노인의 경우, 문화예술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기가치 확인을 경험함.

〈자기효능감〉

“제가,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남자잖아요.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 라하면 나가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처음엔 썩스러워서 잘 못하다가 요즘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 사회를 사는데 처음엔 좀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이 이래 살다가 이런 활동을 또 영상 제작이나 이런 사회 문화생활을 함으로 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 노인

“연극하면서요, 제가 제 나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활동을 하면서 연극대사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안들림)세우려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내 나이는 뒤로 제치고,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이 제일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인

〈자기가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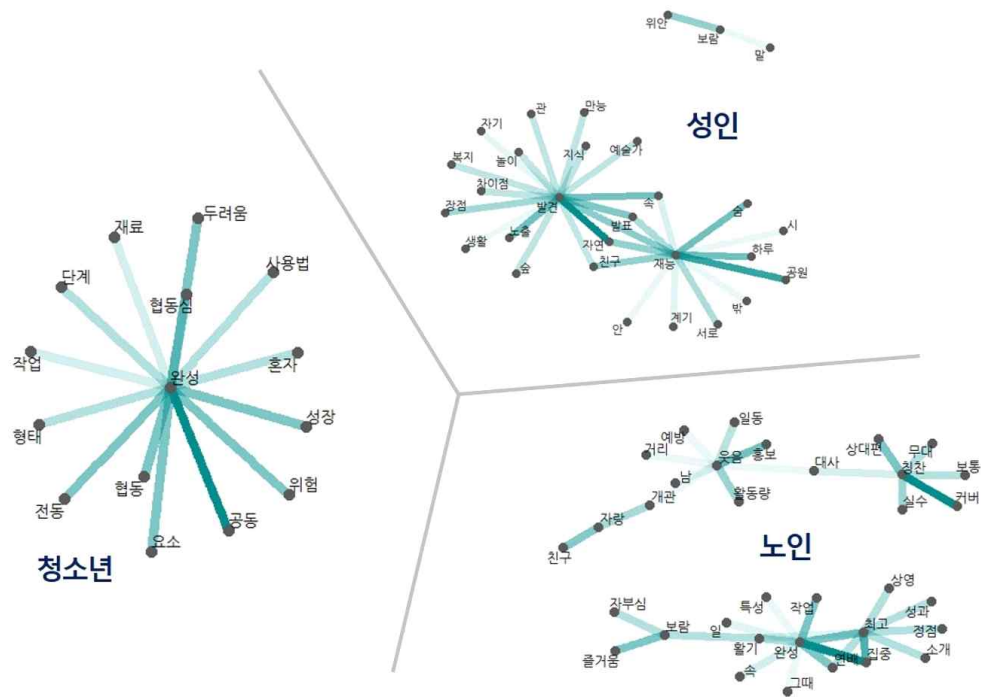
“저는 연극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연극을 한다고 애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그런것도 할 수 있냐고, 우리엄마 최고라고 너무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즐거웠어요.”

- 노인

○ 텍스트 마이닝

- 자아존중감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완성”, “재능”, “발견”, “자랑”, “최고”, “보람”, “뿌듯”, “웃음”, “미소”, “표정”, “얼굴”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성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성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서 나타났으며 자기 가치 확인은 노인 집단에서만 드러남. 따라서 전 집단 중 자기효능감 측면이 드러난 청소년, 성인 집단과 자기 효능감 뿐만 아니라 타 집단과 다르게 자기 가치 확인이 함께 드러난 노인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38>과 같음.

<표 II-38> 자아존중감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완성”, “재능”, “발견”, “자랑”, “최고”, “보람”, “뿌듯”, “웃음”, “미소”, “표정”, “얼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효능감의 경우,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청소년 집단에서는 “완성-성장”, “완성-재료”, “완성-작업” 등 완성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많이 등장함. 이는 질적 지표 효과 분석과도 상응하는 결과임. 성인 집단에서 역시 “발견”, “재능” 키워드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다수 등장하였음. 노인 집단의 경우 “완성-활기”, “활기-보람” 등 자기 효능감 측면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연결된 것으로 추측됨.</li> <li>• 자기가치 확인의 경우, 워드 네트워크 결과에서는 노인 집단에서만 확인 가능하였음. “칭찬-상대편”, “칭찬-실수”, “친구-자랑” 등 주변인들로부터의 칭찬,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행동 등을 통해 자기가치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됨.</li> </ul>

#### (4)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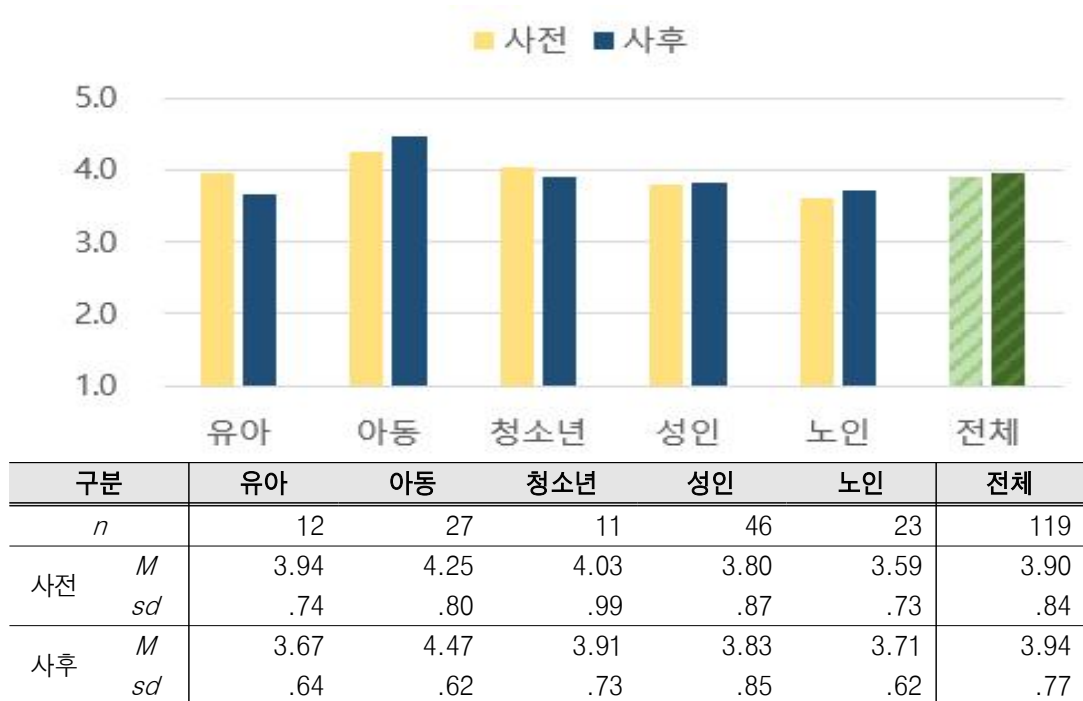
○ 정의: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상상하거나 만들어 내는 능력

〈표 II-39〉 창의성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li> <li>▪ 나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li> <li>▪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li> </ul>	사고력 확장	▪ 관점의 변화
	상상력	▪ 창의적인 생각

○ 양적 효과 지표

〈표 II-40〉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창의성 효과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동과 성인, 노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창의성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유아와 청소년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창의성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창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창의성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 질적 효과 지표

- 창의성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표현 및 시도가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창의적 사고에는 인지적 차원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해보려 노력하는 관점의 변화가 포함됨. 새로운 시도 및 표현은 행동적 차원으로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고 표현함으로써 창의성이 발현됨.
- 창의적 사고는 노인 집단에서만 효과지표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시도 및 표현은 청소년과 노인을 제외한 집단에서 모두 나타났음. 노인 집단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창작 과정에서 창의력, 특히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 확장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II-41〉 생애주기별 창의성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창의적 사고	●	●			●
새로운 표현 및 시도		●		●	●

- 유아의 경우, 유아기의 인지발달에 따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교육과정 중 창의적이 사고를 많이 보고함.

〈창의적 사고〉

“아이들이 상상력이 정말 많고, (상상력에 기반한) 이야기가 많아요.” - 유아, 관계자

“일단 수업 중에 스토리텔링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주제 단어를 준다든지 뭐 그림을 준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소재로 아이들이 소악기를 통해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창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창의적 사고를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임.

〈창의적 사고〉

“처음에는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라 하면 별로 많이 못해요. 그래서 너무 객관적으로 물체를 물건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냥 그거에만 있었는데, 좀 더 유도를 저희가 계속 반복 학습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가 있고 이게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 중에 뭐 옳고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수용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 곡을 쓸 때 자기만의 곡을 쓸 때. 자기 스토리텔링하고 악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만의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창의성과 관련된 효과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교과목과 접목한 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창의적 표현보다는 기술 습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성인의 경우, 이전 교육 경험 여부가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관 혹은 지역 센터에서 많은 문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수업 태도에 모범적인 부분이 있지만 창의력 발현은 덜 나타남. 하지만 평소 이런 분야에 관심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창의력과 내면의 모습들이 더 많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임.

〈새로운 표현 및 시도〉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 복지관 센터에는 많은 문화수업들을 해보시고 경험들이 많으신거죠. 그래서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되게 집중력이 있고 모범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창의력 발현이라던지 자기의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은 덜 나타났고요 작년 무작위로 광고나 안내를 들으시고 하고 싶어서 모이신 분들은 창의력이라던지 내면에서 발현되는 새로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현되었거든요. 저는 비교해보면서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으셔서가지고 센터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분들은 배움에 대한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만성화되어있고 뭔가 하나 배워가겠다라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모~든게 새로우신 거죠. 자기 앞에 서있는 강사 선생님, 꺼내놓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고, 그려봐라 만들어봐라 서서 얘기해봐라 이런것들도 다 새로우셔서가지고 훨씬 더 액티브 했어요.” - 성인, 관계자

- 노인의 경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영상미디어 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표현 및 시도가 증진되는 양상을 보임.

〈창의적 사고〉

“뭔가 하나, 한 가지 작품을 만든다, 이러면 이 기획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거든요. 그리 할라고 하면 좀 창의력이 가미되어야 하죠” - 노인  
 “작품이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사전에 또 이 서베이, 조사도 되어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 알아본 걸 또 기획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창의력도 많이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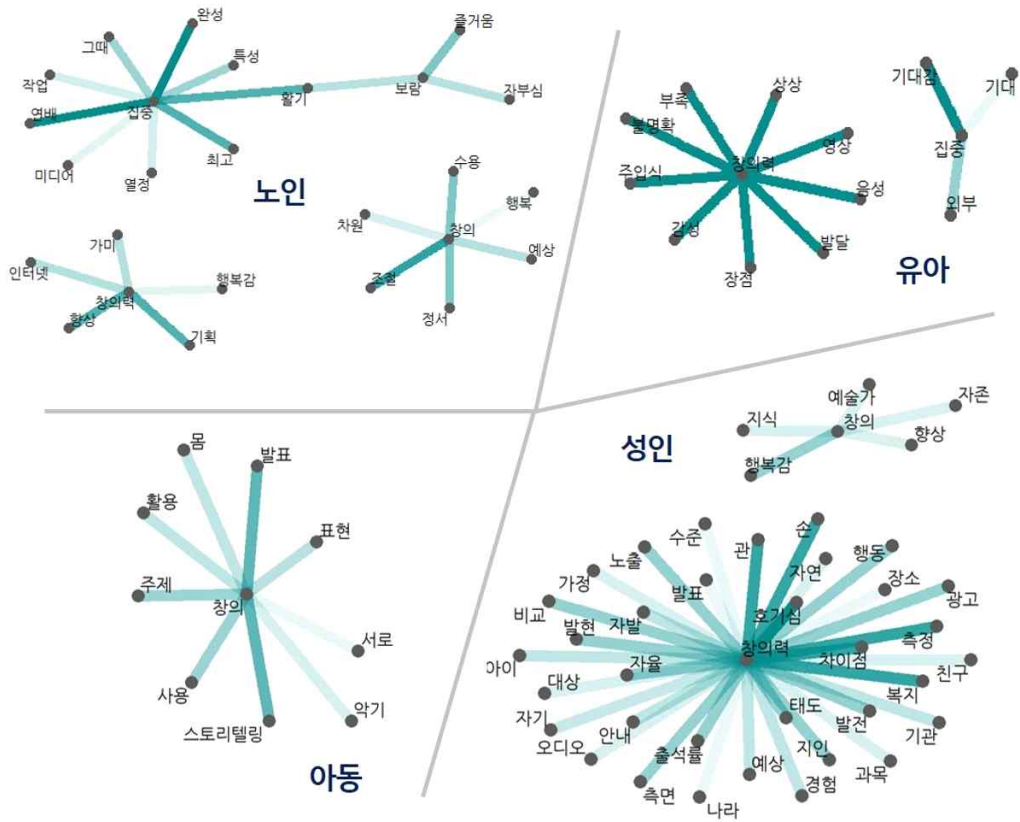
〈새로운 표현 및 시도〉

“작품을 하나 찍으려 해도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물을 봐도 아 저기에 두었을 때 이렇게 찍어보면은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더 생각하게 되죠.” - 노인

○ 텍스트 마이닝

- 창의성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보람”, “집중”, “창의(력)”, “탐구”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청소년 집단을 제외하고 전 집단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질적 분석 결과와 상응함. 하지만 하위요인으로 구분지어지는 지점은 잘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42>와 같음.

<표 II-42> 창의성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보람”, “집중”, “창의(력)”, “탐구”

- “창의력-가미”, “창의력-향상” 등 창의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네트워크가 노인 집단에서 주되게 나타남. 유아 집단에서도 “창의력-발달” 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으며 상관이 높게 나타남. 하지만 “창의력-부족”, “창의력-불명확” 같은 관계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성인 집단의 경우 “창의력” 과 “발현”, “자발”, “노출”, “발견”, “경험” 등이 상관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질적 효과 지표 분석의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창의-향상”, “창의-자존”, “창의-행복감” 등 정서 및 내면적인 측면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나타남.
- 아동 집단의 경우 “창의” 에서만 해석이 모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창의-스토리텔링”, “창의-약기”, “창의-발표”, “창의-표현”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면담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임.
-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질적 효과 지표 분석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탐색하기엔 어려운 결과가 도출됨. 주로 “탐구” 와 관련하여 “향상”, “조립”, “사용”, “재료” 와 같은 단어들과의 상관 또는 “집중-흥미”, “집중-구상” 과 같은 상관관계가 주로 나타남. 이는 질적 효과 분석에서 언급되었듯이, 청소년 집단의 프로그램이 기술 습득과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5)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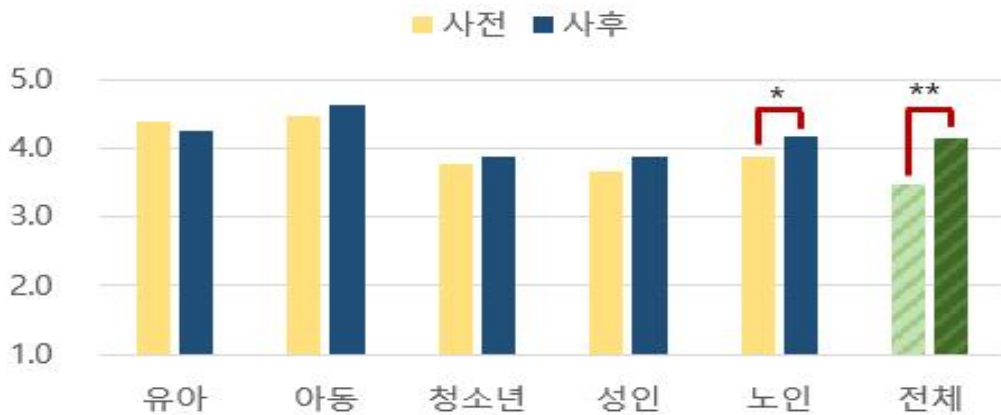
○ 정의: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표 II-43〉 행복감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li> <li>▪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li> <li>▪ 나는 내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li> </ul>	긍정정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거움, 행복, 활력, 기대감</li> </ul>
	정서적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 해소</li> </ul>
	삶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의 의미 재발견</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44〉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행복감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사전	<i>M</i>	4.39	4.46	3.76	3.67	3.87	3.47
	<i>sd</i>	.49	.59	.80	.81	.94	.84
사후	<i>M</i>	4.25	4.62	3.88	3.88	4.16	4.14
	<i>sd</i>	.53	.55	.75	.82	.71	.76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아동, 청소년, 성인 집단의 경우 행복감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행복감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노인( $p < .05$ ) 집단의 행복감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행복감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 < .01$ )

○ 질적 효과 지표

- 행복감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긍정정서 경험, 정서적 해소, 삶의 의미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긍정정서 경험에는 즐거움, 행복, 활력,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었으며, 정서적 해소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포함되었음.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잊고 있었던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 하는 것이 포함됨.
- 긍정적 정서 경험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집단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정서적 해소는 유아와 아동을 제외한 청소년, 성인에게서 나타남. 이러한 부정정서 및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시험 스트레스와 같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처음 접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와 장으로서 기능함으로써 현대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노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해소를 할 만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다른 연령층보다 적다는 적기 때문에 노인에게 문화예술교육 효과로서 정서적 해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아울러, 노인의 경우 긍정정서 경험을 삶의 의미와 함께 경험하는 특성이 보임.

〈표 II-45〉 생애주기별 행복감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긍정 정서 경험	●	●	●	●	●
정서적 해소			●	●	
삶의 의미				●	●

- 유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즐거움, 기대감, 설렘과 같은 긍정 정서를 경험함.

〈긍정 정서 경험〉

“ (활동을 하면)웃음꽃이.. 입이 이만 해져요” - 유아 관계자

“ 처음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처음 경험하고, 뭐지? 이러다가 어느새 프로그램이 4차시까지 가잖아요. 하루하루 바뀌니까 그 시간을 되게 기다리고. 뭐하는지 물어보고 해요” - 유아 관계자

“일단 요즘 외부 강사들이 안들어오시니까 유아교사 담임선생님만 수업을 하시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 기대, 설렘. 아이들이 유치원에만 있다보니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서 집중도도 좀 더 높아져요.”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매우 즐거워하며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행동 특징을 보임.

<긍정 정서 경험>

"-연구진: 놀이치료를 하고 싶었어요? 왜?"

-참여자1: 놀이치료는 재밌어요~" - 아동

-연구진: 모래놀이치료~ 그게 왜 하고 싶었어요?

-참여자3: 재밌으니까!" - 아동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보고 있자니 이 반응 속도도 느리고 아이들도 이 기계 만지고 뭐 하는 거에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켜놓고 멍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그래도 교육을 통해 뭔가 움직이면 아이들이 즐거워했어요."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정서적 해소를 경험함.

<긍정 정서 경험>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있는데 만드는 거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 청소년

<정서적 해소>

"사실 시험도 켜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전까지도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동아리에는 자습시간을 주시는데 시험전까지 이걸하니 살짝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하면 되게 약간..작업들이 집중을 해야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잡생각이 빠지고 머리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 청소년

- 성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일생생활 속 활력, 행복감,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임.

<긍정 정서 경험>

"제가 그냥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던 그런 삶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봤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굉장히 삶이 행복해졌어요. 윤택해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 성인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에 산다는 거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어..답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싶어요." - 성인

"지금 이제 다 프로그램이 끝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즐겁잖아요" - 성인

<정서적 해소>

“그냥 일주일간에 저한테 쉼표 같은 것? 에너지 충전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성인

“숨을 쉴 수 있었고. 오로지 제시 시간이었습니다. 공개 저희가 인원인 한 15명 전후로 뒀었다. 양쪽 다. 이렇게 수업 참석을 했는데. 저 말고도 선생님들이 늦게도 항상 수업참석을 했었어요” - 성인

<삶의 의미>

“그 수업 받기 전에는 저도 눈 망막 박리로 인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 4번의 수술과 요양하고 이러면서 많이 다운돼 있던 차에, 여기 이런 쓸만한 수업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제가 완전히 절망적이고 바닥이었다면 이제 수업 받고 받으러 나감과 동시에 수업 받고 나서는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혼자 있었다라면 나의 길만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작은 조직에 내 몸을 실어놓고 있으니 15명 정도의 사람의 길도 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길이 다양하게 보여짐으로 해서 제 인생에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과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고” - 성인

- 노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긍정 정서 및 삶의 의미 발견을 함께 경험함. 긍정 정서 경험은 본인들이 연습한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봉사 활동을 했을 때 행복감과 뿌듯함 등 긍정적인 정서와 인생의 보람, 삶의 의미를 많이 경험함. 이와 대조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집단에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과정 중에는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행복감보다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더 많이 함. 하지만 이후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함과 행복감을 경험함.

<긍정 정서 경험 및 삶의 의미>

“삼성의료원 가서 연극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리도 노인이지만 아프고 나이드신분들 앞에서 공연을 진행하면 그분들이 좋아할 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다” - 노인

“한 달에 두 번 요양 병원가서 봉사 많이 해요. 환자들을 즐겁게 해 줄 때 보람 느낌.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표정들이 밝으세요.” - 노인, 담당자

“참여자1: 이거, 예를 들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하루 촬영하려면 아 오늘 어떤 거를 어떤 부분을 촬영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오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라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한 작품이 탄생한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있죠. 고생을”

한만큼 만족도가 오는 거니까.

-참여자1: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구진: 00님은 어떠세요?

-참여자2: 예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기를 낳는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요.

(웃음)

-연구진: 아 수고로움과 힘듦은 분명히 있으나.

-참여자2: 예예

-연구진: 이 이후에 그 행복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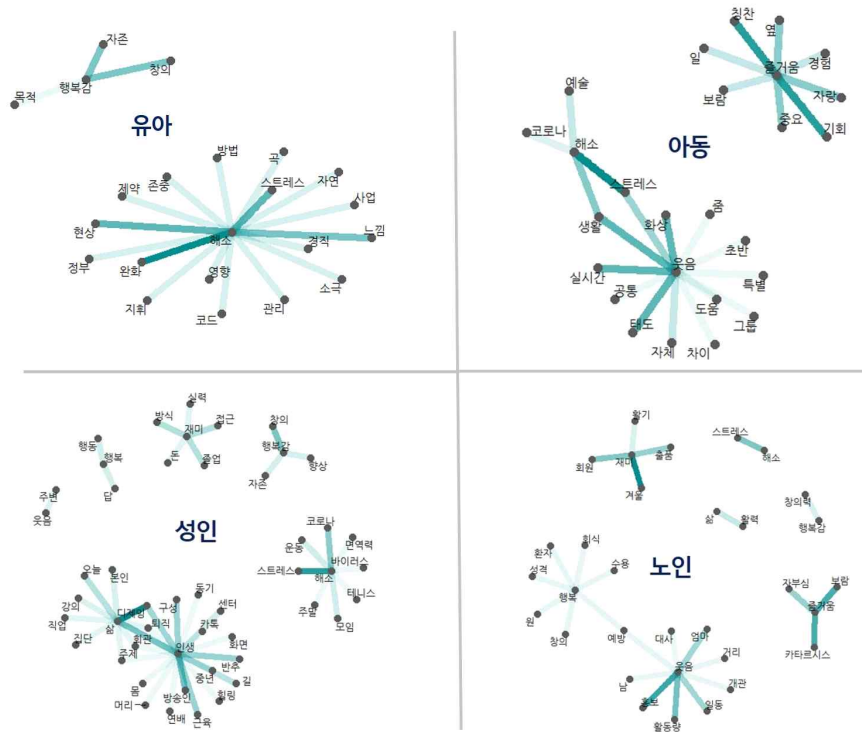
-참여자2: 예, 거기 다 났을 때 그 작품이 이렇게 나, 티비에, 그 자기 영화가 되어갖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드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 노인

#### ○ 텍스트 마이닝

- 행복감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행복(감)”, “해소”, “뿌듯”, “웃음”, “인생”, “삶”, “즐거움”, “재미”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긍정 정서경험과 정서적 해소는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전 집단에서 드러났으며 삶의 의미는 성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따라서 행복감 지표의 키워드와 어떠한 네트워크도 보이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전 집단의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46>과 같음.



<표 II-46> 행복감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행복(감)”, “해소”, “뿌듯”, “웃음”, “인생”, “삶”, “즐거움”, “재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 정서 경험 및 정서적 해소는 청소년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나타남. 삶의 의미는 노인과 성인 집단에서만 드러났는데 이는 질적 효과 지표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li> <li>• 긍정 정서 경험과 관련하여 아동 집단에서 “즐거움” 과 “칭찬”, “경험” 등이 상관을 가졌으며 특히 즐거움과 관련된 상관이 다른 집단보다 강하게 나타남. 유아 집단에서 “행복감-자존” 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추측됨. 성인 집단 역시 “행복(감)”, “재미”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노인 집단에서도 “재미-활기”, “즐거움-보람”, “웃음-활동량” 등이 나타남.</li> <li>• 정서적 해소의 경우 “해소-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유아, 아동, 성인, 노인 집단 모두에서 나타남. 이에 더해 유아 집단에서는 “해소-완화”, “해소-느낌” 등이 함께 등장하였으며 아동 집단에서는 “해소-웃음”, “웃음-태도” 등의 관계가 나타남. 성인 집단의 경우 “해소-코로나19”, “해소-스트레스”와 함께 “테니스”, “운동”, “모임”, “주말”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 이 네트워크를 이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난 “즐거움-카타르시스”와 같은 상관관계를 미루어 보아 타 집단에 비해 정서적 측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li> <li>• 성인 집단에서 “인생”과 관련된 상관이 많이 드러났으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반추”, “힐링”, “중년”, “삶-본인” 등이 도출됨. 노인 집단에서도 “삶-활력”과 같은 삶의 의미와 관련된 상관관계가 나타남.</li> </ul>

## (6) 문제해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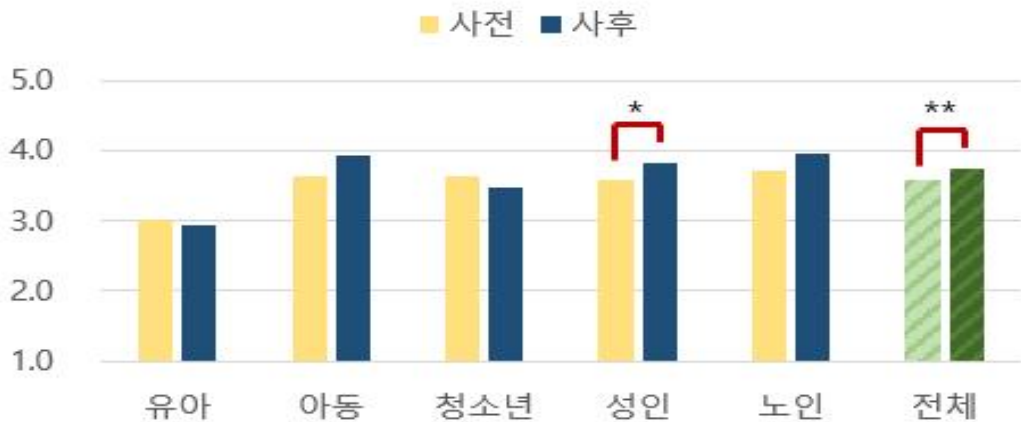
○ 정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상의 능력

〈표 II-47〉 문제해결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한다.</li> <li>▪ 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본다.</li> <li>▪ 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본다.</li> </ul>	대처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활동 능력</li> <li>▪ 일상생활 능력 확장</li> <li>▪ 대안 탐색</li> </ul>
	문제해결 욕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끈기</li> <li>▪ 주도성</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48〉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제해결력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사전	<i>M</i>	3.03	3.63	3.64	3.57	3.72	3.57
	<i>sd</i>	.74	1.06	.84	.81	.64	.85
사후	<i>M</i>	2.94	3.93	3.48	3.81	3.94	3.75
	<i>sd</i>	.79	.88	.95	.75	.52	.81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아동, 노인 집단의 경우 문제해결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제해결력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청소년 집단의 경우 문제해결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제해결력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성인( $p<.05$ ) 집단의 문제해결력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문제해결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01$ )

○ 질적 효과 지표

- 문제해결력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대처능력 향상과 문제해결 욕구 증가가 나타남. 대처능력 향상에는 문화예술 활동 능력, 일상생활 능력 확장, 정보 공유, 대안 탐색이 나타남. 문제해결 욕구 증가에는 끈기와 주도성이 발견되었음. 전 생애주기에서 대처능력 향상과 문제해결 욕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남.

<표 II -49> 생애주기별 문제해결력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처능력 향상	●	●	●	●	●
문제해결 욕구	●	●	●	●	●

- 유아의 경우, 강사가 교육 중 발생한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점차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남.

<문제해결 욕구 증가 및 대처능력 향상>

“저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해결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 스스로가 뭐 이 상황을 설명 해준다고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분명히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 유아, 담당자

- 아동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효과와 대처 능력향상 효과가 나타났음. 아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본인의 작품을 만들어감. 이는 문화예술 능력의 향상 즉, 문화예술감수성 효과와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

<문제해결 욕구 증가 및 대처능력 향상>

“(일반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럴 줄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 프로그램에서) 그리다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방법을 찾아내더라구요. 그게 좀 다른거 같아요.”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효과와 문제해결 욕구 증가가 모두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의 경우, 공예 활동(유리, 도자기, 종이 공예)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황에 맞게 결과물의 방향을 바꿔 완성하는 모습을 보임. 문제해결 욕구 증가의 경우, 생각처럼 작업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였으며,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여 해결하려는 능력이 생김.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수업 집중력이 향상되었음.

〈대처 능력 향상〉

“우리가 일자로 자르고 싶는데 곡선으로 잘린단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속에 상상을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생각했던 거랑 마지막 결과물이 좀 달라가지고..” - 청소년, 참여자

〈문제해결 욕구 증가〉

“끝까지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어떤 집중력에 어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들. 요런 것들은 또 더 추가로 이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 청소년, 관계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탐구해서 찾아서 해결하려는 능력이 생기죠. 예전 같으면 조립도를 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봐야만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향상이 되는 것이죠.” - 청소년, 관계자

- 성인의 경우, 주도성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욕구 증가가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스스로 각자 필요한 정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함. 이러한 적극성은 자발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문제 해결 욕구 증가 및 대처능력 향상〉

“올해는 말하자면 기획도 하고 어딜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정하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같은 끈대들은 아, 잘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대야지 했는데 의외로 본인들이 모든걸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뒷주머니 손꼽고 놀러가지고 강의나 특강까지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 준비해오셔가지고 우리는 놀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럼 또 듣기만 하는게 아니라 화답가도 주시고” . - 성인, 관계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따로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참가자 주도형 문화소풍을 준비를 했는데 되게

적극적이고 소통을 즐기면서 진행을 했어요. 아 이게 자발성과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구나를 몸소 체험한 문화소풍이었어요” - 성인, 관계자

- 노인의 경우, 모든 생애주기별 집단 중 가장 다양한 효과가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 중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능력 향상뿐 아니라 자조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력이 증진되는 모습을 보임. 문제 해결 욕구의 증가로 끈기와 노력이 나타남.

〈대처 능력 향상〉

“상대가 깜빡하고 대사를 까먹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바로 리액션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칭찬들었어요, 선생님한테.” - 노인, 참여자

“자조 조직을 만들고 어르신들끼리 같이 뭉쳐서 살고, 문제해결력도 높아지고, 왜냐면 어르신들끼리 뭉쳐있어버리면 어디 병원이 좋다부터 해가지고 연금 받는 것, 구청 가 가지고 일보는 것까지 다 이야기가 나와요.” - 노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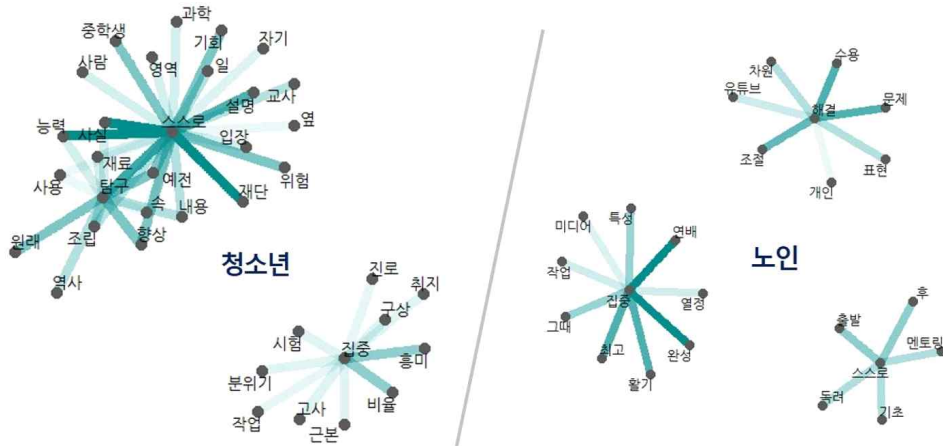
〈문제해결 욕구 증가〉

“내가 해야 한다는 욕구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성사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 노인, 참여자

○ 텍스트 마이닝

- 문제해결력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스스로”, “방법”, “탐구”, “해결”, “집중(도)”, “향상”, “협업”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요인인 대처능력 향상과 문제해결 욕구 증가가 전 집단에서 드러남. 따라서 전 집단 중 문제해결력 지표의 키워드와 관련한 네트워크가 잘 나타남. 청소년, 노인 집단을 대표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50>과 같음. 이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상, “방법”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상관관계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가 함께 도출됨.

<표 II-50> 문제해결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스스로”, “방법”, “탐구”, “해결”, “집중(도)”, “향상”, “협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집단에서 <b>대처능력 향상</b>과 <b>문제해결 욕구 증가</b>가 함께 드러난 것으로 추정됨. 유아 집단의 경우 “방법-자신감” 과 더불어 악기 및 음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어들이 “방법” 과 상관을 보였으며, “향상-가능”, “향상-전반” 등이 나타남. 아동 집단의 경우 “스스로-과정”, “스스로-영향”, “스스로-완성”, “스스로-발전” 등과 함께 프로그램 관련 단어들 역시 “스스로” 와 연결됨.</li> <li>청소년의 경우 “스스로-탐구”, “스스로-사용”, “스스로-향상” 뿐만 아니라 “집중-흥미”, “집중-작업” 등과 같이 “집중” 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드러남.</li> <li>성인의 경우 “스스로” 와 관련하여 “작업”, “역량”, “반성”, “감동” 등과 같은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아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언급됐을 것으로 추정됨.</li> <li>노인의 경우 “스스로-독려” 와 함께 “해결-문제”, “해결-수용”, “해결-유튜브” 와 같이 “대처능력 향상” 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드러났으며, <b>문제해결 욕구 증가</b>와 관련된 “집중-완성”, “집중-열정” 도 나타남.</li> </ul>

(7) 문화수용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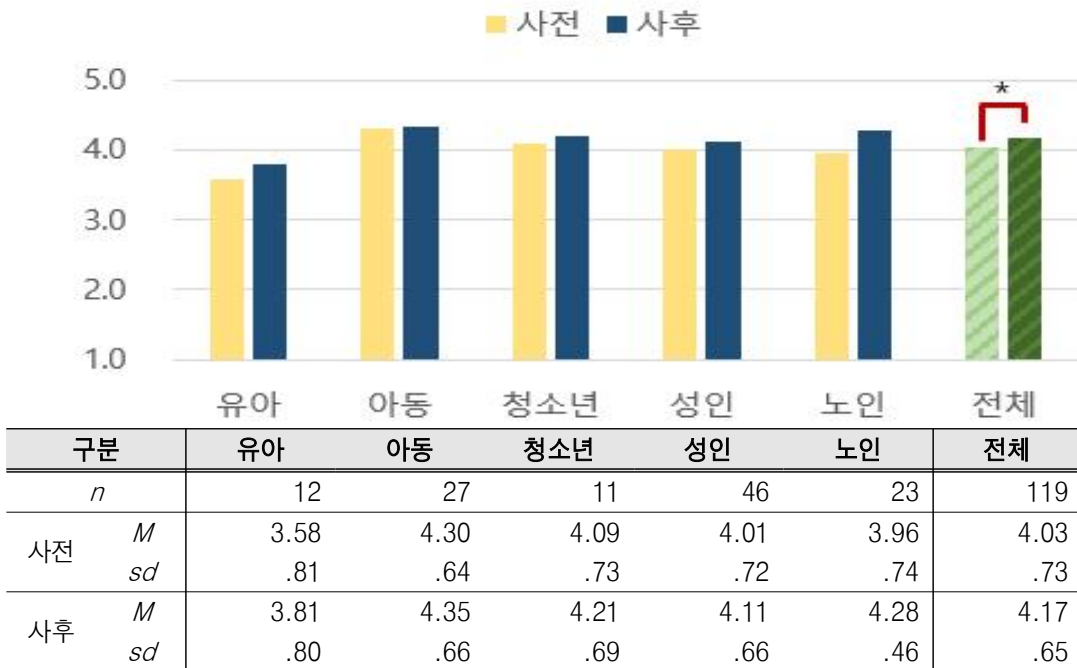
○ 정의: 문화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타문화를 열린 관점에서 수용하는 능력

〈표 II-51〉 문화수용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li> <li>▪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li> <li>▪ 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li> </ul>	다양성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긍정 및 수용</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52〉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문화수용력 효과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질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의 경우 문화수용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수용력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문화수용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 < .05$ )

○ 질적 효과 지표

- 문화수용력 효과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다양성 수용이 나타남. 다양성 수용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긍정과 수용이 포함됨. 이러한 문화수용력 효과는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표 II-53〉 생애주기별 문제해결력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다양성 수용	●	●	●		●

- 유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과정이나 강사의 태도를 통해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익힘.

〈다양성 수용〉

“우리 아이들이 특징이 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조금 생긴 모습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서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돈독한 서로 친구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있죠”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유아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과정이나 강사의 태도를 통해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일 익힘.

〈다양성 수용〉

- “저희는 수업 중에 뭐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수용을 하면서”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접한 새로운 문화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고 즐기게 됨.

〈다양성 수용〉

“우리학교 공예도 아마 유리공예를 접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일이 아이들은 물론 저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학교 저 젊은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감명을 받더라고요. - 청소년, 관계자

- 성인의 경우, 문화수용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인 참여자들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보다 평소 배우거나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노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접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익히며, 더 넓은 활동으로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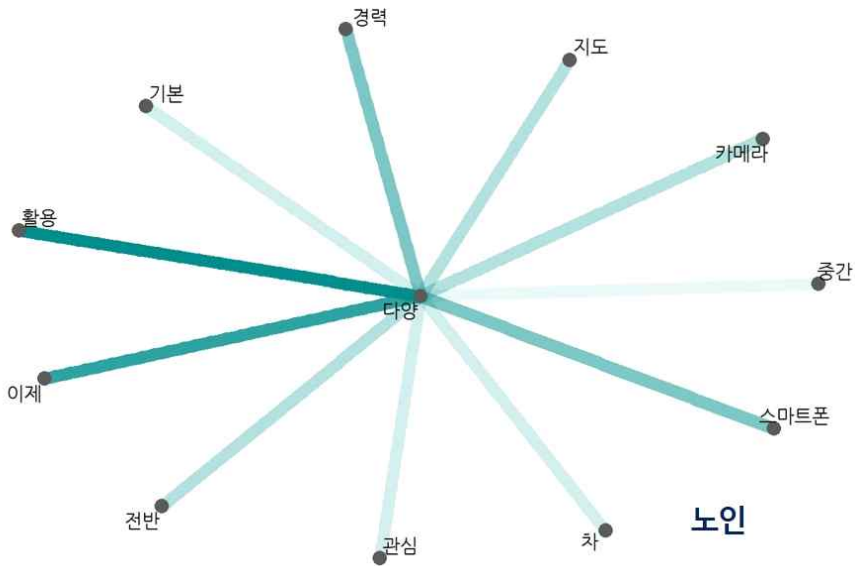
〈다양성 수용〉

“이분들은 약간 시니어인데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뭐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격증 취득하시고 활동하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 노인, 담당자

○ 텍스트 마이닝

- 문화수용력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다양성”, “다양”, “배려”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문화수용력의 경우 “다르다”, “다른” 등의 표현으로 많이 드러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전 집단 중 다양성 수용 측면이 유일하게 드러난 노인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54>와 같음.

<표 II-54> 문화수용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다양성”, “다양”, “배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와 아동 집단에서는 주로 “다양” 과 프로그램 관련 단어가 상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청소년 집단에서는 “배려” 가 나타났지만 “배려-서로”, “배려-결과물” 등 문화수용력이 드러났다고 보기엔 어려운 결과가 도출됨. 질적 효과 지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 집단에서는 관련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음.</li> <li>다만 노인 집단에서만 “다양” 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차”, “지도”, “활용”, “전반”, “관심” 등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양성이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질적 분석 결과와 상응함.</li> </ul>

(8) 요약: 특수지표Ⅰ - 개인심리적 차원

<표 II-55>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Ⅰ: 개인심리적 차원 효과 종합



차원	효과 지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전체 평균		사전	3.80	4.06**	3.95	3.75	3.73*	3.85***	
		사후	3.70	4.31**	4.00	3.87	3.96*	3.98***	
자기조절	양적	사전	3.64	3.73***	3.97	3.68	3.81**	3.74***	
		사후	3.61	4.17***	4.39	3.83	4.14**	4.00***	
	질적	정서조절	-	-	-	-	●	-	
		행동조절	-	●	●	●	●	-	
자기표현	양적	사전	4.11	3.96*	3.82	3.42	3.55**	3.68	
		사후	4.06	4.26*	3.79	3.62	3.87**	3.87	
	질적	의견 및 주장	●	●	●	●	●	-	
		작품자기표현	●	●	●	●	●	-	
특수 지표 Ⅰ: 개인 심리	자아존중 감	양적	사전	4.39*	4.30	4.09	3.98	3.86	4.08
		사후	4.17*	4.51	4.30	4.09	4.04	4.20	
	질적	자기효능감	●	●	●	●	●	-	
		자기가치	-	-	●	●	●	-	
창의성	양적	사전	3.94	4.25	4.03	3.80	3.59	3.90	
		사후	3.67	4.47	3.91	3.83	3.71	3.94	
	질적	창의적 사고	●	●	-	-	●	-	
		새로운 표현 및 시도	-	●	-	●	●	-	
행복감	양적	사전	3.94	4.25	4.03	3.80	3.59*	3.90**	
		사후	3.67	4.47	3.91	3.83	3.71*	3.94**	
	질적	긍정정서	●	●	●	●	●	-	
		정서적 해소	●	●	●	●	-	-	
		삶의 의미	-	-	-	●	●		

효과 지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문제해결력	양적	사전 3.03	사후 3.63	3.64	3.57*	3.72	3.57**	
	양적	사전 2.94	사후 3.93	3.48	3.81*	3.94	3.75**	
	질적	대처능력	●	●	●	●	●	-
	질적	해결욕구	●	●	●	●	●	-
문화수용력	양적	사전 3.58	사후 4.30	4.09	4.01	3.96	4.03*	
	양적	사전 3.81	사후 4.35	4.21	4.11	4.28	4.17*	
	질적	다양성 수용	●	●	●	-	●	-
	질적	다양성 수용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생애주기별 개인심리적 차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의 사전 사후 전체 평균을 구하였음. 그 결과, 유아의 개인심리적 차원 사후평균이 사전평균에 비해 감소함. 반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집단의 개인심리적 차원 사후평균은 사전평균에 비해 증가함. 특히, 아동, 노인, 전체 집단의 변화가 유의미하였음.
-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에서 양적 및 질적 효과가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남. 질적연구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자기조절 효과지표에서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이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났으며, 유아를 제외한 모든 생애집단에서 하나 이상의 해당 질적 효과가 나타남. 특히, 정서조절효과는 노인집단에서만 나타남. 이는 청소년 시기까지 정서를 조절하는 대뇌가 미성숙하므로, 발달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 성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보다 부정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서 조절에 대한 효과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음. 노인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해야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서 조절과 행동조절이 효과로 나타남. 이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자기표현 효과지표에서 의견 및 주장,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이 질적효과 지표로써 나타남.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을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으나, 의견 및 주장은 아동과 성인에서만 나타났으며, 모두 교육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는 발달상의 특징보다는 프로그램과 강사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자아존중감 효과지표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과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가치가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남. 자기효능감 효과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문화예술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향상됨. 자기 가치확인 효과는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전 생애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기 가치 확인은 중요하지만, 특히나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감퇴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 시기의 자기효능감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한 자기가치 확인은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창의성 효과지표에서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표현 및 시도가 나타남. 창의적 사고는 유아, 아동, 노인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새로운 표현 및 시도는 아동, 성인, 노인 지반에서 나타남. 노인 집단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창작 과정에서 창의력, 특히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 확장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청소년의 경우는 목공예, 유리 공예 기술력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음. 텍스트 마이닝 결과도 이와 일치함.
- 행복감 효과지표에서 긍정정서, 정서적 해소, 삶의 의미가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남. 긍정정서 경험과 정서적 해소는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남. 특히 정서적 해소 효과는 시험과 진로 스트레스 등 사회적 스트레스를 처음 접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일상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로 기능함으로써 현대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음. 또한, 노인의 경우에는 부정 정서 경험이 다른 생애주기보다 적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삶의 의미는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문제해결력 효과지표에서 대처능력, 해결욕구 질적 효과지표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남. 아동의 경우, 문화예술능력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대처하는 능력으로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감수성의 향상으로 이어짐. 노인의 경우, 모든 생애주기별 집단 중 가장 다양한 효과가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 중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능력 향상과 함께 자조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됨. 문제 해결 욕구의 증가로는 끈기와 노력이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문화수용력 효과지표에서 다양성 수용이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남. 다양성 수용은 어떤 대상을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는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성인의 경우, 평소 다루고 싶었던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계기로 프로그램을 찾는 경우가 있어, 문화 수용력 질적 효과를 찾기 어려움. 이는 인터뷰 집단의 프로그램 특성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4)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 (1) 공감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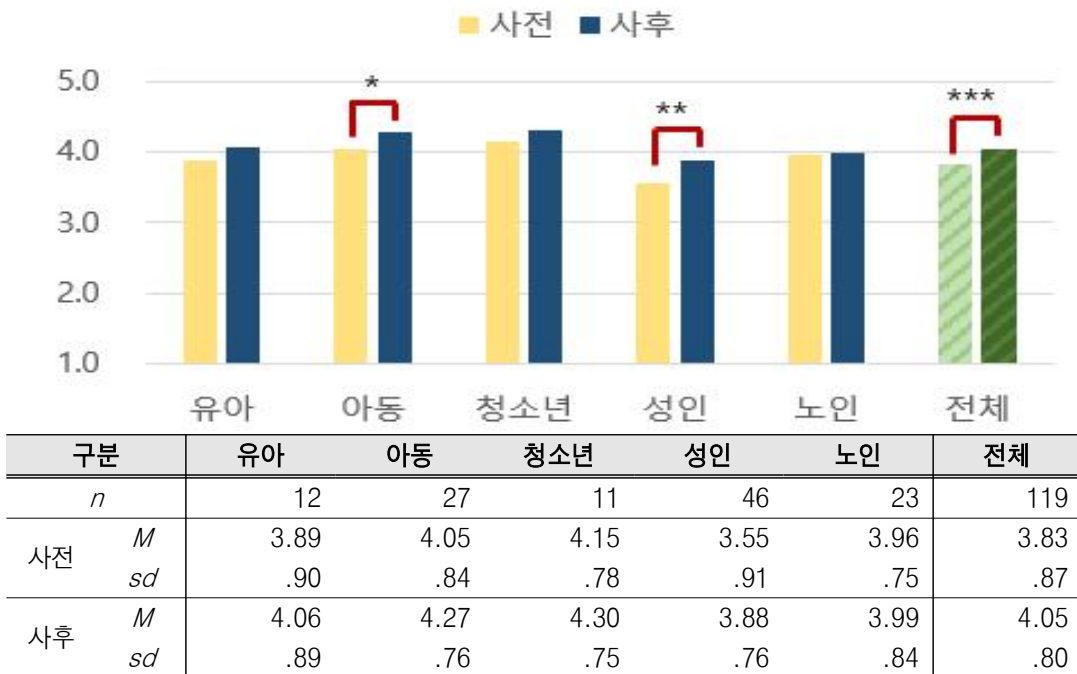
○ 정의: 다른 사람의 인식, 태도, 입장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표 II-56〉 공감능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li> <li>▪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li> </ul>	수용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관점 수용</li> <li>▪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li> </ul>
	양보 및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보 및 배려</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57〉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공감능력 효과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청소년, 노인 집단의 경우 공감능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공감능력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아동( $p < .05$ )과 성인( $p < .01$ ) 집단의 공감능력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공감능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 < .00$ )

○ 질적 효과 지표

- 공감능력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수용적 태도와 양보 및 배려가 나타남. 수용적 태도에는 다양한 관점 수용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포함됨. 이러한 공감능력 효과는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남. 유아와 청소년의 경우 양보 및 배려가 나타났고,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는 양보 및 배려와 함께 수용적 태도 효과가 나타남. 아동 집단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표 II-58> 생애주기별 공감능력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수용적 태도				●	●
양보 및 배려	●		●	●	●

- 유아의 경우, 매회 회차가 거듭될수록 교육 중 다른 아이를 기다려주거나 도와주는 등의 양보 및 배려가 나타남.

<양보 및 배려>

“매 회차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한 아이가 이걸 못하고 있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같이 도와준다면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공감능력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 인터뷰 참여 집단이 올 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나, 개인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소통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한 문화예술 강사가 관련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음.

- 청소년의 경우, 하나의 작품을 여럿이 함께 완성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양보가 나타났으며, 이는 협동으로 이어짐.

〈양보 및 배려〉

“산만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속에서 발랄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 보통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욕심으로 인해서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들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것 먼저 할 수 있고. 근데 배려나 뭐 약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 청소년, 관계자

- 성인의 경우,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수용적 태도가 나타남. 수용적 태도는 여러 참여자와 함께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과정과 상대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나타남. 또 이러한 태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내에서뿐 아니라 가족관계로 확장되었으며, 양보와 배려 행동으로 이어짐.

〈수용적 태도〉

“어떤 주제를 놓고 사물을 봐도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느낌이 다르고. 아 그러면서, 이런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 성인, 참여자

“그게 또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서 아~ 그래 나는 이랬는데 남편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하면서 이해가 되더라” - 성인, 참여자

- 노인의 경우, 지역 내 소외된 노인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며,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본인의 활동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공되기를 소망함.

〈수용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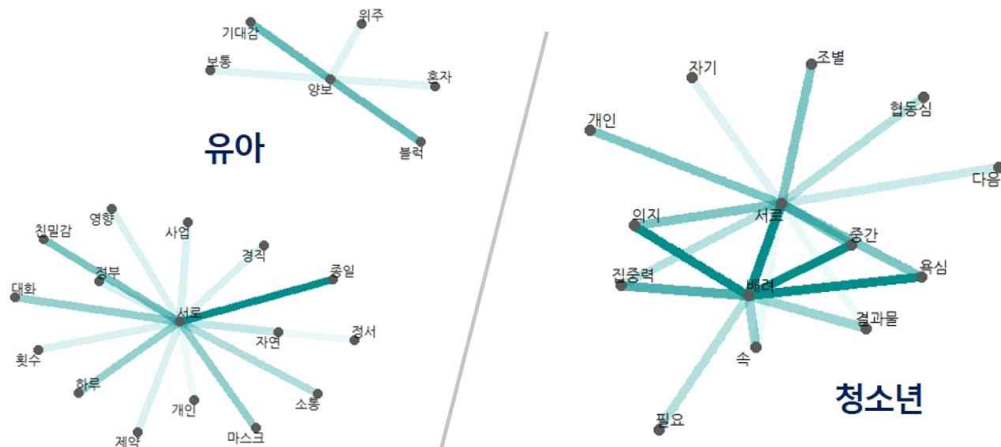
” 나이 드신 분하고 소통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외감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우리가 뭔가 이제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이런 프로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이제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 - 노인, 참여자



○ 텍스트 마이닝

- 공감능력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양보”, “배려”, “의지”, “서로”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요인인 수용적 태도는 전 집단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며 양보 및 배려의 경우 유아와 청소년 집단에서만 나타남. 아동의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성인, 노인 집단의 경우 “다르다”와 같은 동사, 형용사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명사 위주로 키워드를 뽑은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전 집단 중 양보 및 배려 측면이 드러난 유아와 청소년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59>와 같음.

<표 II-59> 공감능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양보”, “배려”, “의지”, “서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적 태도는 전 집단에서 드러나지 않음. 양보 및 배려의 경우 유아와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남.</li> <li>구체적으로, 유아 집단에서 “양보-불력” 등 유아의 행동 양상이 네트워크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집단에서도 “배려-서로” 등 양보 및 배려와 연관 있는 상관관계가 드러남. 즉 유아 집단에서 “양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불력”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 결과도 마찬가지로 “배려”와 “서로”가 동시에 언급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li> </ul>

## (2)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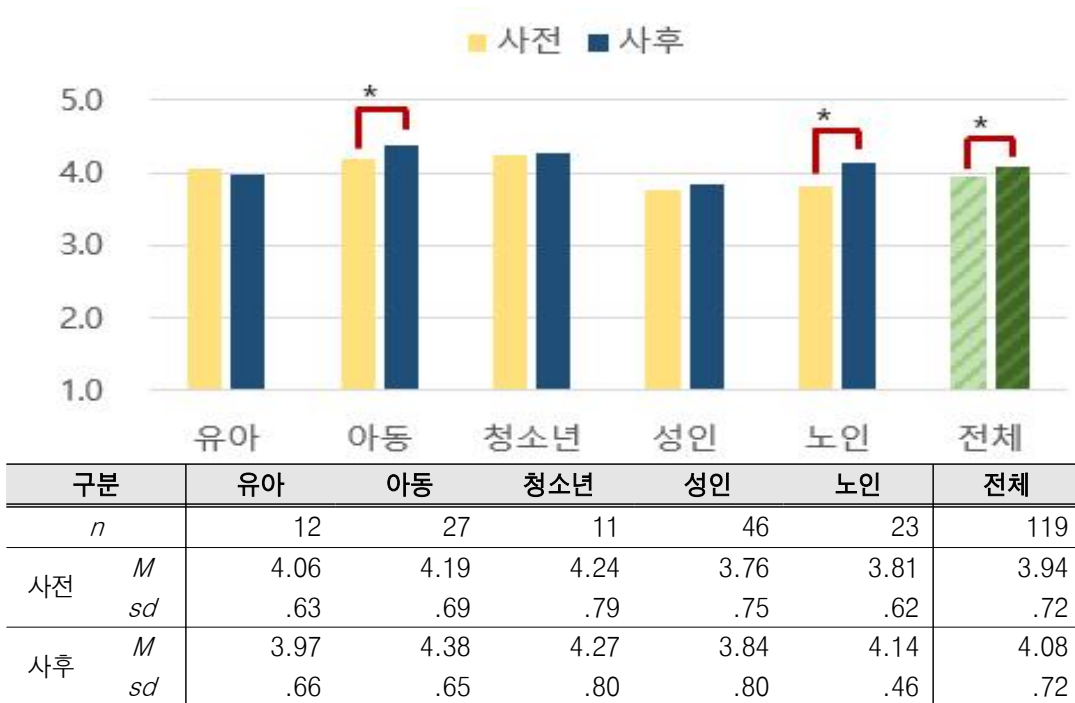
- 정의: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이들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는 상태

〈표 II-60〉 친밀감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li> <li>▪ 나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li> <li>▪ 나와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li> </ul>	관심사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li> <li>▪ 내집단</li> <li>▪ 새로운 집단</li> </ul>
	유대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정과 관심</li> <li>▪ 갈등 해소 후 유대감 증진</li> <li>▪ 집단 정체성</li> </ul>

### ○ 양적 효과 지표

〈표 II-61〉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친밀감 효과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청소년, 성인 집단의 경우 친밀감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친밀감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아동( $p < .05$ )과 노인( $p < .05$ ) 집단의 친밀감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친밀감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 < .05$ )

○ 질적 효과 지표

- 친밀감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관심사 공유와 유대감 증진이 나타남. 관심사 공유는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이들은 가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새로운 집단 구성원과 관심사를 공유함. 유대감 증진에는 애정과 관심, 갈등 해소 후 유대감 증진, 집단 정체성이 포함됨. 유대감 증진은 모든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 집단 내 구성원과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가족과 문화예술 관련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밀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표 II-62〉 생애주기별 친밀감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관심사 공유			●	●	●
유대감 증진	●	●	●	●	●

- 유아의 경우, 강사와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나타남.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고 활동을 하면서 점차 외부 강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증가함.

〈유대감 증진〉

“ 각자 서로 다 같이 낯설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 이름도 얘기해주면서, 각자 이름도 서로 불러주면서 소통하면서 관계개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활동하니까 친밀감도 잘 느껴지고 수업할 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강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나타남. 아동복지기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아동들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집단 내 참여자들에 대한 유대감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여러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유대감 형성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강사에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보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교육이 진행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는 것으로 보임.

〈유대감 증진〉

“사실은 처음엔 다 되게 친근하게 선생님, 선생님 하는데 끝날 때되면 썩하고 가버리거든요? 그 친구는 많은 선생님을 만나 본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많은 프로그램 선생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내년에도 또 와줄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꼭 오고 싶다고 말을 하죠.”

-아동, 관계자

"온라인상 으로 봤을 때 서로 잘 모를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 이제 서로 다 아는 아이 친구들이 있고 의외로 좀 서먹서먹한 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특징있게 저희도 바라봤던 점이었고"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관심사 공유, 유대감 증진이 나타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새 학년 친구들과 친해질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관심사를 공유하고, 짧은 시간에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김. 또, 문화예술 활동시 착용하는 활동복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대감이 증진됨.

〈관심사 공유 및 유대감 증진〉

"저희가 예술꽃 씨앗학교 하면서 활동복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약간 저희 학교만의 마크 같아가지고 좋아요." - 청소년, 참여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다가 애들을 3학년되서 처음봤잖아요. 어색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술꽃 목공 같은 경우에는 다같이 하는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애들과 빨리 친해지는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 청소년, 참여자

- 성인의 경우, 관심사 공유와 유대감 증진이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 및 내집단과 관심사 공유, 내집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며 가족과의 대화 주제가 확장되거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참여자들과 문화예술을 주제로 대화하며 친밀감을 높임. 또, 활동 과정에서 지지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생겨남.

〈관심사 공유〉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의 숨은 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아이들도 엄마가 즐거워하는 일 하는 게 너무 좋다고. 계속 엄마가 즐거워하는 일 계속 좀 하면 좋겠다." - 성인, 참여자

"회차가 지나다보니까 수강생들이 직접 배워보고 싶은 악기를 가져 오시고 수강생끼리 이 악기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자기들끼리 공유도 되고" - 성인, 관계자

〈유대감 증진〉

"그냥 서로의 마음을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친숙해지면서, 아 정말 그..아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성인, 참여자

- 노인의 경우, 관심사 공유, 유대감 증진이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집단 및 새로운 집단과 관심사 공유, 내집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나타남. 문화예술 교육 이외의 관심사에 대해 교육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화예술 활동 중 알게 된 새로운 사람과 관심사(당구)를 나누며 친분을 이어감. 또, 내집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별개로 친목 모임을 이어가거나 일상생활에서 서로 도움을 제공함.

#### 〈관심사 공유〉

“제가 한 작품의 인터뷰를 위해 그 분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랬죠. (중략) 그 분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당구를 못 배워서 당구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 분한테 한 1년 정도 배웠죠.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작품을 하다보면 사람 관계가 친분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노인,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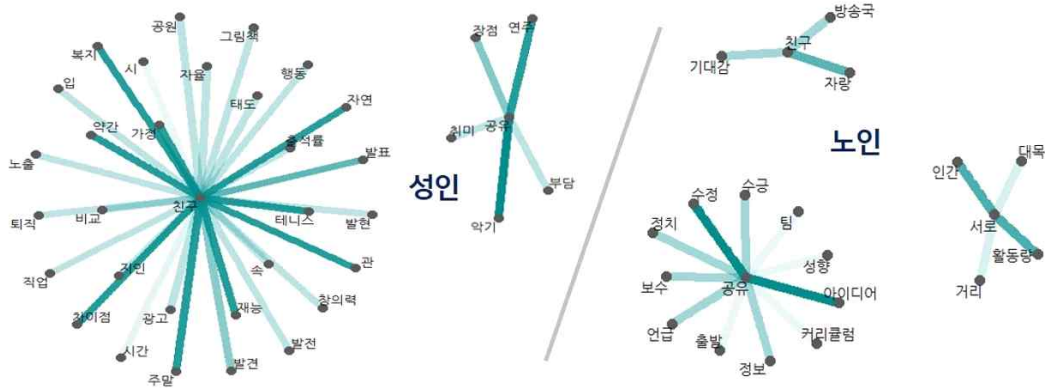
#### 〈유대감 증진〉

“지금 어르신들중에 몇 분은 우울증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 분은 좀 심하셨고. 근데, 어르신들이 그분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끌어내요. 저는 그런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걸 어르신들이 진짜 해주세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답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분도 있고, 그리고 남자 혼자 사셔가지고 반찬이 별로 없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 어르신들이 다 챙겨주세요.” - 노인, 참여자

### ○ 텍스트 마이닝

- 친밀감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공유”, “서로”, “마음”, “친숙”, “친구”, “협업”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친밀감과 관련된 내용은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그 중 하위 요인인 관심사 공유는 두 집단 모두에서 드러났으며 유대감 증진의 경우 성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따라서 친밀감과 연관 있는 내용이 드러난 성인과 노인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63>과 같음.

<표 II-63> 친밀감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공유”, “서로”, “마음”, “친숙”, “친구”, “협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심사 공유</b>의 경우 해석이 가능한 결과가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남. 성인의 경우 “공유-취미”, “공유-악기” 등의 상관관계를 보아 관심사를 공유하는 양상이 나타남. 노인 집단 역시 “친구-자랑”, “공유-정보”, “공유-아이디어” 등 정보, 관심사 등을 주변인들과 나누는 것으로 추측됨.</li> <li>• <b>유대감 증진</b>의 경우 성인 집단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친구”와 관련하여 타 집단과 다르게 “시”, “테니스”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어들 나타남. 이는 질적 효과 지표 분석에서 성인 집단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li> </ul>

### (3) 소통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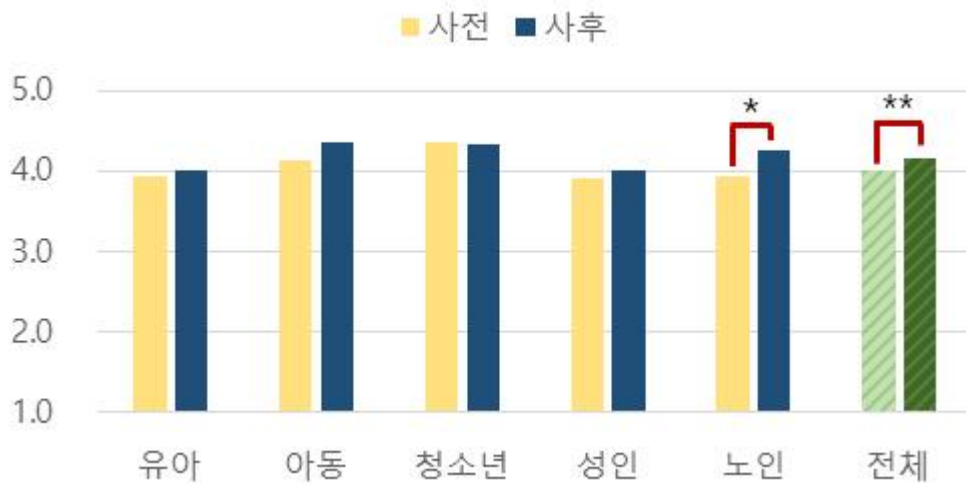
○ 정의: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 받으며 조율하는 능력

〈표 II-64〉 소통능력 양적 효과 지표 및 질적 효과 지표

양적 효과 지표	질적 효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다.</li> <li>▪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듣는다.</li> <li>▪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li> </ul>	대화 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li> <li>▪ 대화 주제 확장</li> <li>▪ 자기개방</li> <li>▪ 정보 공유</li> </ul>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청 태도</li> <li>▪ 경청의 필요성</li> </ul>

○ 양적 효과 지표

〈표 II-65〉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소통능력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사전	<i>M</i>	3.94	4.14	4.36	3.91	3.93	4.01
	<i>sd</i>	.87	.74	.60	.67	.68	.71
사후	<i>M</i>	4.00	4.35	4.33	4.01	4.26	4.17
	<i>sd</i>	.84	.73	.83	.70	.50	.71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와 아동, 성인 집단의 경우 소통능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통능력 지표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임. 청소년 집단의 경우 소통능력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통능력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임. 노인( $p<.05$ ) 집단의 소통능력 지표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생애주기 집단 전체에 대한 소통능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음( $p<.01$ )

○ 질적 효과 지표

- 소통능력 질적 효과 지표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대화기술 향상과 경청이 나타남. 대화기술 향상에는 자신감, 대화 주제 확장, 자기개방, 정보 공유가 나타남. 경청의 필요성에서는 경청 태도와 경청의 필요성이 나타남. 대화기술 향상의 경우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경청은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표 II -66〉 생애주기별 소통능력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화기술					
향상	●	●	●	●	●
경청	●		●	●	●

- 유아의 경우, 자기개방과 경청이 나타남. 교육 회차가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증가함.

〈대화기술향상 및 경청〉

“내 친구, 나의 마음, 감정, 그리고 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난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 유아, 관계자

- 아동의 경우, 자기개방이 나타남. 수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으며, 자기표현에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애주기 집단과 비교하여 소통능력에 대한 효과가 적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한 강사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소통능력과 관련된 아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음.

〈대화기술 향상〉

“적응을 못하는가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많이 친하지 않았다 싶었는데 말 수도 없고 그랬는데 굉장히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편지를 장문으로 선생님들한테 소감문을 썼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 아동, 관계자



- 청소년의 경우, 협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개방, 대화주제 확장, 정보 공유 등 대화기술 향상과 경청이 나타남. 이러한 소통은 친밀감 향상(우정)으로 이어짐.

〈대화기술 향상 및 경청〉

“목공이라는 것은 협업이거든요. 혼자서 할 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 이게, 누군가를 도와주어야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성이 되는구나하는 것을 알게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하면 잘되지 않는다. 이 협동 작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략) 우리 교과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협동심이나, 아이들 간의 우정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아닐까.” - 청소년, 담당자

- 성인의 경우, 대화기술향상(대화주제 확장, 자기개방, 정보 공유)과 경청하는 태도가 나타남. 이러한 효과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집단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임. 즉,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소통능력의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성인의 경우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소통의 시작이 자기표현, 행복감, 친밀감, 공감능력과 같은 효과로 이어짐.

〈대화기술 향상 및 경청〉

“그동안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먼저 나를 열어놔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를 열어놓으면 상대방도 나를 열게 돼 있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성인, 참여자

“자기 이야기를 다같이 모여서 꺼내놓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할 데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에서 주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감추고 싶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와 시간이 정말 없었다라는 게 발견이 되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산시켜나가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어요.” - 성인, 참여자

- 노인의 경우, 대화 기술향상(자신감, 정보 공유)과 경청 효과가 나타남.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감있게 대함.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음.

〈대화기술 향상〉

“다큐멘터리를 만들라하면 인터뷰도 해야하는데 음엔 쑥스러워서 잘 못하다가 요즘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 노인,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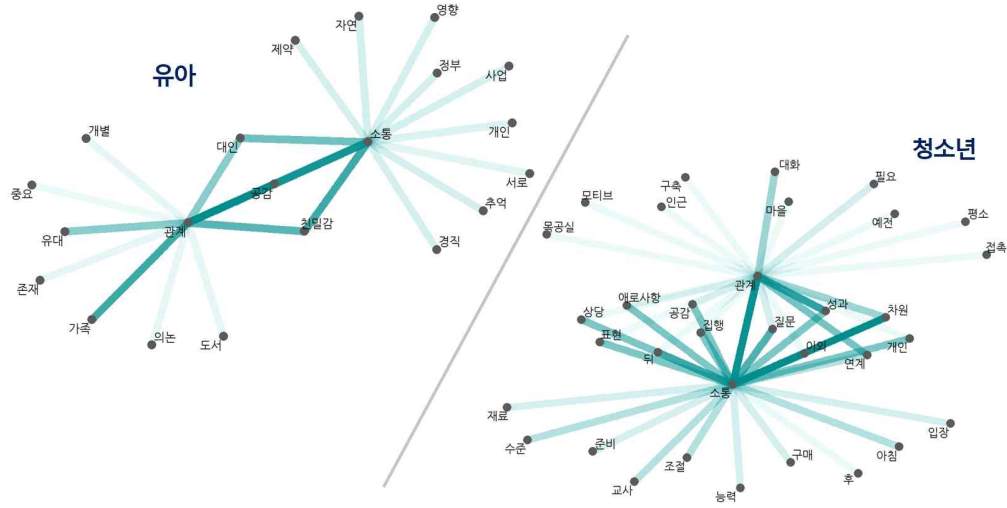
〈경청의 중요성〉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아 그냥 이렇게 늙어도 아름답게 늙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소통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 될건데 싶은 거 있잖아요.” - 노인, 참여자

○ 텍스트 마이닝

- 소통능력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관계”, “소통”, “경청”, “협업”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성인과 노인의 경우 소통능력 지표에 대해 논의할 때 “열어놓다”, “꺼내놓다” 등 동사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음. 또한 아동 집단에서는 “관계” 키워드만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 아동 집단의 특성 상 소통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적게 언급됐을 것으로 파악됨. 유아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소통” 키워드와 “관계” 키워드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유아와 청소년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6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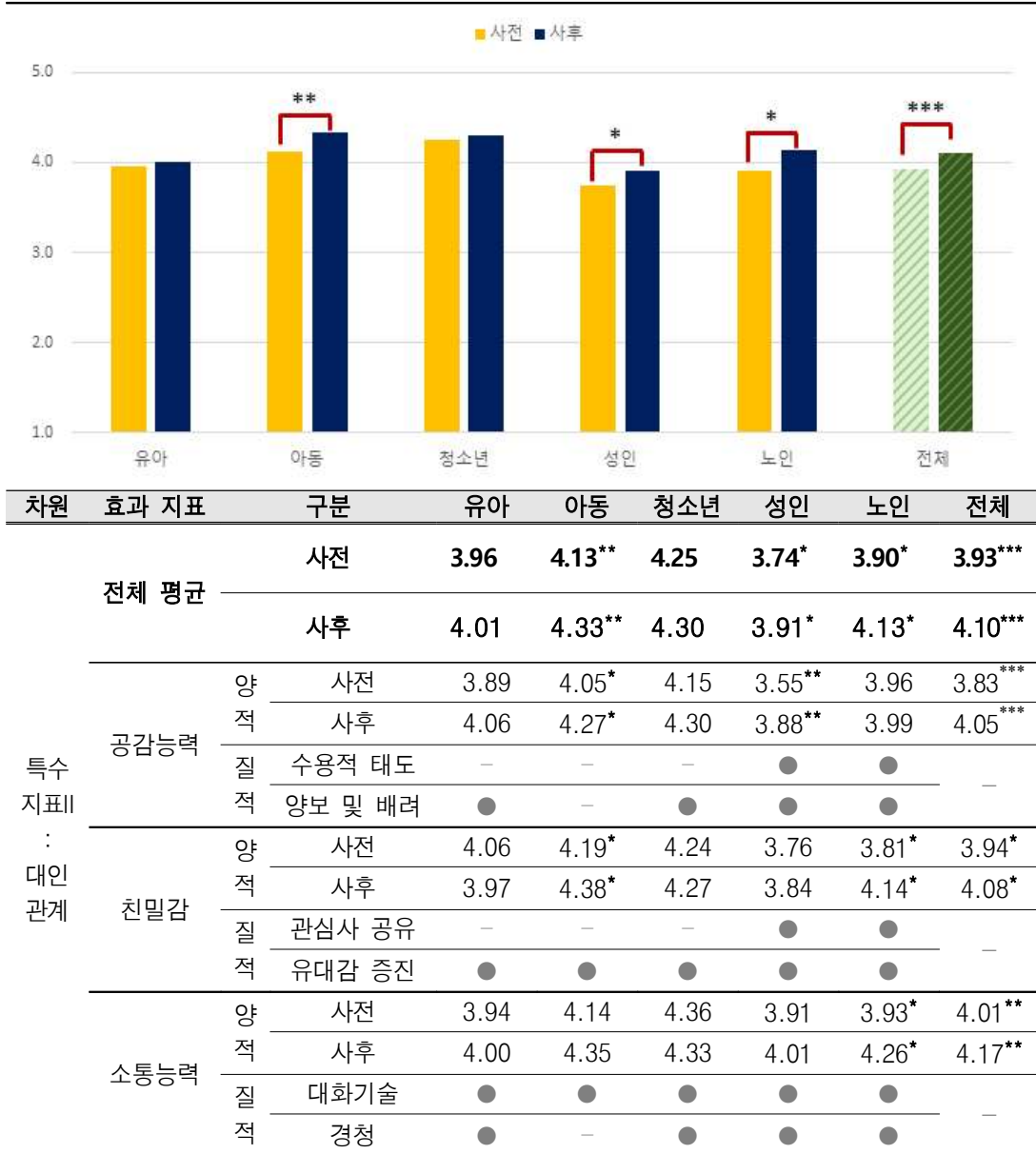
〈표 II-67〉 소통능력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관계”, “소통”, “경청”, “협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경우 “소통” 과 “관계” 모두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어들이 “소통” 과 강한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즉 “소통-관계”, “소통-개인”, “소통-공감”, “소통-표현”, “소통-애로사항” 등 소통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날 때 관련된 단어들이 함께 언급 된 것으로 파악됨. 또한 “대화” 가 “관계” 와 상관을 보인 다른 단어들 보다 높은 상관을 보임.</li> <li>• 유아의 경우 “친밀감” 과 “공감” 이 “관계” 와 “소통” 키워드와 모두 높은 상관을 보임. 즉 소통능력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친밀감” 과 “공감” 이라는 단어도 함께 언급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단, “소통” 과 관련된 여러 단어 중 “정부”, “경직”, “계약”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언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li> </ul>

(4) 요약: 특수지표II - 대인관계적 차원

〈표 II-68〉 문화예술교육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 효과 종합



\**P* < .05, \*\**P* < .01, \*\*\**P* < .001

- 생애주기별 대인관계적 차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의 사전 사후 전체 평균을 구하였음. 그 결과, 전 생애주기 집단의 대인관계 차원 사후평균이 사전평균에 비해 증가함. 특히, 아동, 성인, 노인, 전체 집단의 변화가 유의미하였음.
-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에서 양적 및 질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남. 질적 연구결과, 생애주기에 따라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공감능력 효과지표에서 수용적 태도와 양보 및 배려가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남. 양보 및 배려는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타남. 수용적 태도는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수용적 태도는 여러 참여자와 함께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느끼는 과정과 상대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나타남. 또, 이러한 태도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뿐 아니라 자기수용, 부부관계 등으로 확장됨.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친밀감 효과지표에서 관심사공유와 유대감 증진이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남. 유대감 증진은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관심사 공유는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성인과 노인의 관심과 흥미를 계기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악기,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는 효과가 나타남.
- 자기조절 효과지표에서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이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났으며, 유아를 제외한 모든 생애집단에서 하나 이상의 해당 질적 효과가 나타남. 특히, 정서조절효과는 노인집단에서만 나타남. 이는 청소년 시기까지 정서를 조절하는 대뇌가 미성숙하므로, 발달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 성인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보다 부정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서 조절에 대한 효과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음. 노인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해야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서 조절과 행동조절이 효과로 나타남. 이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와도 일치함.
- 소통능력 효과지표에서 대화기술향상과 경청이 질적 효과지표로 나타남. 대화기술 향상은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남. 특히 성인에서 대화기술 향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집단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임. 즉,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소통능력이 향상함. 노인의 경우, 인터뷰가 포함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 있게 대함.
- 종합하면, 생애주기별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음. 이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프로그램 특성(협동작업 여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0년 아동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차원의 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 질적 연구 대상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개인 작품활동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 5) 그 외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 (1) 코로나19 스트레스

① 사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표 II-69>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i>M</i>	3.08	2.89	2.73	2.93	3.35	3.00
<i>sd</i>	1.38	1.34	1.62	1.22	1.07	1.27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조사에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음.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평균 3점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3.35점) > 유아(3.08점) > 성인(2.93점) > 아동(2.89점) > 청소년(2.73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② 사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이유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살펴봄. 그 결과, 활동량 감소, 마스크 착용, 친목활동 제한, 교육활동 제한, 일상활동 제한,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활동량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났으며, 마스크 착용은 청소년 제외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친목활동 제한은 유아와 청소년을 제외한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남. 청소년과 노인 집단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제한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성인은 일상 활동 제한으로 인해, 노인은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70〉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활동량 감소	●	●	●	●	●
마스크 착용	●	●		●	●
친목활동 제한		●		●	●
교육활동 제한			●		●
일상활동 제한				●	
육아 스트레스					●

-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긍정적 경험이 함께 발견됨.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제한되고 비대면 학습이 이뤄지면서, 자기주도 학습,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등교 시간이 단축되어 즐거워 함. 이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에서 청소년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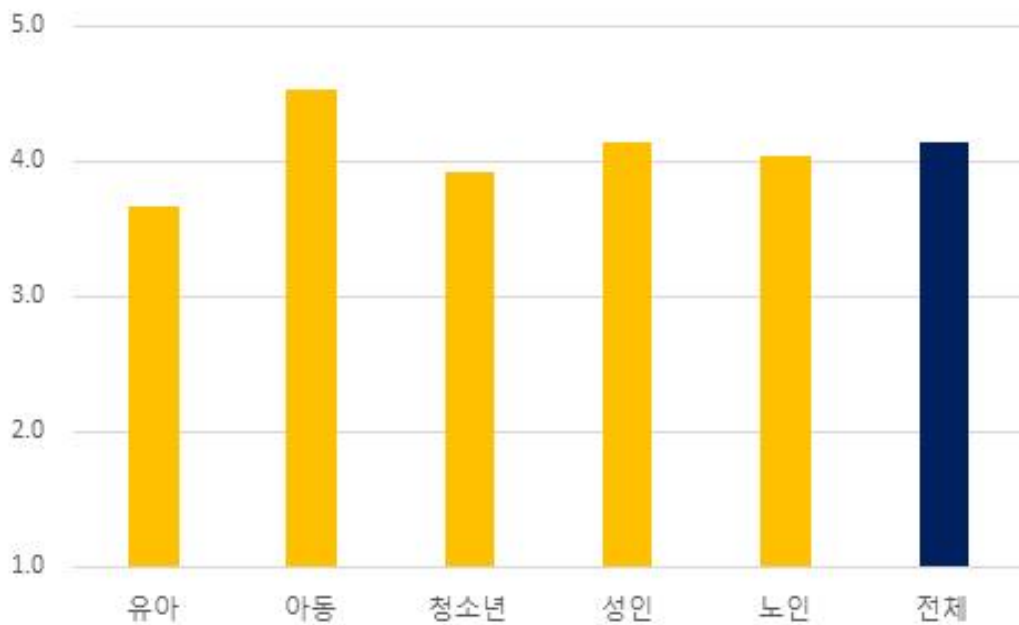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 새로운 경험, 등교시간 단축〉

“온라인 수업이라 가지고 줌같은 어플 깔아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 깔아서 하다보니 이런 어플도 있구나 이렇게 수업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청소년, 참여자

“저는 집이 학교랑 먼데 온라인 수업하면 일어나면 바로 등교가 되니까 시간적으로 단축되서 좋았던 것 같아요.” - 청소년, 참여자

- ③ 사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여부
-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봄.
  -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평균 4.13점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여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아동(4.52점) > 성인(4.13점) > 노인(4.04점) > 청소년(3.91점) > 유아(3.67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경험을 아동, 성인, 노인 집단에서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71> 대응표본 t 검증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i>n</i>	12	27	11	46	23	119
<i>M</i>	3.67	4.52	3.91	4.13	4.04	4.13
<i>sd</i>	.89	.64	.94	.98	.88	.90

\* $p < .05$ , \*\* $p < .01$

*M*: 평균, *SD*: 표준편차



④ 사후: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여부

〈표 II-72〉 생애주기별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만남과 소통의 기회 안전한 만남의 공간	●	●	●	●	●
정서적 해소		●	●	●	●
마스크 적응				●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살펴봄. 그 결과, 만남과 소통의 기회, 안전한 만남의 공간, 정서적 해소, 마스크 적응 효과가 나타남.
- 만남과 소통의 기회 효과의 경우, 전 생애주기 집단에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나타남.
- 안전한 만남의 공간 효과의 경우,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남.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낌.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나타남.
-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됨.

〈사회적 교류: 만남과 소통의 기회, 안전한 만남의 공간〉

“7월 초부터 (문화예술교육이) 문을 열었는데, 이제 사람 간에 만나고 이리 얼굴을 보고 해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 노인, 참여자

“그래도 여기는 다 안전하게 소독을 하고 지켜가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대면으로 모여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 성인, 담당자

- 정서적 해소 효과의 경우, 아동, 성인, 노인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반경이 축소되고 사회적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해소함.

〈정서적 해소〉

“연극 대본도 읽는데다가 영화 시나리오 대본도 있으니까 그걸 외우느라고 가까운데 산책을 다니면서 공원에서 혼자 외우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인, 참여자

- 마스크 적응 효과의 경우, 성인 집단에서 나타남. 코로나19-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 수칙이 되었지만, 착용 중 답답함에 오히려 외부활동을 줄였는데,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하면서 마스크 착용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한 후, 마스크 착용에 적응할 수 있게 됨.

〈마스크 적응〉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두 시간을 마스크 써도 괜찮았어요. 그게 내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어떤 땐 한나절 밖에서 돌아다녀도 이제 그다지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 성인

⑤ 요약: 코로나19

- 모든 생애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및 질적 효과가 나타남. 질적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 감소, 마스크 착용, 친목활동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음. 특히, 노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게 되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보고함.
-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안전한 소통의 장과 기회 제공’이었음. 참여자들은 방역수칙이 지켜진 안전한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함.
- 효과지표는 개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함께 변화함. 이에 개별적 분석이 아닌 프로파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2) 기타 문화 교육 효과 지표

- FGI 인터뷰를 통해 양적 효과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드러남. 진로탐색 및 직업세계 이해, 교과과정 집중도 증가(청소년), 협동능력(청소년, 성인, 노인), 자기수용, 초월적 감사(성인), 성격 변화, 도전의식, 건강에 도움(노인) 효과가 나타났음.

<표 II-73> 생애주기별 기타 질적 효과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진로탐색·직			●		
업세계 이해			●		
교과과정			●		
집중도 증가			●		
협동 능력			●	●	●
자기 수용				●	
초월적 감사				●	
도전 의식					●
건강에 도움					●

- 유아와 아동의 경우,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청소년의 경우, 진로 탐색 및 직업 세계의 이해, 교과과정 집중도 증가, 협동 능력이 나타남. 진로 고민을 하는 시기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접하고, 직업인으로서 문화예술 강사를 만남으로써 학업 이외에 다른 진로 과정을 알게 됨. 공예, 목공 등의 활동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공동작업을 통해 기존 교과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협동 능력을 함양함.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다른 교과 과정의 집중도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진로탐색 및 직업 세계의 이해 >

“저는 약간 나중에 미래가 공부 밖에 생각을 안했었는데, 그 외에 어떻게 꿈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공예 선생님들이 그 때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 진학하고 이 분야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도 꿈을 찾아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 청소년, 참여자

<교과과정 집중도 증가>

“예술꽃씨앗활동을 하기 전과 한 이후에 보면, (학생들이 해이해질 때)예술꽃씨앗학교에 융합수업으로 집어 넣어주니까 학생들이 그 교과에 대한 흥미도도 유지가 되고, 집중도도 유지가 되고.” -청소년, 담당자

### <협동 능력>

“목공이라는 것은 협업이거든요. 혼자서 할 순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 이거, 누군가를 도와주어야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성이 되는구나하는거죠” - 청소년 담당자

- 성인의 경우, 자기 수용, 초월적 감사, 협동 능력이 나타남. 성인 참여자는 지지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기를 개방하고, 다른 참여자와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한 후, 자기 자신의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이 나타남. 이러한 자기 수용은 행복감(삶의 의미)뿐 아니라 현재 자신을 있게 해준 모든 존재와 삶에 대한 감사(초월적 감사)와 함께 나타남. 마지막으로, 공동 작업을 통해 협동 능력이 함양됨.

### <자기수용>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다보니 까그 동안의 직업을 떠나서 가정에만 있다가 소심해 있다가 이런 거에서 약간의 자아존중감이 생겼다 요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 성인, 담당자

### <초월적 감사>

“너무 좋았고 그냥 인터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참.. 많이 참 발전된 것 같고, 참 어쨌든 우리 위에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 준 것, 그 다음에 저보다 높은 연배의 분들이 열심히 살아준 혜택을 우리가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경험(비대면 인터뷰)도 덕분에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성인, 참여자

- 노인의 경우, 협동 능력, 도전 의식, 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남. 노인 참여자들은 연극 등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하면서 협동 능력이 향상되었음. 또 고령이지만 할 거리를 찾고 새로운 것에 도전 의식을 갖게 되어 일상에 활력과 활기가 생긴다고 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신체적 활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웰빙을 포함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건강 증진 및 도전 의식>

“건강이 도움이 되고 성격이 바뀌었어요. 배려심도 생기고. 나를 기다려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 노인, 참여자

“(작년 영화제 참여) 과정들 속에서 해오셨던 부분들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갔던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남고, 그 영화제에 어떤 다녀오신 이후로도 좀 활기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올해 또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도 어르신들 하는 말씀들이 돈 모아서 우리 영화 한 편 더 찍자. 할 수 있으면.” - 노인, 관계자

○ 텍스트 마이닝

- 기타 지표의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는 “미래”, “꿈”, “유지”, “집중도”, “도움”, “감사”이며 모든 생애주기 집단별로 각 키워드와 0.3이상의 상관을 보인 단어만 추출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함. 네트워크상에서 선으로 연결된 두 단어는 적어도 상관이 0.3이상임을 의미하며 색이 진할수록 더 높은 상관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단어 간 상관이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개별적으로 등장한 문서에 비해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서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집단에서 “진로탐색”과 관련된 내용이, 성인 집단에서는 “초월적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남.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 집단 결과를 네트워크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74>와 같음.

<표 II-74> 기타 지표 텍스트 마이닝 결과



키워드	“미래”, “꿈”, “유지”, “집중도”, “도움”, “감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집단에서 “꿈” 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성인 집단에서는 “감사” 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그려짐.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질적 효과 지표 분석의 <b>진로탐색</b>과 상응하며 성인 집단에서만 의미 있게 드러난 “감사” 와 관련된 상관관계 역시 질적 효과 지표의 <b>초월적 감사</b>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됨.</li> </ul>

① 요약: 기타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 질적 연구 결과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양적 지표 외 기타 효과가 발견됨. 청소년 집단에서 진로탐색 및 직업세계 이해, 교과과정 집중 효과가 나타남.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통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문화예술 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이외 교과과정에 대한 집중도도 향상됨. 성인 집단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기수용과 시간, 자연 등 개인을 넘어서는 대상에 대한 감사인 초월적 감사 효과가 나타남. 이러한 효과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집단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 노인 집단에서 도전의식, 건강에 도움 효과가 나타남. 노인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 활기를 느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 종합하면, 생애주기에 따라 질적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것임.
- 질적연구 결과, 양적 지표 외 기타 효과가 발견됨. 청소년, 성인, 노인 집단에서 협동능력이 발견됨. 유아와 아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집단이 개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3. 2020 문화예술교육 집단별 효과 차이

-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사전-사후 차이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거주지역)과 교육 특성 변인(교육 진행 형태, 과거 교육 참여 여부, 교육 기간)의 집단별 효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대응 표본을 제외한 독립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집단비교분석(t-test)과 다변량분석(ANOVA)을 실시함.
  
- 보다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대응표본<sup>1)</sup>을 활용하여 다변량분석(ANOVA)을 실시해야하지만, 코로나19 및 대응 표본을 구하기 어려운 현장의 한계로 인해 표본 수 부족의 문제가 존재함. 또한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집단별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독립표본<sup>2)</sup>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이때, 대응표본이 포함이 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다변량분석(ANOVA)를 고려하였으나 대응표본과 독립표본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에러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표본만을 대상으로 집단별 효과 차이를 검증하고자 다변량분석(ANOVA)를 실시함.
  
- 요약하면, 2020 문화예술교육 집단별 효과 차이 분석에서는 독립표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인구통계학적 변인, 교육 특성 변인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다만,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사후 주효과 및 변인별 사전사후에 대한 상호작용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프로그램 완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집단별 특성 및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경향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1) 대응표본: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전/사후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데이터 (Paired data)

2) 독립표본: 사전에만 참여한 참가자 혹은 사후에만 참여한 참가자들의 데이터(unpaired-data)로 사전 데이터와 사후 데이터는 서로 대응되지 않고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1)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 각각의 주효과와 생애주기와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  $p < .005$ ), 사전사후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 < .05$ ,  $p < .005$ ).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p < .05$ ).
- 생애주기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에서는 노인(3.72) > 청소년(3.56) > 성인(3.44) > 아동(3.28) > 유아(3.12) 순으로 나타남. 문화예술친숙성에서는 노인(4.48) = 성인(4.48) > 유아(4.13) > 아동(4.05) > 청소년(4.02) 순으로 나타남. 자기조절에서는 성인(3.88) > 노인(3.86) > 청소년(3.76) > 아동(3.66) > 유아(3.33) 순으로 나타남. 자아존중감에서는 성인(4.13) > 아동(4.00) > 유아(3.90) > 노인(3.89) > 청소년(3.74) 순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력에서는 성인(3.82) > 노인(3.79) > 청소년(3.53) > 아동(3.36) > 유아(3.19) 순으로 나타남. 문화수용력에서는 노인(4.29) > 성인(4.24) > 청소년(4.05) > 아동(3.96) > 유아(3.81) 순으로 나타남. 공감능력에서는 노인(4.15) > 성인(4.10) > 아동(3.87) > 청소년(3.86) > 유아(3.78) 순으로 나타남. 친밀감에서는 성인(4.07) > 노인(3.96) > 아동(3.95) > 청소년(3.94) > 유아(3.66) 순으로 나타남. 소통능력에서는 성인(4.12) = 노인(4.12) > 청소년(4.02) > 아동(4.01) > 유아(3.67) 순으로 나타남.



〈표 II-75〉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생애주기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유아	83	3.12a	0.12	4.095**
	아동	82	3.28a	0.09	
	청소년	43	3.56a	0.13	
	성인	174	3.44a	0.06	
	노인	59	3.72a	0.11	
문화예술 친숙성	유아	83	4.13a	0.10	8.103***
	아동	82	4.05a	0.08	
	청소년	43	4.02a	0.11	
	성인	174	4.48a	0.06	
	노인	59	4.48a	0.08	
자기조절	유아	83	3.33a	0.11	4.782**
	아동	82	3.66a	0.09	
	청소년	43	3.76a	0.12	
	성인	174	3.88a	0.06	
	노인	59	3.86a	0.11	
자아존중감	유아	83	3.90a	0.11	2.955*
	아동	82	4.00a	0.09	
	청소년	43	3.74a	0.12	
	성인	174	4.13a	0.06	
	노인	59	3.89a	0.10	
문제해결력	유아	83	3.19a	0.13	7.099***
	아동	82	3.36a	0.10	
	청소년	43	3.53a	0.13	
	성인	174	3.82a	0.07	
	노인	59	3.79a	0.12	
문화수용력	유아	83	3.81a	0.10	5.797***
	아동	82	3.96a	0.08	
	청소년	43	4.05a	0.10	
	성인	174	4.24a	0.05	
	노인	59	4.29a	0.09	
공감능력	유아	83	3.78a	0.10	3.424**
	아동	82	3.87a	0.08	
	청소년	43	3.86a	0.11	
	성인	174	4.10a	0.06	
	노인	59	4.15a	0.10	
친밀감	유아	83	3.66a	0.11	2.449*
	아동	82	3.95a	0.09	
	청소년	43	3.94a	0.12	
	성인	174	4.07a	0.06	
	노인	59	3.96a	0.11	
소통능력	유아	83	3.67a	0.10	3.877**
	아동	82	4.01a	0.08	
	청소년	43	4.02a	0.11	
	성인	174	4.12a	0.06	
	노인	59	4.12a	0.10	

\*p<.05, \*\*p<.005, \*\*\*p<.001

-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 자아존중감,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에서는 사후(3.59) > 사전(3.26) 순으로 나타남. 자아존중감에서는 사전(4.02) > 사후(3.84) 순으로 나타남. 친밀감에서는 사전(4.00) > 사후(3.83)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사후(3.95) > 사전(3.24) 순으로 나타남.

<표 II-76>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사전	219	3.26a	0.07	12.610***
	사후	222	3.59a	0.06	
자아존중감	사전	219	4.02a	0.06	4.451**
	사후	222	3.84a	0.06	
친밀감	사전	219	4.00a	0.06	4.090*
	사후	222	3.83a	0.06	
코로나19	사전	219	3.24a	0.09	30.632***
	사후	222	3.95a	0.09	

\*p<.05, \*\*p<.005, \*\*\*p<.001

-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은 유아, 아동, 청소년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는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창의성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경우 사후보다 사전의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 집단에서는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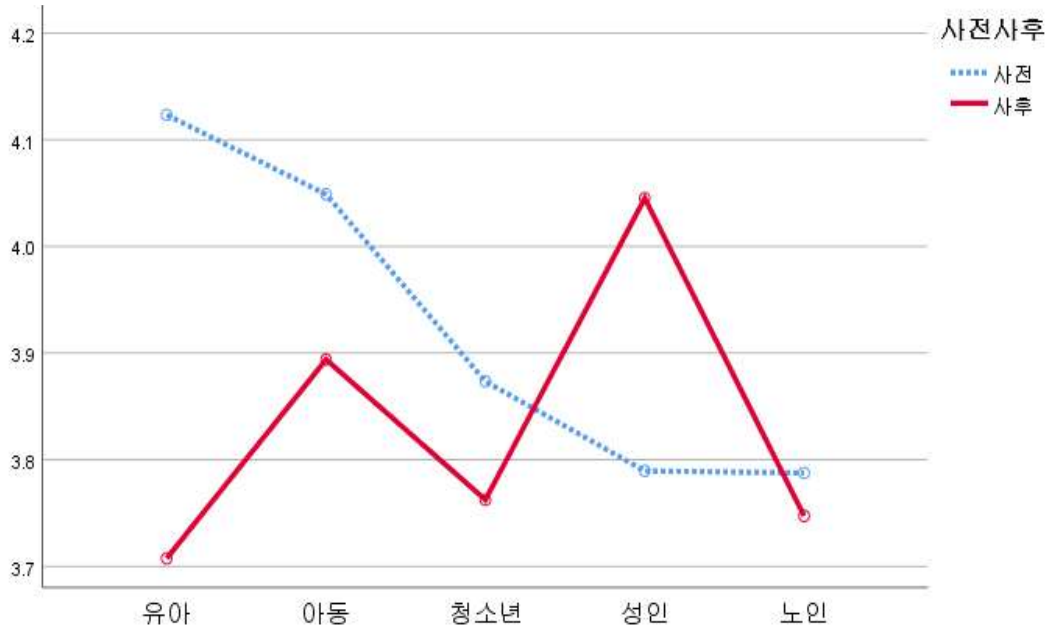
<표 II-77>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생애주기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 친숙성	유아	16	4.50a	0.18	67	3.75a	0.09	4.112**
	아동	52	4.16a	0.10	30	3.94a	0.13	
	청소년	27	4.03a	0.13	16	4.01a	0.17	
	성인	104	4.46a	0.07	70	4.50a	0.08	
	노인	20	4.37a	0.16	39	4.60a	0.12	

\*p<.05,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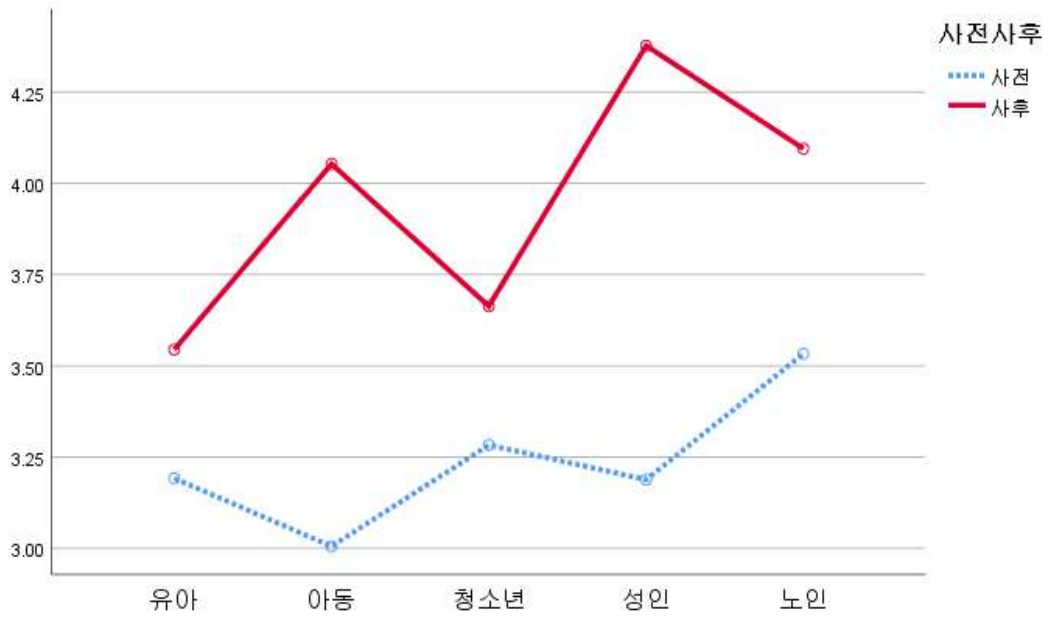
〈표 II-78〉 창의성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생애주기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창의성	유아	16	4.12a	0.19	67	3.71a	0.10	2.522*
	아동	52	4.05a	0.10	30	3.89a	0.14	
	청소년	27	3.87a	0.14	16	3.76a	0.19	
	성인	104	3.79a	0.07	70	4.05a	0.09	
	노인	20	3.79a	0.17	39	3.75a	0.13	

\*p<.05, \*\*p<.005, \*\*\*p<.001

<표 II-79> 코로나19에 대한 생애주기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생애주기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코로나19	유아	16	3.19a	0.29	67	3.54a	0.14	2.416*
	아동	52	3.01a	0.15	30	4.05a	0.20	
	청소년	27	3.28a	0.22	16	3.66a	0.28	
	성인	104	3.19a	0.11	70	4.38a	0.13	
	노인	20	3.53a	0.25	39	4.10a	0.19	

\*p<.05, \*\*p<.005, \*\*\*p<.001

## 2)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성별과 사전·사후 각각의 주효과와 성별과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  $p < .005$ ), 사전사후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 소통능력,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 < .05$ ,  $p < .005$ ). 성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표현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p < .05$ ).
- 성별의 주효과는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에서는 여성(4.01) > 남성(3.83) 순으로 나타남. 친밀감에서는 여성(4.00) > 남성(3.77) 순으로 나타남. 소통능력에서는 여성(4.05) > 남성(3.84) 순으로 나타남.

〈표 II-80〉 성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공감능력	남성	125	3.83a	0.06	5.534*
	여성	309	4.01a	0.04	
친밀감	남성	125	3.77a	0.07	7.639*
	여성	309	4.00a	0.04	
소통능력	남성	125	3.84a	0.06	7.872*
	여성	309	4.05a	0.04	

\* $p < .05$ , \*\* $p < .005$ , \*\*\* $p < .001$

-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 소통능력, 코로나 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에서는 사후(3.56) > 사전(3.36) 순으로 나타남. 자아존중감에서는 사전(4.06) > 사후(3.84) 순으로 나타남. 친밀감에서는 사전(4.00) > 사후(3.77) 순으로 나타남. 소통능력에서는 사전(4.03) > 사후(3.86)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사후(3.98) > 사전(3.2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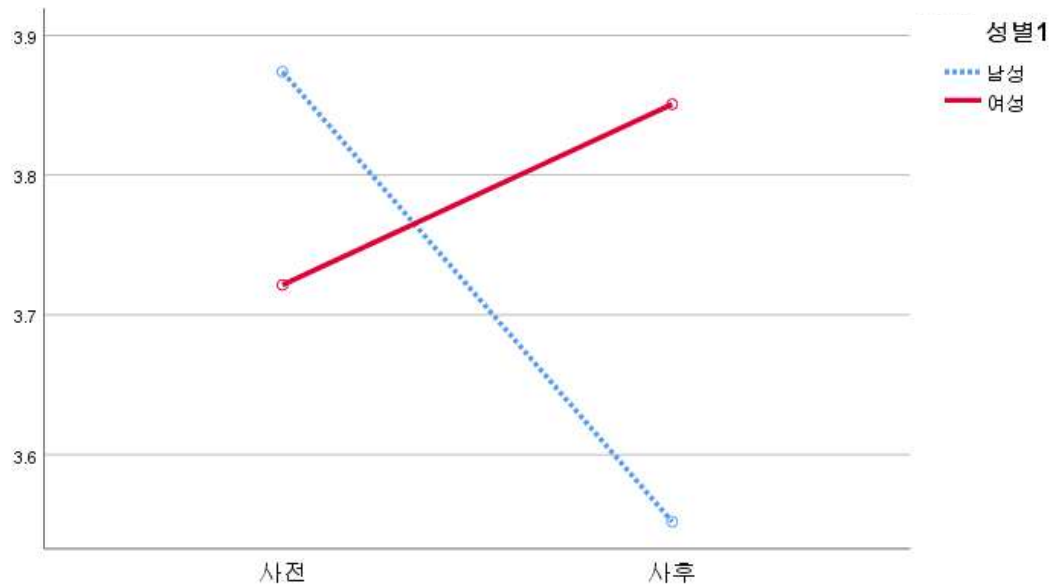
<표 II-81>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사전	219	3.36a	0.07	5.552*
	사후	215	3.56a	0.06	
자아존중감	사전	219	4.06a	0.07	7.502**
	사후	215	3.84a	0.05	
친밀감	사전	219	4.00a	0.06	8.012*
	사후	215	3.77a	0.05	
소통능력	사전	219	4.03a	0.06	5.069*
	사후	215	3.86a	0.05	
코로나19	사전	219	3.20a	0.09	40.068***
	사후	215	3.98a	0.08	

\*p<.05, \*\*p<.005, \*\*\*p<.001

- 성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표현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자기표현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효과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표 II-82> 자기표현력에 대한 성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성별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기표현	남성	49	3.87a	0.16	76	3.55a	0.10	5.817*
	여성	170	3.72a	0.07	139	3.85a	0.07	

\*p<.05, \*\*p<.005, \*\*\*p<.001



### 3)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거주지역과 사전·사후 각각의 주효과와 거주지역과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  $p < .005$ ), 사전사후에 따라서는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 < .001$ ). 거주지역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p < .05$ ).
- 거주지역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에서는 읍, 면 지역(3.65) > 시 지역(3.40) 순으로 나타남. 자기조절에서는 읍, 면 지역(4.01) > 시 지역(3.68) 순으로 나타남. 자아존중감에서는 읍, 면 지역(4.24) > 시 지역(3.93) 순으로 나타남. 창의성에서는 읍, 면 지역(4.15) > 시 지역(3.82) 순으로 나타남. 행복감에서는 읍, 면 지역(4.29) > 시 지역(3.88) 순으로 나타남. 공감능력에서는 읍, 면 지역(4.30) > 시 지역(3.91) 순으로 나타남. 친밀감에서는 읍, 면 지역(4.21) > 시 지역(3.90) 순으로 나타남. 소통능력에서는 읍, 면 지역(4.21) > 시 지역(3.96) 순으로 나타남.

<표 II-83>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거주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시 지역	383	3.40a	0.04	3.946*
	읍, 면 지역	49	3.65a	0.12	
자기조절	시 지역	383	3.68a	0.04	7.348*
	읍, 면 지역	49	4.01a	0.11	
자아존중감	시 지역	383	3.93a	0.04	6.765*
	읍, 면 지역	49	4.24a	0.11	
창의성	시 지역	383	3.82a	0.04	7.931*
	읍, 면 지역	49	4.15a	0.11	
행복감	시 지역	383	3.88a	0.04	10.160**
	읍, 면 지역	49	4.29a	0.12	
공감능력	시 지역	383	3.91a	0.04	12.809***
	읍, 면 지역	49	4.30a	0.10	
친밀감	시 지역	383	3.90a	0.04	6.961*
	읍, 면 지역	49	4.21a	0.11	
소통능력	시 지역	383	3.96a	0.04	5.281*
	읍, 면 지역	49	4.21a	0.10	

\* $p < .05$ , \*\* $p < .005$ , \*\*\* $p < .001$

-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후(4.13) > 사전(3.05) 순으로 나타남.

〈표 II-84〉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F
코로나19	사전	219	3.05a	0.12	37.870***
	사후	213	4.13a	0.13	

\*p<.05, \*\*p<.005, \*\*\*p<.001

- 거주지역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p<.05)

#### 4) 교육 진행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교육 진행 형태와 사전·사후 각각의 주효과와 교육 진행 형태와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교육 진행 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없었고 ( $p < .05$ ), 사전사후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 친밀감,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p < .05$ ,  $p < .005$ ). 교육 진행 형태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친숙성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p < .05$ ).
- 교육 진행 형태의 주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없었음 ( $p < .05$ ).
-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 친밀감,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친숙성에서는 사전(4.36) > 사후(3.92) 순으로 나타남. 창의성에서는 사전(3.98) > 사후(3.70) 순으로 나타남. 친밀감에서는 사전(4.05) > 사후(3.71)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사후(4.01) > 사전(3.1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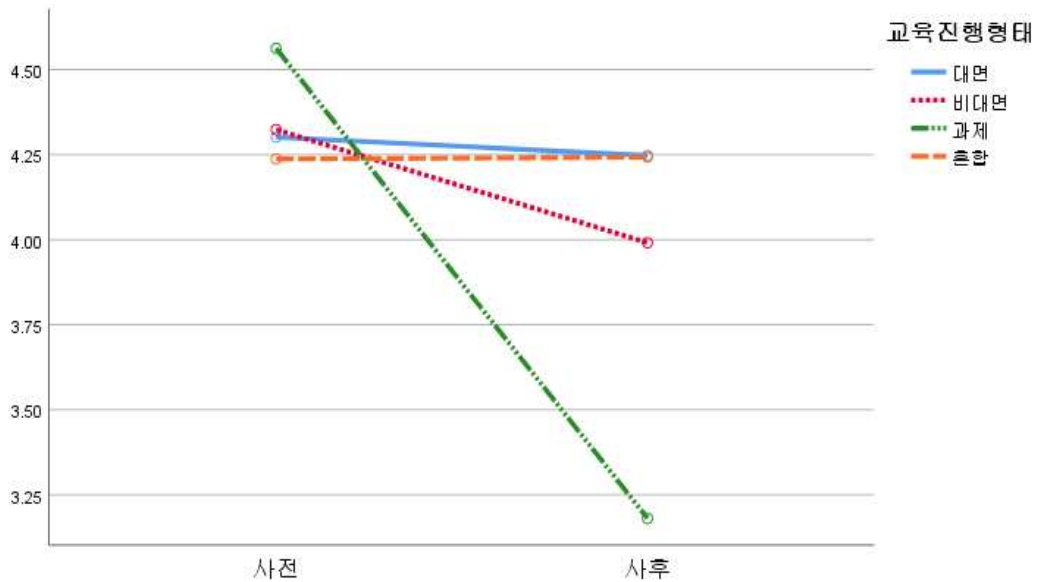
〈표 II-85〉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친숙성	사전	219	4.36a	0.07	11.474**
	사후	213	3.92a	0.11	
창의성	사전	219	3.98a	0.07	3.956*
	사후	213	3.70a	0.12	
친밀감	사전	219	4.05a	0.07	5.880*
	사후	213	3.71a	0.12	
코로나19	사전	219	3.12a	0.11	17.594***
	사후	213	4.01a	0.18	

\* $p < .05$ , \*\* $p < .005$ , \*\*\* $p < .001$

- 교육 진행 형태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친숙성은 대면, 비대면, 과제, 혼합에서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86> 문화예술친숙성에 대한 교육 진행 형태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성별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문화예술 친숙성	대면	120	4.00a	0.07	135	3.89a	3.479*
	비대면	53	4.10a	0.11	21	3.40a	
	과제	13	4.10a	0.21	3	3.72a	
	혼합	33	4.03a	0.13	54	3.85a	

\*p<.05, \*\*p<.005, \*\*\*p<.001

### 5) 과거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 각각의 주효과와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  $p < .005$ ), 사전사후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문제해결력,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 < .05$ ,  $p < .005$ ). 거주지역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p < .05$ ).
- 교육 참여 여부의 주효과는 문화예술친숙성,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친숙성에서는 있음(4.30) > 없음(3.84) 순으로 나타남. 문화수용력에서는 있음(4.12) > 없음(3.74)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있음(3.62) > 없음(3.19) 순으로 나타남.

〈표 II-87〉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교육 참여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친숙성	있음	392	4.30a	0.04	12.757***
	없음	49	3.84a	0.12	
문화수용력	있음	392	4.12a	0.03	10.649**
	없음	49	3.74a	0.11	
코로나19	있음	392	3.62a	0.06	4.699*
	없음	49	3.19a	0.19	

\* $p < .05$ , \*\* $p < .005$ , \*\*\* $p < .001$

-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문제해결력, 코로나19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감수성에서는 사후(3.56) > 사전(3.07) 순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력에서는 사후(3.64) > 사전(3.28)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사후(3.96) > 사전(2.8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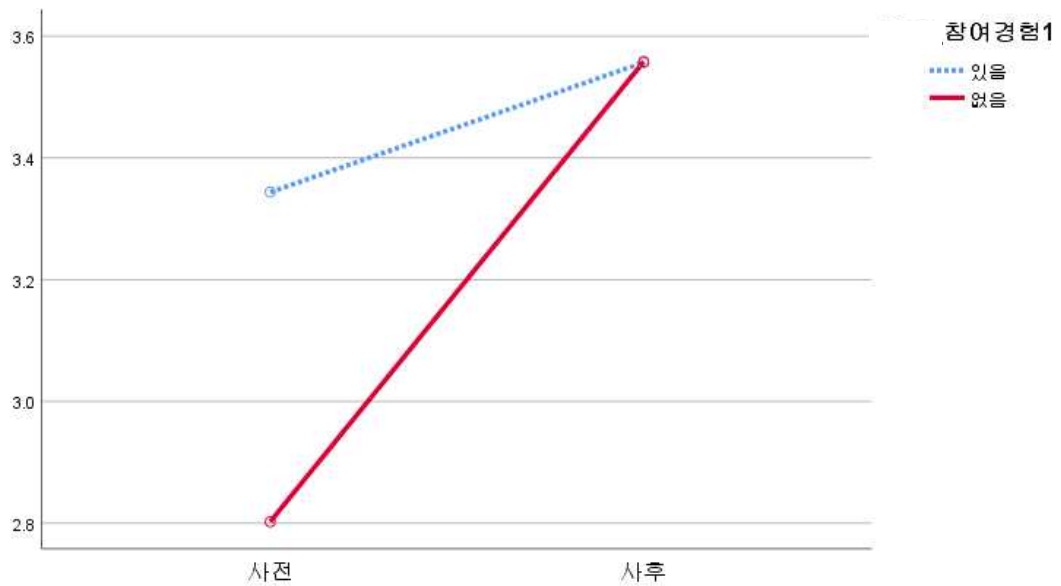
〈표 II-88〉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사전	219	3.07a	0.11	12.682***
	사후	222	3.56a	0.08	
문제해결력	사전	219	3.28a	0.12	6.459*
	사후	222	3.64a	0.08	
코로나19	사전	219	2.85a	0.16	35.270***
	사후	222	3.96a	0.11	

\* $p < .05$ , \*\* $p < .005$ , \*\*\* $p < .001$

-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감수성은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문제해결력은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문화수용력은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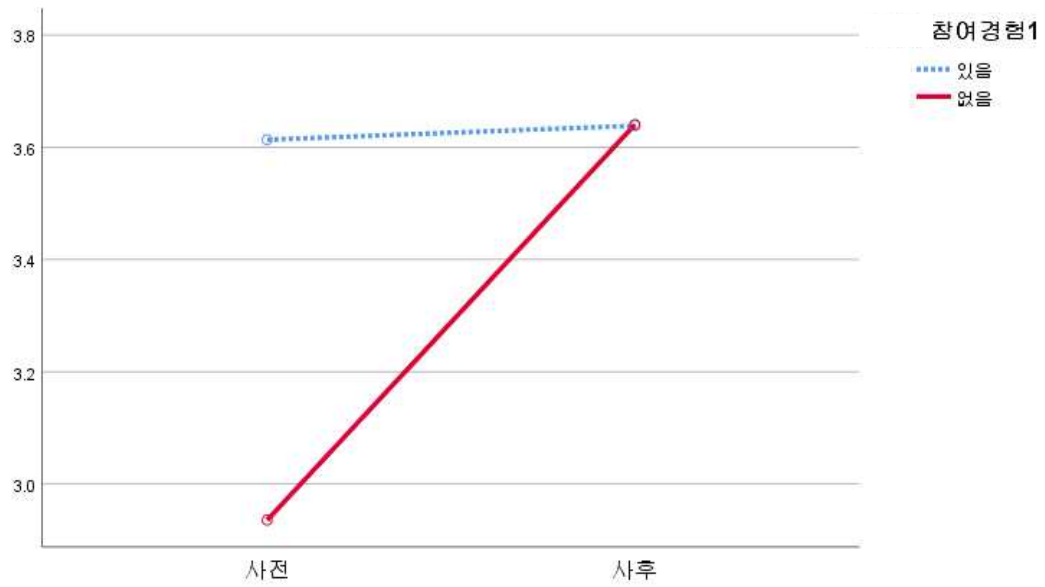
<표 II-89> 문화예술감수성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성별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 감수성	있음	205	3.34a	0.06	187	3.56a	0.06	3.986*
	없음	14	2.80a	0.22	35	3.56a	0.14	

\*p<.05,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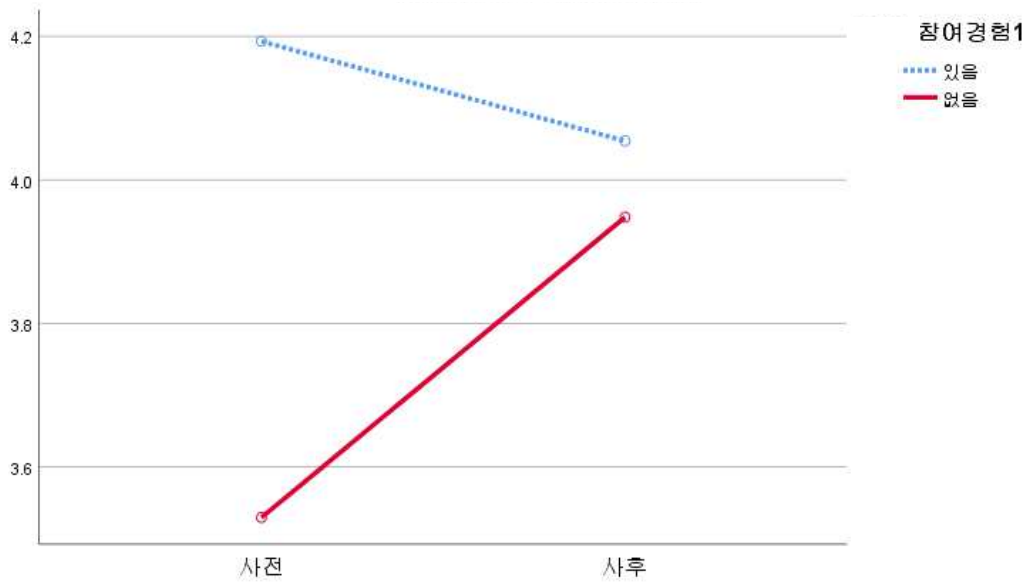
<표 II-90> 문제해결력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성별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력	있음	205	3.61a	0.06	187	3.64a	0.06	5.613*
	없음	14	2.94a	0.24	35	3.64a	0.15	

\*p<.05, \*\*p<.005, \*\*\*p<.001

<표 II-91> 문화수용력에 대한 교육 참여 여부와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성별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문화수용력	있음	205	4.19a	0.05	187	4.05a	0.05	6.156*
	없음	14	3.53a	0.18	35	3.95a	0.12	

\*p<.05, \*\*p<.005, \*\*\*p<.001



## 6) 교육 기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 차이

-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교육 기간과 사전·사후 각각의 주효과와 교육 기간과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교육 기간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력,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소통능력,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5$ ), 사전사후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감수성, 코로나19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 < .05$ ,  $p < .005$ ). 교육 기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p < .05$ ).
- 교육 기간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력,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소통능력,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에서는 3년 이상(3.96) > 1-3년 미만(3.38) > 1년 미만(3.28) 순으로 나타남. 문화예술친숙성에서는 3년 이상(4.50) > 1년 미만(4.24) > 1-3년 미만(4.17) 순으로 나타남. 자기조절에서는 3년 이상(4.06) > 1년 미만(3.67) > 1-3년 미만(3.65) 순으로 나타남. 자기표현력에서는 3년 이상(3.97) > 1-3년 미만(3.84) > 1년 미만(3.62) 순으로 나타남. 창의성에서는 3년 이상(4.18) > 1-3년 미만(3.82) > 1년 미만(3.77) 순으로 나타남. 행복감에서는 3년 이상(4.17) > 1년 미만(3.89) > 1-3년 미만(3.86) 순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력에서는 3년 이상(3.96) > 1-3년 미만(3.58) > 1년 미만(3.49) 순으로 나타남. 문화수용력에서는 3년 이상(4.40) > 1-3년 미만(4.04) > 1년 미만(4.01) 순으로 나타남. 공감능력에서는 3년 이상(4.27) > 1-3년 미만(3.89) = 1년 미만(3.89) 순으로 나타남. 소통능력에서는 3년 이상(4.25) > 1년 미만(3.94) > 1-3년 미만(3.92)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1-3년 미만(3.78) > 3년 이상(3.69) > 1년 미만(3.45) 순으로 나타남.

〈표 II-92〉 교육 기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교육 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1년 미만	224	3.28a	0.06	20.564***
	1-3년 미만	129	3.38a	0.07	
	3년 이상	84	3.96a	0.09	
문화예술 친숙성	1년 미만	224	4.24a	0.05	5.372*
	1-3년 미만	129	4.17a	0.07	
	3년 이상	84	4.50a	0.08	
자기조절	1년 미만	224	3.67a	0.05	8.333***
	1-3년 미만	129	3.65a	0.07	
	3년 이상	84	4.06a	0.09	
자기표현력	1년 미만	224	3.62a	0.06	4.906*
	1-3년 미만	129	3.84a	0.08	
	3년 이상	84	3.97a	0.10	
창의성	1년 미만	224	3.77a	0.05	8.723***
	1-3년 미만	129	3.82a	0.07	
	3년 이상	84	4.18a	0.08	
행복감	1년 미만	224	3.89a	0.06	4.145*
	1-3년 미만	129	3.86a	0.08	
	3년 이상	84	4.17a	0.09	
문제해결력	1년 미만	224	3.49a	0.06	8.309***
	1-3년 미만	129	3.58a	0.08	
	3년 이상	84	3.96a	0.10	
문화수용력	1년 미만	224	4.01a	0.05	10.065***
	1-3년 미만	129	4.04a	0.06	
	3년 이상	84	4.40a	0.08	
공감능력	1년 미만	224	3.89a	0.05	9.382***
	1-3년 미만	129	3.89a	0.06	
	3년 이상	84	4.27a	0.08	
소통능력	1년 미만	224	3.94a	0.05	6.466**
	1-3년 미만	129	3.92a	0.06	
	3년 이상	84	4.25a	0.08	
코로나19	1년 미만	224	3.45a	0.08	3.326*
	1-3년 미만	129	3.78a	0.10	
	3년 이상	84	3.69a	0.13	

\*p<.05, \*\*p<.005, \*\*\*p<.001

-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문화예술감수성, 코로나19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에서는 사후(3.66) > 사전(3.42)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에서는 사후(4.10) > 사전(3.1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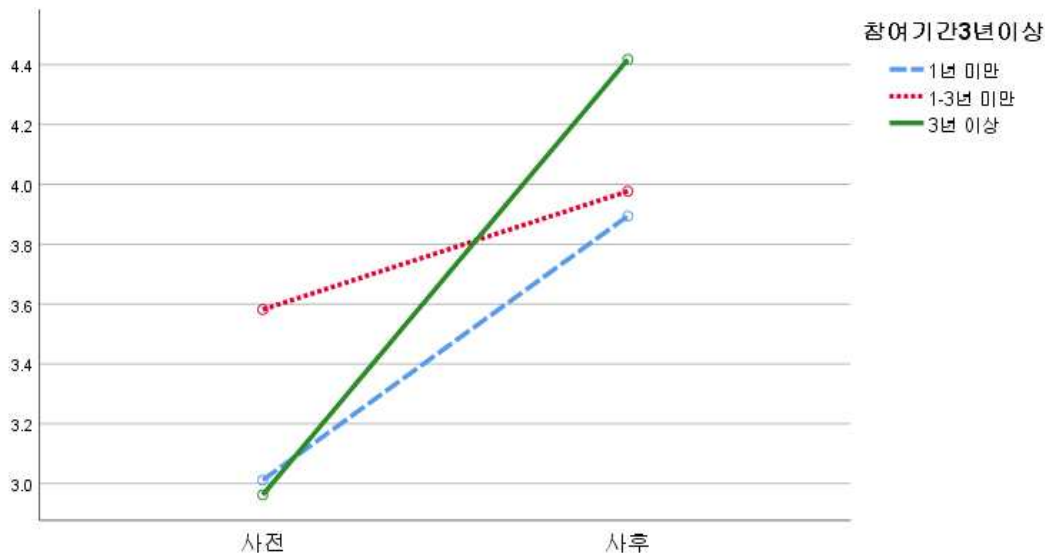
<표 II-93> 사전사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사전사후	n	평균	표준편차	F
문화예술 감수성	사전	219	3.42a	0.06	8.037*
	사후	218	3.66a	0.06	
코로나19	사전	219	3.19a	0.08	56.811***
	사후	218	4.10a	0.09	

\*p<.05, \*\*p<.005, \*\*\*p<.001

- 교육 기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 효과는 코로나19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는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4>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기간과 사전사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성별	사전			사후			F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코로나19	1년 미만	100	3.01a	0.11	124	3.89a	0.11	5.652**
	1-3년 미만	68	3.58a	0.17	61	3.98a	0.15	
	3년 이상	51	2.96a	0.16	33	4.42a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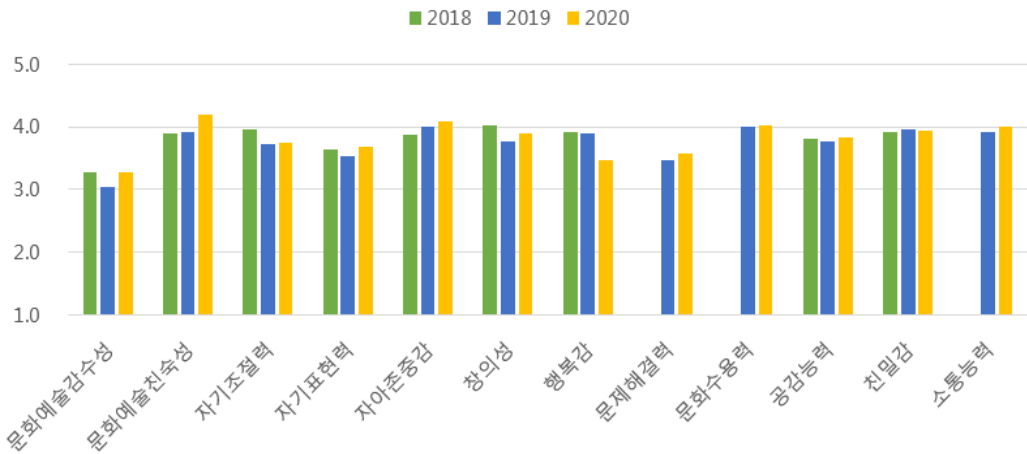
\*p<.05, \*\*p<.005, \*\*\*p<.001

#### 4. 문화예술교육 효과 3개년(2018-2020) 비교

##### 1) 2018-2020 대응표본 t-test 효과 비교

###### (1) 전체

〈표 II-95〉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181	3.27	3.89	3.96	3.64	3.87	4.03	3.92	-	-	3.81	3.91	3.97
2019	722	3.05	3.91	3.73	3.54	4.00	3.77	3.89	3.46	4.00	3.77	3.96	3.91
2020	119	3.28	4.20	3.74	3.68	4.08	3.90	3.47	3.57	4.03	3.83	3.94	4.01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전체 집단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년도 사전 조사의 경우 문제해결력과 문화수용력이 측정되지 않았음.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친밀감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아존중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 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음.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 창의성, 행복감, 공감능력, 소통능력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에 비해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낮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력과 문화수용력은 2019년도 참여집단에 비해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의 크기가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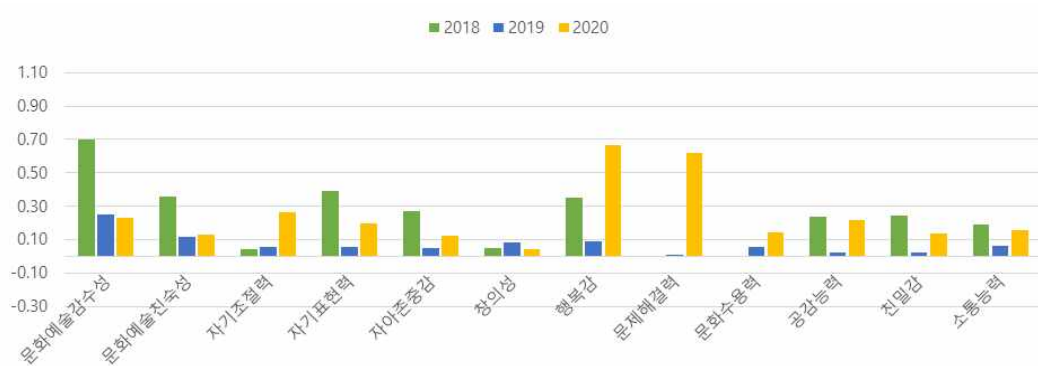
<표 II-96>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181	3.97	4.25	4.00	4.03	4.14	4.08	4.27	3.83	4.18	4.05	4.16	4.16
2019	722	3.29	4.03	3.78	3.60	4.04	3.85	3.98	3.52	4.06	3.79	3.98	3.97
2020	119	3.51	4.33	4.00	3.87	4.20	3.94	4.14	3.75	4.17	4.05	4.08	4.17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전체 집단에 대한 사후 평균 점수를 비교함.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자아존중감, 행복감, 문화수용력, 친밀감, 소통능력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지표에 대하여,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와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비슷한 수준을 보임. 반면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는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집단과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을 밀도는 경향이 나타남.

〈표 II-97〉 2018-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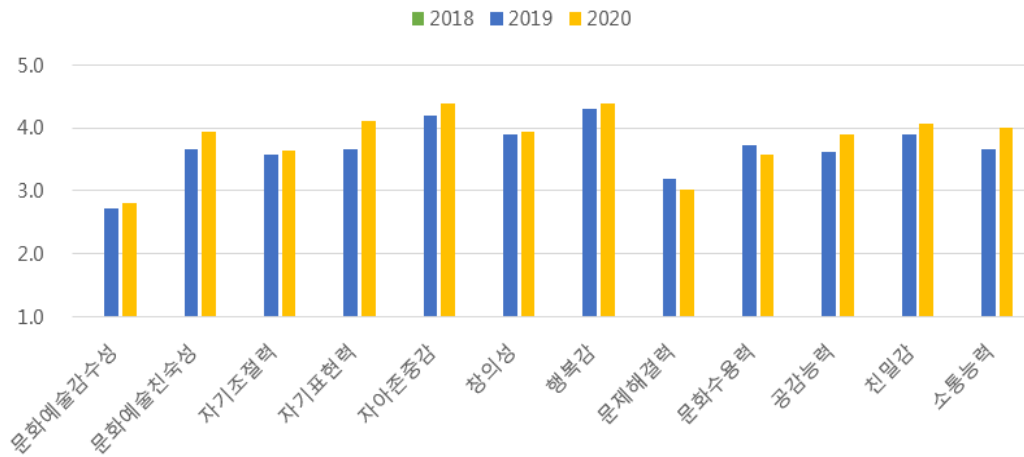


년 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181	3.97 (0.70)	4.25 (0.36)	4.00 (0.04)	4.03 (0.39)	4.14 (0.27)	4.08 (0.05)	4.27 (0.35)	-	-	4.05 (0.24)	4.16 (0.25)	4.16 (0.19)
2019	722	3.29 (0.25)	4.03 (0.11)	3.78 (0.05)	3.60 (0.06)	4.04 (0.05)	3.85 (0.08)	3.98 (0.09)	3.52 (0.01)	4.06 (0.05)	3.79 (0.02)	3.98 (0.02)	3.97 (0.06)
2020	119	3.51 (0.23)	4.33 (0.13)	4.00 (0.26)	3.87 (0.20)	4.20 (0.12)	3.94 (0.04)	4.14 (0.66)	3.75 (0.62)	4.17 (0.14)	4.05 (0.22)	4.08 (0.13)	4.17 (0.16)

- 2018-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비교를 위해 연도별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해 각 문화예술 효과지표의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였음. 연도별로 조사에 응한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효과 차이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각 연도의 교육 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8년도의 경우,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하여 문제해결력과 문화수용력이 특수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측정되지 않았음. 그 외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행복감에 대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의 경우,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그 크기가 크지 않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의 경우,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행복감, 문제해결력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2018-2020년도에 공통적으로 행복감에 대한 효과크기가 비교적 컸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공통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에 대한 효과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sup>3)</sup>

## (2) 유아

〈표 II-98〉 2018-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0	-	-	-	-	-	-	-	-	-	-	-	-
2019	86	2.72	3.66	3.57	3.65	4.19	3.90	4.29	3.20	3.73	3.62	3.89	3.66
2020	12	2.81	3.94	3.64	4.11	4.39	3.94	4.39	3.03	3.58	3.89	4.06	3.94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유아 집단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년도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전 평균이 2019, 2020년도 참여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사전 평균이 2019, 2020년도 참여집단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의 경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에 비해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더 높았음.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의 경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에 비해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더 낮음.

3)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종단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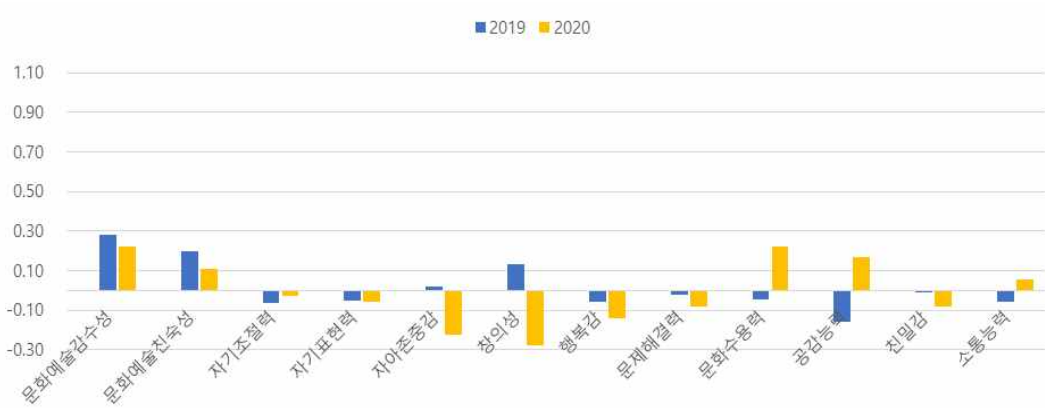
〈표 II-99〉 2018-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0	-	-	-	-	-	-	-	-	-	-	-	-
2019	86	3.00	3.86	3.51	4.11	4.21	4.03	4.24	3.18	3.68	3.47	3.88	3.91
2020	12	3.03	4.06	3.61	4.06	4.17	3.67	4.25	2.94	3.81	4.06	3.94	4.01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유아 집단에 대한 사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 년도의 경우, 유아 대상 사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유아 집단 대응표본이 부재함.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과 문제해결력의 사후 평균이 2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행복감, 친 밀감의 사후 평균이 2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문제해결력의 경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 후 평균이 더 높았음. 반면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자기조절, 행복감, 문 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은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2019년 참여집단 보다 더 높았음.

<표 II-100> 2018-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년 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 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0	-	-	-	-	-	-	-	-	-	-	-	-
2019	86	3.00 (0.28)	3.86 (0.20)	3.51 (-0.07)	3.59 (-0.05)	4.21 (0.02)	4.03 (0.13)	4.24 (-0.06)	3.18 (-0.02)	3.68 (-0.04)	3.47 (-0.16)	3.88 (-0.01)	3.61 (-0.05)
2020	12	3.03 (0.22)	4.06 (0.11)	3.61 (-0.03)	4.06 (-0.05)	4.17 (-0.22)	3.67 (-0.28)	4.25 (-0.14)	2.94 (-0.08)	3.81 (0.22)	4.06 (0.17)	3.97 (-0.08)	4.00 (0.05)

- 2018-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비교를 위해 연도별 유아 대응표본 집단에 대해 각 문화예술 효과지표의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였음. 연도별로 조사에 응한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효과 차이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각 연도의 교육 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8년도의 경우, 사전-사후 모두 응답한 유아의 대응표본이 존재하지 않았음.
- 2019년도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창의성을 제외한 전 지표에 대하여 음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감소하였음.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의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공감능력에 대한 효과크기는 크게 감소함.
- 2020년도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소통능력을 제외한 전 지표에 대하여 음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감소하였음.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수용력의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창의성의 효과크기는 크게 감소함.
- 이를 종합하면, 유아를 대상으로한 2019-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문화예술감수성을 포함한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문화예술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 (3)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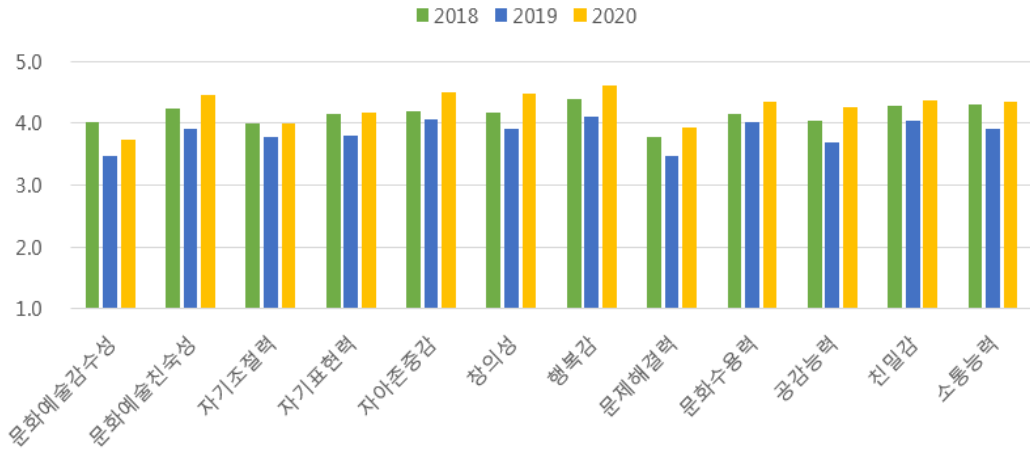
〈표 II-101〉 2018-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93	3.19	3.79	-	3.63	4.05	4.03	4.23	-	-	-	4.06	-
2019	569	3.27	3.76	3.82	3.54	4.10	3.93	4.05	3.40	3.99	3.68	4.07	3.85
2020	27	3.35	4.32	3.73	3.96	4.3	4.25	4.46	3.63	4.30	4.05	4.19	4.14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아동 집단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년도의 경우, 자기조절,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소통능력이 아동에 대해 측정되지 않았음.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전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 행복감, 친밀감의 사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음. 문화예술진숙성, 자기표현력, 창의성, 행복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에 비해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낮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소통능력의 경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평균 점수보다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이 더 높았음. 자기조절은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평균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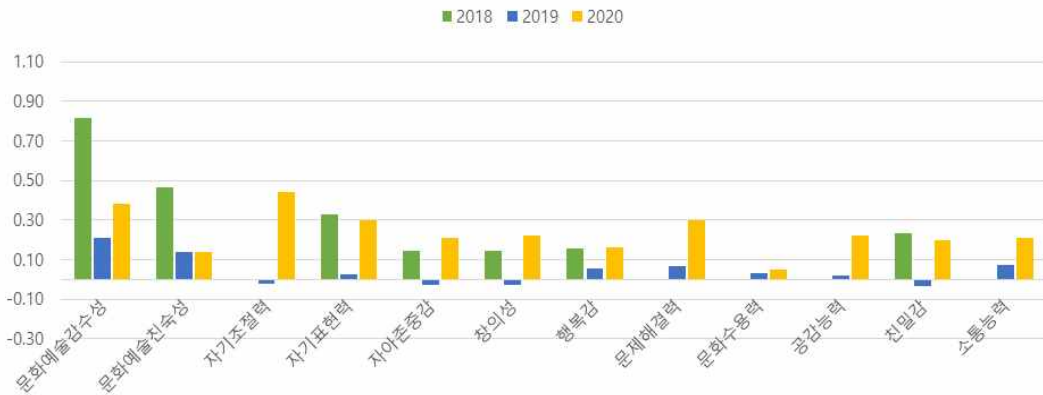
<표 II-102> 2018-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93	4.01	4.25	4.00	4.15	4.20	4.18	4.39	3.77	4.16	4.05	4.29	4.31
2019	569	3.48	3.90	3.78	3.80	4.07	3.90	4.10	3.47	4.02	3.70	4.04	3.92
2020	27	3.73	4.46	4.00	4.17	4.51	4.47	4.62	3.93	4.35	4.27	4.38	4.35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아동 집단에 대한 사후 평균 점수를 비교함.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았음. 행복감, 자아존중감, 친밀감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지표에 대하여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보다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은 비슷하거나 높은 점수를 보임. 반면,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 점수는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집단과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표 II-103> 2018-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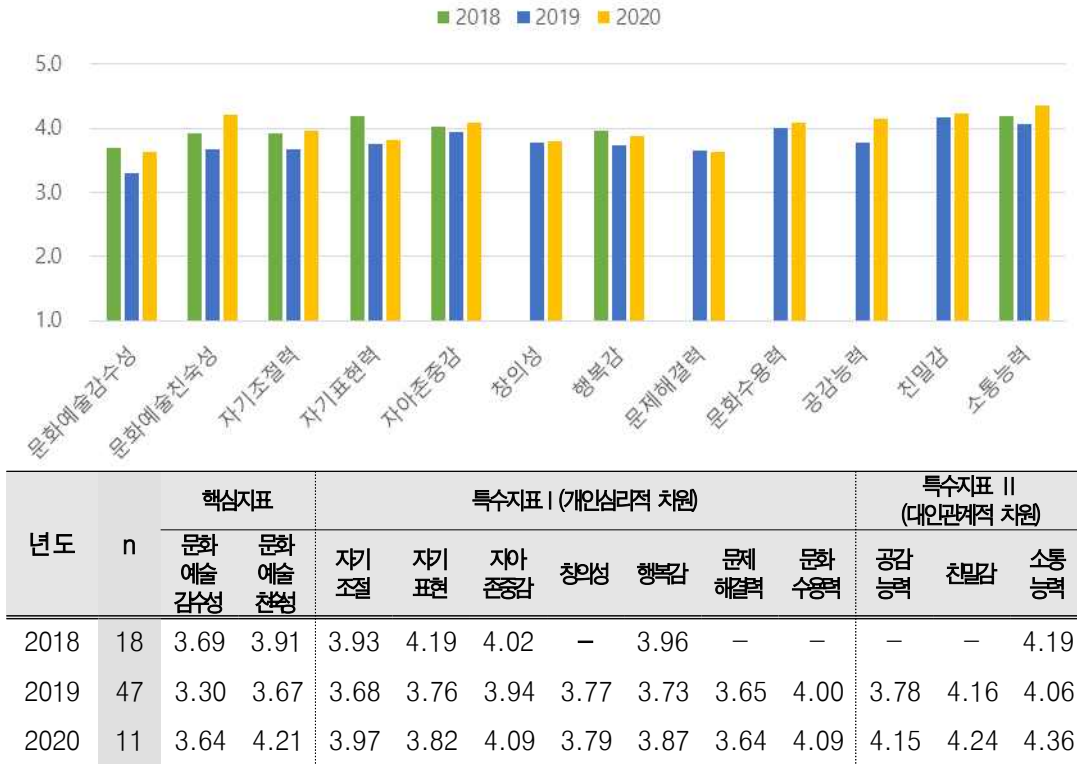


년 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예 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존 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93	4.10 (0.82)	4.25 (0.46)	-	3.96 (0.33)	4.20 (0.14)	4.18 (0.14)	4.39 (0.16)	-	-	-	4.29 (0.23)	-
2020	569	3.48 (0.21)	3.90 (0.14)	3.80 (-0.02)	3.56 (0.02)	4.07 (-0.03)	3.90 (-0.03)	4.10 (0.05)	3.47 (0.07)	4.02 (0.03)	3.70 (0.02)	4.04 (-0.04)	3.92 (0.07)
2020	27	3.73 (0.38)	4.46 (0.14)	4.17 (0.44)	4.26 (0.30)	4.51 (0.21)	4.47 (0.22)	4.62 (0.16)	3.93 (0.30)	4.35 (0.05)	4.27 (0.22)	4.38 (0.20)	4.35 (0.21)

- 2018-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비교를 위해 연도별 아동 대응표본 집단에 대해 각 문화예술 효과지표의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였음. 연도별로 조사에 응한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효과 차이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각 연도의 교육 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8년도의 경우,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하여 자기조절력,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소통능력이 특수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측정되지 않았음. 그 외 전 지표에서는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친밀감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은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임.
- 2019년도의 경우, 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 창의성, 친밀감을 제외한 전 지표에서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그러나 문화예술감수성의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해 다른 효과 지표들의 상승폭이 크지 않으며, 효과가 감소한 지표들의 효과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의 경우,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함. 특히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력,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에 대한 효과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아동을 대상으로한 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추가적으로 2018년도의 문화예술친숙성과 2019년도의 자기조절력의 효과 크기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자기표현력은 2018년도와 2020년도 모두에서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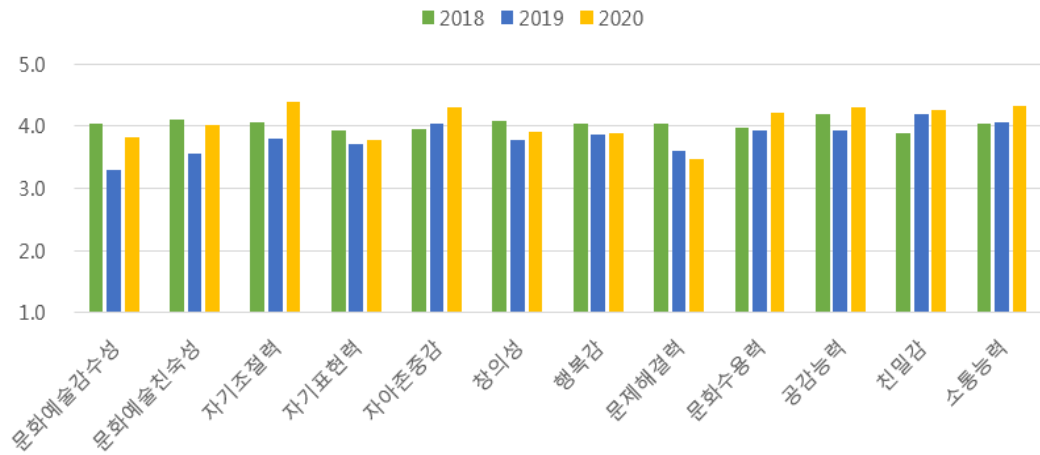
#### (4) 청소년

〈표 II-104〉 2018-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년도 청소년 집단 사전 조사의 경우, 창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이 측정되지 않았음.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 행복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점수가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진숙성, 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 소통능력의 경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점수가 가장 낮았음. 창의성,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도 참여 집단의 사전 평균이 높았음.

<표 II-105> 2018-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18	4.04	4.11	4.06	3.94	3.96	4.09	4.04	4.04	3.98	4.20	3.89	4.04
2019	47	3.29	3.57	3.80	3.72	4.05	3.77	3.87	3.61	3.94	3.94	4.19	4.07
2020	11	3.82	4.03	4.39	3.79	4.30	3.91	3.88	3.48	4.21	4.30	4.27	4.33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후 평균 점수를 비교함.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소통능력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및 친숙성, 자기표현력, 창의성, 행복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고 2019년의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자기조절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의 경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고 2019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자아존중감, 친밀감, 소통능력의 경우, 2018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고, 2020년도 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력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고,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표 II-106〉 2018-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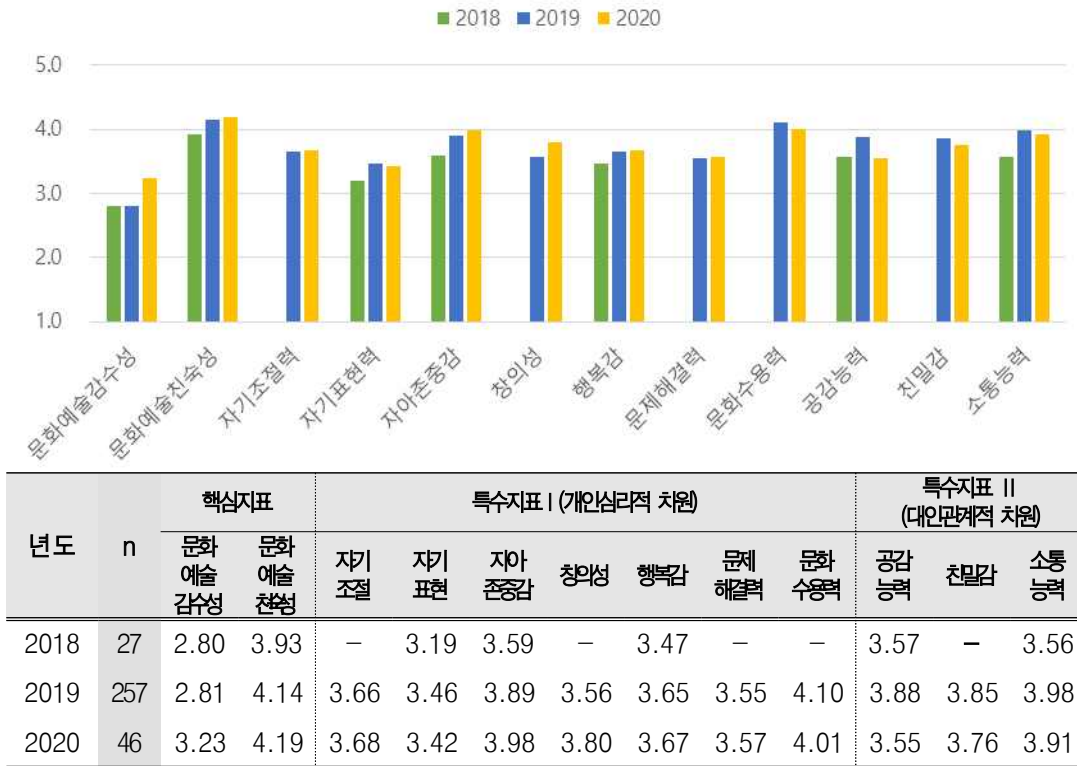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18	404 (0.35)	411 (0.20)	406 (0.13)	394 (-0.24)	396 (-0.06)	-	404 (0.07)	-	-	-	-	404 (-0.15)
2019	47	329 (-0.01)	357 (-0.11)	406 (0.12)	394 (-0.04)	396 (0.11)	377 (-0.01)	387 (0.14)	361 (-0.04)	394 (-0.06)	394 (0.16)	419 (0.03)	407 (0.01)
2020	11	382 (0.18)	403 (-0.19)	439 (0.42)	379 (-0.03)	430 (0.21)	391 (-0.12)	388 (0.12)	348 (-0.15)	421 (0.12)	430 (0.15)	427 (0.03)	433 (-0.03)

- 2018-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비교를 위해 연도별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해 각 문화예술 효과지표의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였음. 연도별로 조사에 응한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효과 차이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각 연도의 교육 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8년도의 경우,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하여 창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이 특수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측정되지 않았음.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력, 행복감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그 외 지표에서는 음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감소하였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의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자기표현력의 효과 크기는 크게 감소함.
- 2019년도의 경우, 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그 외 지표에서는 음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감소함.
- 2020년도의 경우,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소통능력을 제외한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자기조절력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은 자기조절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행복감의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남. 그러나 자기표현력은 2018-2020년도 모두에서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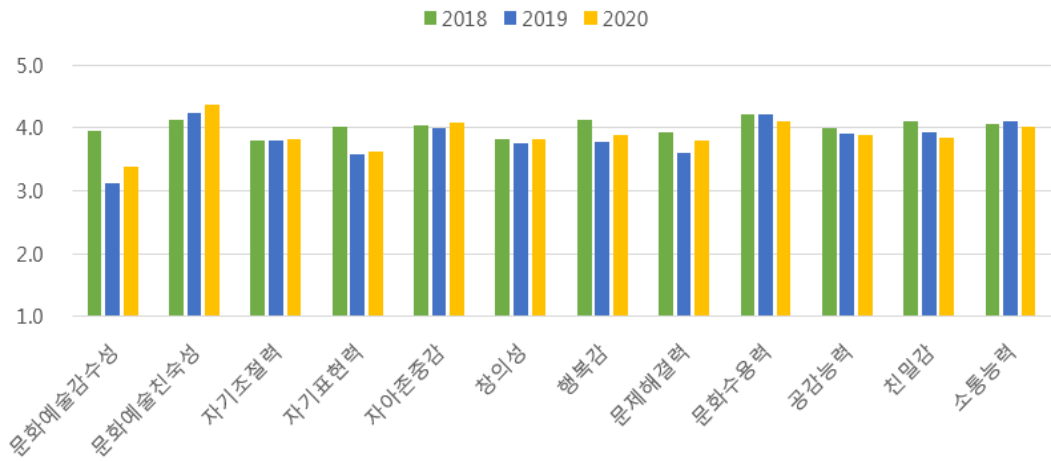
(5) 성인

<표 II-107> 2018-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성인 집단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년도 성인 대상 사전조사의 경우, 자기조절, 창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친밀감이 측정되지 않았음.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 집단의 사전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음. 자기표현력, 행복감, 소통능력의 경우, 2019년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음. 공감능력의 경우, 2019년 참여집단의 사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음. 자기조절, 창의성, 문제 해결력의 경우, 2019년도 참여집단에 비해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이 높았으며, 문화수용력과 친밀감은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평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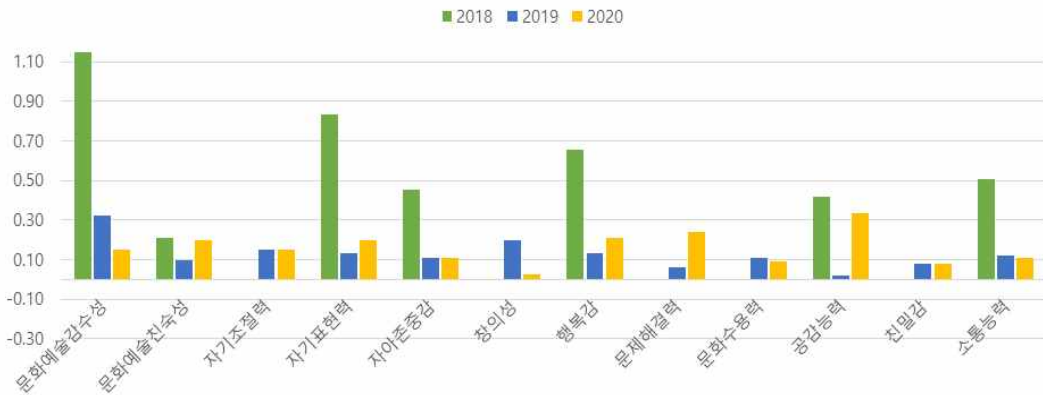
〈표 II-108〉 2018-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27	3.95	4.14	3.81	4.02	4.05	3.83	4.12	3.93	4.21	3.99	4.10	4.06
2019	257	3.13	4.24	3.81	3.59	4.00	3.75	3.78	3.61	4.21	3.90	3.93	4.10
2020	46	3.38	4.38	3.83	3.62	4.09	3.83	3.88	3.81	4.11	3.88	3.84	4.01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성인 집단에 대한 사후 평균 점수를 비교함.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문화예술친숙성의 경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고,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자기조절력은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고, 문화수용력은 2020년도 참여 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공감능력, 친밀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고,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음.

<표 II-109> 2018-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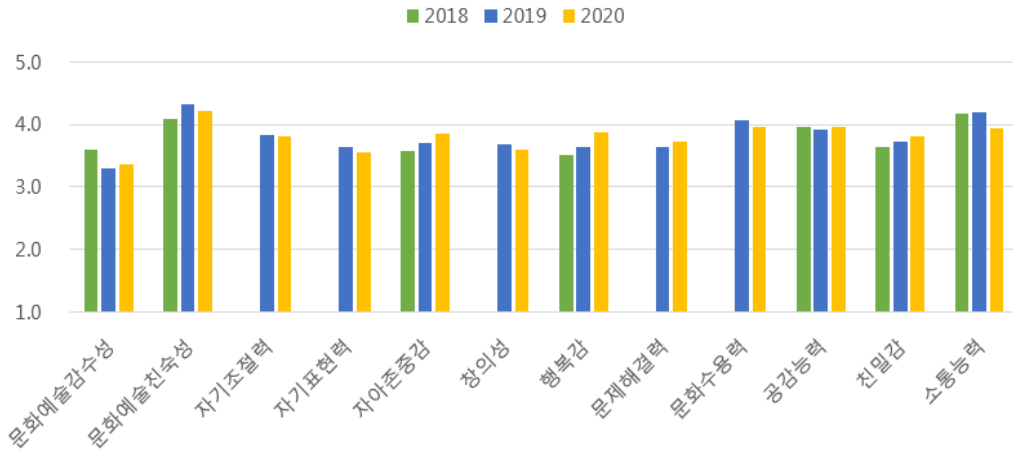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
2018	27	3.95	4.14	-	4.02	4.05	-	4.12	-	-	3.99	-	4.06
		(1.15)	(0.21)		(0.83)	(0.46)		(0.65)			(0.42)		(0.51)
2019	257	3.13	4.24	3.81	3.59	4.00	3.75	3.78	3.61	4.21	3.90	3.93	4.10
		(0.32)	(0.10)	(0.15)	(0.14)	(0.11)	(0.20)	(0.14)	(0.06)	(0.11)	(0.02)	(0.08)	(0.12)
2020	46	3.83	4.38	3.83	3.62	4.09	3.83	3.88	3.81	4.11	3.88	3.84	4.10
		(0.15)	(0.20)	(0.15)	(0.20)	(0.11)	(0.03)	(0.21)	(0.24)	(0.09)	(0.33)	(0.08)	(0.11)

- 2018-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비교를 위해 연도별 성인 대응표본 집단에 대해 각 문화예술 효과지표의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였음. 연도별로 조사에 응한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효과 차이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각 연도의 교육 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8년도의 경우, 성인 대응표본 집단에 대하여 자기조절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친밀감이 특수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측정되지 않았음. 그 외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모든 지표의 효과 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의 경우,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의 경우,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성인을 대상으로한 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감수성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자기표현력과 행복감에 대한 효과 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6)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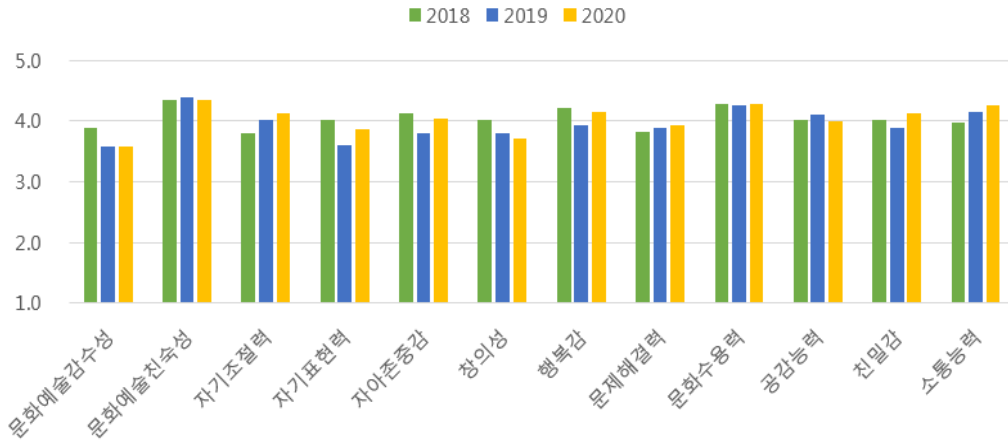
〈표 II-110〉 2018-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감수성	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
2018	44	3.59	4.08	-	-	3.58	-	3.52	-	-	3.96	3.64	4.17
2019	49	3.29	4.32	3.84	3.63	3.70	3.68	3.64	3.64	4.07	3.92	3.73	4.19
2020	23	3.36	4.22	3.81	3.55	3.86	3.59	3.87	3.72	3.96	3.96	3.81	3.93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노인 집단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를 비교함. 2018년도 노인대상 사전조사의 경우, 자기조절력, 자기표현, 창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이 측정되지 않았음.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공감능력의 사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감수성, 공감능력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전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소통능력의 경우, 2019년 참여집단의 사전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친숙성은 2018년도 참여집단, 소통능력은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점수가 가장 낮았음. 자아존중감과 친밀감의 경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점수가 가장 높고,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전 점수가 가장 낮았음. 자기조절, 자기표현, 창의성, 문화수용력은 2019년도 참여자의 사전점수가, 문제해결력은 2020년의 참여자의 사전점수가 더 높았음.

<표 II-111> 2018-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8	44	3.89	4.36	3.80	4.03	4.14	4.03	4.21	3.83	4.28	4.02	4.02	3.98
2019	49	3.58	4.40	4.03	3.60	3.80	3.80	3.93	3.89	4.27	4.10	3.88	4.16
2020	23	3.59	4.36	3.83	3.87	4.04	3.71	4.16	3.94	4.28	3.99	4.14	4.26

- 2018-2020년도 대응표본 노인 집단에 대한 사후 평균 점수를 비교함. 전체 지표 중 문화예술감수성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가장 낮았음. 문화예술친숙성, 문화수용력의 사후 평균이 3개년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았음. 자기조절력, 문제해결력, 소통능력의 경우, 친밀감의 경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았음.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았음. 창의성의 경우, 2018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도 참여집단의 사후 평균이 가장 낮았음.

<표 II-112> 2018-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 2018-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비교를 위해 연도별 노인 대응표본 집단에 대해 각 문화예술 효과지표의 사전과 사후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 크기를 구하였음. 연도별로 조사에 응한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효과 차이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효과 크기 비교를 통해 각 연도의 교육 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8년도의 경우, 전체 대응표본 집단에 대하여 자기조절력, 자기표현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이 특수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측정되지 않았음. 그 외 소통능력을 제외한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의 경우, 소통능력을 제외한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과 행복감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의 경우, 전 지표에 대하여 양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 지표 점수가 상승하였음. 상대적으로 자기조절력, 친밀감, 소통능력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노인을 대상으로한 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은 행복감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의 효과 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2) 2018-2020 질적 자료 텍스트 마이닝

### ○ 분석 방법

- 2018-2020년 질적 조사에서 실시한 면담 녹취록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상관 분석에 활용된 형태소 분석 및 한글 전처리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함.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로 분석함.
- 연도별로 단어 빈도수가 높았던 상위 200개 단어를 산출하여 워드클라우드 로 시각화하여 제시함. 이때, 각 연도별로 빈도수는 매우 높지만 워드클라우드 내 결과 해석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결과를 제시함. 구체적으로 2018년의 경우 “아이”, “애”, “생각”, “언니”, “엄마”를 2019년의 경우 “아이”, “애”, “생각”을 마지막으로 2020년의 경우 “아이”, “생각”을 결과에서 삭제함.
-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진한 색과 큰 크기로 표현됨

### ○ 결과

- 2018년도의 경우 “뮤지컬”, “발레” 등의 프로그램 내용이 중점적으로 드러남.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집”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큰 빈도를 차지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임.
- 2018년도와 2019년도와 달리 2020년도에서는 “스트레스”가 큰 빈도로 나타남. 즉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서 문화예술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면담 참여자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했을 것으로 파악됨.

### ○ 한계점

- 연도별로 데이터의 크기가 상의함. 2018년도의 경우 총 4개 기관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도는 총 16개 기관, 2020년도는 총 10개 기관에서 진행함.
- 2020년도에는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양적 지표에 상응하는 질문을 추가하여 질적 지표를 함께 확인하였으나 2018년도와 2019년도에서는 양적 지표와 통합될 수 있는 질문이 다소 부족함. 그 결과, 2018년도의 경우 효과 키워드보다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강조되어 나타남.

2018



2019



2020



3) 요약: 문화예술교육 효과 3개년(2018-2020) 비교

- 전체적으로 2019년도를 제외한 2018, 2020년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가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8, 2020년도에서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 효과지표가 사전보다 증가함. 자아존중감은 2018년도에만 특히 증가하였으며, 자기조절, 문제해결력은 2020년도에만 특히 증가함. 창의성과 문화수용력은 3개년 모두에서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이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향유 목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일 수 있음. 또한, 문화수용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음. 첫째, 설문문항에서 제시하는 문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음.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이(異)문화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문화수용력 효과가 포착되기 어려웠을 수 있음.



- 유아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과가 감소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설문 대상이었던 부모가 유아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기 어려운 설문 문항에 응답한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임. 아동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에서 효과가 컸음. 이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얻는 아동기 발달 특성과 일치함. 청소년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력, 행복감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그 크기가 크지 않음. 이는 자의식과 자아 정체감 발달하고, 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일치함. 성인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행복감에 대한 효과가 컸음. 노인의 경우, 행복감,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각 생애주기의 발달 특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3개년 질적 자료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2018년 및 2019년 효과 사이의 차이가 나타남. 2020년의 경우, 개인, 코로나19, 스트레스, 자기, 예술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이는 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개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함께 관계적 차원 보다 자기와 관련된 개인 내적 효과와 관련된 효과가 더 많이 언급되었음을 의미함.
-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친구, 사람, 말, 웃음, 표현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이는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다른 사람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변화가 많이 언급되었음을 의미함. 또한, 뮤지컬, 예술, 미술, 발레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 문화예술 차원의 효과와 연결될 수 있음. 그러나 2018년과 달리 2019년의 경우, 자기라는 키워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이는 관계차원의 질적 효과뿐 아니라 개인 심리차원의 질적 효과도 많이 언급되었음을 의미함.



---

## Ⅲ. 결론 및 제언

---

1. 결론
2. 제언



---

### III. 결론 및 제언

---

#### 1. 결론

- 본 연구는 2020년에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생애주기별로 검증함.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장기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집단별 변화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함.
- 다양한 측면의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20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문화예술적, 개인심리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지표로 구분하여 각 차원에서의 효과 변화를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하고자 함. 추가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의 시각화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3개년 효과 비교 연구를 위해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의 일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본 연구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다차원적인 효과 검증
  - 본 연구는 문화예술 교육 효과를 차원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효과 특성을 살펴봄. 추가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음.
  - 문화예술적 차원 : 모든 생애주기집단에서 문화예술감수성 및 문화예술친숙성의양적 및 질적 효과가 나타남. 특히나 감수성과 관련해서 성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일상생활 속 감동, 위로, 위안 등과 같은 정서적 감상 능력 향상이 눈에 띈.
  - 개인심리적 차원: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에서 양적 및 질적 효과가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남. 질적 연구 결과, 생애주기별 효과지표의 내용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인관계적 차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에서 양적 및 질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남. 다만, 아동의 경우 소통능력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이는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
  - 코로나19: 모든 생애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양적 및 질적 효과가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안전한 소통의 장과 기회 제공’이었음.

○ 3개년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경향성 파악

- 본 연구는 3개년(2018-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전반적으로 2019년도를 제외한 2018, 2020년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가 사전보다 사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 2020년도에서 문화예술감수성과 문화예술친숙성, 자기표현력, 행복감, 공감능력, 친밀감, 소통능력 효과지표가 사전보다 증가함. 자아존중감은 2018년도에만 특히 증가하였으며, 자기조절, 문제해결력은 2020년도에만 특히 증가함. 창의성과 문화수용력은 3개년 모두에서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3개년 질적 자료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개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함께 관계적 차원 보다 자기와 관련된 개인 내적 효과와 관련된 효과가 더 많이 언급되었음.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다른 사람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변화가 많이 언급되었음. 또한, 뮤지컬, 예술, 미술, 발레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 문화예술 차원의 효과와 연결될 수 있음. 그러나 2018년과 달리 2019년의 경우, 자기라는 키워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관계차원의 질적 효과뿐 아니라 개인 심리차원의 질적 효과도 많이 언급되었음.
-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유아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과가 감소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설문 대상이었던 부모가 유아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기 어려운 설문 문항에 응답한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임. 아동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과 친숙성,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에서 효과가 컸음. 이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얻는 아동기 발달특성과 일치함. 청소년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조절력, 행복감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그 크기가 크지 않음. 이는 자의식과 자아 정체감 발달하고, 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일치함. 성인기의 경우, 문화예술감수성, 자기표현력, 행복감에 대한 효과가 컸음. 노인의 경우, 행복감, 문화예술감수성, 자아존중감, 친밀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각 생애주기의 발달 특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상호적 관계의 가능성 탐색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각 차원의 효과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개인심리적 차원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대인관계적 차원인 친밀감과 소통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친밀감과 소통능력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자기개방하는 것을 포함함. 즉, 개인심리적 차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 교육일지라도 더 나아가 대인관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차원의 변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감 및 잠재력 발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아존중감, 행복감과 같은 개인심리적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더 나아가, 개인심리적 차원의 변화는 대인관계적 차원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대인관계적 차원의 변화는 또다시 개인심리적 차원 및 문화예술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각 지표별 단편적인 효과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 이러한 효과간의 관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 ○ 본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의 다차원적인 효과 검증 및 3개년 비교 연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의 경향성 파악, 문화예술교육의 상호관계적 가능성 탐색을 시도했다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경우가 많았음.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목표했던 표본 수집 및 프로그램 진행 중단으로 인해 효과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비대면 진행 및 지속적 참여의 어려움으로 교육 효과를 보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있음. 아울러, 수집된 표본의 경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은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여자의 적극성과 자발성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긍정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2020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 대응 표본 수의 부족으로 엄밀한 의미의 3개년 비교 및 사전/사후 비교가 어려움이 존재함. 앞서 설명했듯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음. 현장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각 년도별 사전/사후 다른 참여자 집단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함. 따라서, 시간에 흐름에 따른 동일한 참여자의 비교 분석이 아니기에 종단적 해석에 유의해야 함. 또한,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특성 및 효과 파악을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던 집단별 사전/사후 효과 비교 분석은 대응 표본이 아닌 독립 표본으로 분석하였기에, 사전 사후의 효과 비교보다는 집단별 특성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

## 2. 제언

### 1)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를 위한 제언

#### ○ 문화예술효과에 대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통합적인 분석 필요

- 양적 효과 지표에서 측정하는 문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효과 지표에서 관찰된 질적인 효과 지표가 존재. 이에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통합적으로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효과지표는 개별적으로 변화하는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함께 변화함. 따라서, 개별 지표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적으로 분석하려는 관점이 필요함. 교육의 효과는 연쇄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즉,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효과를 검증해야 함. 향후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 관찰 가능한 행동 지표로써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 수정 및 보완 필요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적 및 질적 연구에서 특수 지표 외에도 효과가 발견되는 지표들이 존재하며 문헌에서도 생애주기별 기타 효과 지표를 밝히고 있음. 따라서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전 생애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공통 지표로서 대인관계적 차원의 협동 지표를 제안함.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효과 지표에서는 협동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FGI 및 문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 생애집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협동심 향상이 발견됨. 이에 전 생애 집단에게 공통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효과 지표로서 협동 지표를 제안함.
- 유아 및 아동기 대상으로 창의성을 측정하지만 2020년 효과 분석 및 3개년 효과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창의성의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남. 이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심층적인 창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문화향유에 초점을 맞춰있기 때문에 창의성 효과 지표는 프로그램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유아 및 아동기 대상 창의성 지표를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 특히 유아의 경우, 모든 차원의 지표가 향상되는 다른 생애주기 집단과 달리 핵심지표: 문화예술차원과 특수지표II: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효과가 증가하지만 특수지표I: 개인심리적차원의 효과 지표에서 감소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측정상의 문제일 수 있음.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할 시, 자기보고식 설문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주로 주양육자 혹은 연구자가 행동관찰을 실시함. 하지만, 본 측정문항은 관찰자 관점에서 드러나는 변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효과지표에서 측정하는 개인심리적차원의 효과 지표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이 불가능한 유아를 대신해 주양육자가 관찰보고하기에 적절한 측정 문항이 아님.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측정할 시에는 보다 행동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남. 본 연구의 FGI 결과 및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기의 주된 관심사와 발달과업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체감 확립이며, 진로 탐색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았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함. 하지만 기 개발된 효과지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지표로서 진로 탐색 및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이해 효과 지표 추가를 제안함.
- 성인, 노인 대상으로 특수 지표로서 개인심리적차원의 삶의 의미 및 자기수용, 활력을 제안함. FGI 및 문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및 노인기에는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성취감 및 삶의 의미 재정립, 사회적 생산성 확보, 삶의 의미 통합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 달성이 필요함.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며, 삶의 의미 및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의미 및 자기 수용, 활력 등과 같은 효과 지표 추가를 제안함.
- 아울러, 이러한 추가 지표를 추가 지표를 구성할 때도 문항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효과 지표 측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행동측정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됨. 따라서, 기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들도 관찰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문항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 ○ 중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이해를 위한 종단적 접근이 필요

- 기존의 효과분석 대상 프로그램들은 주로 3개월 6개월로 단기적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됨. 하지만 본 연구에서 참여기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 결과를 볼 때, 참여기간이 3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참여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효과 지표의 사전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문화예술교육 효과로 인한 장기적인 개인의 심리사회적 웰빙 및 특성 변화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런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계열 분석을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 구축 및 동일한 참여자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현장의 한계를 반영하여, 변화 인식을 측정하는 효과분석 연구 설계 고려

- 중도이탈과 같은 현장의 한계로 인해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프로그램 현장의 한계가 존재함.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응표본이 확보된 후 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응표본 확보 가능성이 낮음. 이런 현장의 한계를 반영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 이에, 참조점(Reference Point)을 제시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육 전/후의 주관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과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의 연계성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

- 지표를 통합 할 경우,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 지표 측정이 어려워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지원사업의 특성 반영 및 구체적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사업별 기존 효과 지표가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더 잘 드러냄.

○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조사 지표와 연계한 활용방안 고려

- 현재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품질만족도(콘텐츠 만족도, 강사만족도,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유아관찰), 서비스 비교 만족도 (기대대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향후 활용 의사, 추천 의향, 재참여의향을 묻고 있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측정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자기표현력, 창의성 향상, 또래관계 개선과 같은 총 4개의 항목을 측정함.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인 문화예술친숙성 및 감수성과 연계되며, 자기표현력과 창의성 향상은 특수지표 중 개인심리적 차원의 자기표현 및 창의성과 연계됨. 마지막 또래관계 개선은 특수지표 중 대인관계 차원의 친밀감, 소통능력, 공감능력과 연계 가능함. 사업 종료 후 사후 시점에서 참조점(Reference Point)- ‘교육 전과 비교하여’와 같은-을 주어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만족도 및 효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사후 측정을 하는 경우 사전 시점과의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동일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프로그램 현장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응답자 인식에 기반한 주관적 변화 측정이 유용한 효과 측정 방법이 될 수 있음.

<표 III-1> 만족도 조사 지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만족도 조사 지표	효과 지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핵심지표	문화예술친숙성 및 감수성
자기표현력 향상	특수지표I:	자기표현
창의성 향상	개인심리적 차원	창의성
또래관계 개선	특수지표II:	친밀감, 소통능력, 공감능력
	대인관계적 차원	

- 3개년 연구에서 창의성 지표의 효과가 다른 지표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창의성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생애주기에서 효과가 나타난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을 추천함. 이때, 생애주기별 행복감의 구성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항 선택이 필요함.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 특화된 전문 문화예술 강사 양성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차원의 변화뿐 아니라 개인심리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문화예술 강사를 양성할 때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의 개인심리적, 대인관계적 효과의 가능성과 구체적 내용을 교육하여 강사가 본인의 영향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개인심리적 차원 및 대인관계 차원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은 참여자의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문화예술 강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참여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발달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

-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개인심리적 차원 및 대인관계 차원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은 참여자의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따라서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함.
-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즐기므로써 행복감을 증진하고, 규칙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관련 능력과 기술을 익히고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기르고, 협동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도전적인 과제 제시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능력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또, 문화예술 활동을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특기와 적성, 흥미에 대한 고민을 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협동 과제 제시를 통해 협동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한편,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또는 잊고 있었던 자신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 이해와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삶의 의미, 초월적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또, 타인과 함께 이러한 발견을 나눔으로써 대인관계 기술, 타인 수용, 타인 또는 사회와의 연결감 등 대인관계 차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활기, 건강을 되찾고, 협동 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 또는 사회와의 연결감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 **중장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 지원의 필요성**

- 심화 프로그램, 후속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지원이 필요함. 질적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휴식기로 인해 교육 효과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증진 및 지속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휴식기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연구)과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의 연계성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

- 지표를 통합 할 경우,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 지표 측정이 어려워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지원사업의 특성 반영 및 구체적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사업별 기존 효과 지표가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더 잘 드러냄

○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조사 지표와 연계한 활용방안 고려**

- 현재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품질만족도(콘텐츠 만족도, 강사만족도,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유아관찰), 서비스 비교 만족도 (기대대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향후 활용 의사, 추천 의향, 재참여의향을 묻고 있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측정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자기표현력, 창의성 향상, 또래관계 개선과 같은 총 4개의 항목을 측정함.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문화예술교육 핵심지표인 문화예술친숙성 및 감수성과 연계되며, 자기표현력과 창의성 향상은 특수지표 중 개인심리적 차원의 자기표현 및 창의성과 연계됨. 마지막 또래관계 개선은 특수지표 중 대인관계 차원의 친밀감, 소통능력, 공감능력과 연계 가능함. 사업 종료 후 사후 시점에서 참조점(Reference Point)- ‘교육 전과 비교하여’와 같은-을 주어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만족도 및 효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사후 측정을 하는 경우 사전 시점과의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동일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프로그램 현장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응답자 인식에 기반한 주관적 변화 측정이 유용한 효과 측정 방법이 될 수 있음.
- 3개년 연구에서 창의성 지표의 효과가 다른 지표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창의성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생애주기에서 효과가 나타난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을 추천함. 이때, 생애주기별 행복감의 구성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항 선택이 필요함.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강은영, 최미숙 (2014).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2), 157-181.
- 김병하, 남철현 (1999). 유배우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 분석연구. 한국노년학, 19(2), 173-192
- 김소영, 이근매. (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사회적 향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미술치료연구, 17, 1333-1355.
- 김영옥, 오수학. (2017).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참여가 신체조성과 체력에 미치는 효과의 메타 분석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6(1), 753-769.
- 김화숙. (2018). 음악적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단소 지도 단계 설계 및 효과성 검증: 민요 토리 연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2), 881-894.
- 노승환, 조덕주. (2018). KDB 모형에 따른 문학, 음악, 연극 중신의 중학교 문화예술교육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3(5), 1-29.
- 노유진, 심교린. (2019).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 긍정심리 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 고찰.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9(1), 265-279.
- 맹영임, 김민, 임경희, & 정미나. (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33.
- 민경숙. (2018). 중산층 연소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 543-563.
- 박민지, & 김지은. (2017). 유아의 자기표현력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아동과 권리, 21, 513-539.
- 박소연, & 이진구. (2019).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개발. 문화예술교육연구, 14(3), 21-45.
- 박소연, 박용호 (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지표 개발연구. 한국문화교육, 11(2), 27-53.
- 박정희. (2002).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주장훈련이 주장행동, 갈등관리 양식에 미치는 영향. Community Nursing, 13(3).

- 배나래. (2017).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연구: 전통춤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8), 115-123.
- 백령. (2012). CIPP 모델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교육효과 연구:< 201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1), 29-50.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201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현경, 이은영. (2017). 마을공동체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살림꾼, 마을의 예술꾼 되기’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2(2), 35-60.
- 서봉연, 황상민. (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 성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학생생활과학 연구소.
- 이송하, 안지언. (2019). 50+ 세대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의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1), 195-209.
- 이은영, 고영미, 김은영 (2016). 미적체험을 강조한 유아 통합문화예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5(4), 1-22.
- 이원아, 문지영. (2019).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치료 효과 메타분석: 국내 음악치료 연구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7(2), 223-240.
- 이채영, 박연선. (2017). 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그림책 활용 미술교육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8(5), 483-496.
- 임영식, 정경은. (2017).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척도개발: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03-132.
- 장미경, 정태연, 김근영. (2014). 발달심리. Jan-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경은, 임영식, 조영미. (2019).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차이와 효과 연구: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115-143.
- 정헌수, 한준, 김기현, 박종효. (2017).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분석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2(2), 1-34.
- 정혜연. (2018). 나를 만나는 시간: 노령화시대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MeetMe. 미술과 교육, 19(3), 113-12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한수정, 한경훈. (2013). 대학 신입생의 음악교과 교양수업과 학업적응, 사회적응 및 정서적응의 관계.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4), 291-324.
- 한수정, 한경훈. (2019). 초등 문해교육과정 음악수업활동이 여성 노인문해학습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예술교육연구*, 17(2), 257-281.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ergen, D., & Meuer, D. (2000). Symbolic play, phonological awareness, and literacy skills at three age levels. In K.A. Roskos & J.F. Christie (Eds.), *Play and literacy in early childhood: Research from multiple perspectives* (pp. 45-62). New York: Erlbaum.
- Blazer, D. G. (1982). Social support and mortality in an elderly community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5(5), 684-694.
- Buhrmester, D., & Carbery, J. (1992, March). Daily patterns of self-disclos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1101-1113.
- Burns, A., & Leonard, R. (2005). Chapters of our lives: Life narratives of midlife and older Australian women. *Sex roles*, 52(5-6), 269-27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Hampshire, K. R., & Matthijsse, M. (2010). Can arts projects improve young people's wellbeing? A social capital approach. *Social science & medicine*, 71(4), 708-716.
- Kogan, N. (1997). Reflections and aesthetics and evolution. *Critical Review*, 11(2), 193-210.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Random House Digital, Inc..
- Orbuch, T. L., House, J. S., Mero, R. P., & Webster, P. S. (1996). Marital quality over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2), 162.

Ruff, H. A., & Capozzoli, M. C. (2003). Development of attention and distractibility in the first 4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9, 877-890.

Super (1990). *Career development: self 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Vitaro, F., Boivin, M., & Bukowski, W. M. (2009).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Wood, D. (1996). *Move, sing, listen & play* (rev. ed). Toronto Thompson.



---

## 부록

---

1. 양적 조사 설문 동의서 및 설문지
2. 질적 조사 인터뷰 동의서 및 질문지
3. 문화예술교육 효과 2개년(2019-2020) 비교

## 1. 양적 조사 설문 동의서 및 설문지

응답자	ID	—	□	□	□	□	□
-----	----	---	---	---	---	---	---

\* 보호자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끝번호 기재

\*\* 남녀여부 표시 : 여자-F, 남자-M

예) 핸드폰 번호가 01\*-\*\*\*\*-0215이고, 여자인 경우

F	0	2	1	5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연구명	<b>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3년차)</b>
	<b>연구 소개</b>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 조사참여자 대상 기프트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정태연 심리학과 교수)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 짜 : 2020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 또는 V”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귀하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1) 귀하 자녀의 만 나이는? 만(            )세
- 2) 귀하 자녀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 3) 본 설문지의 응답자 ID를 위해 사용한 번호에 표시해주시십시오.  
     ① 핸드폰 번호(보호자 본인)    ② 자택 전화번호

문화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생각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및 활동을 말합니다.

4) 귀하 자녀는 최근 3년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사설학원 제외)

- ① 있음                            ② 없음

4-1) 최근 3년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횟수 (            회)

4-2) 귀하 자녀가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 이상
------------	------------------	------------

4-3)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한 경우, 활동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국악	연극	미술	(국악 제외한) 음악	영화	무용	만화/ 애니 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문화	전통 문화

5)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역 및 기관 홍보물)를 통해서
- ②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친구/선후배/동료/가족/지인 등)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
-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 ④ 기타 (                            )

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시 지역    ② 읍·면 지역

6-1) 귀하의 자녀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                                  )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경기도  
⑤ 경상도       ⑥ 충청도                              ⑦ 전라도       ⑧ 강원도       ⑨ 제주도

7)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신 프로그램 수행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OO유치원, OO중학교, OO복지관 등

8) 귀하의 자녀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교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등교 대면    ② 비대면(온라인 원격)    ③ 대체과제 수행 중심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자녀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는 스스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녀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녀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녀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자녀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자녀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자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녀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자녀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자녀와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자녀는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녀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자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자녀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자녀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자녀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자녀는 코로나 19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기프트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기프트콘을 지급 받을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기프트콘은 설문 참여 후 2~3주 내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프트콘 전송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자	ID	—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끝번호 기재

\*\* 남녀여부 표시 : 여자-F, 남자-M

예) 핸드폰 번호가 01\*-\*\*\*\*-0215이고, 여자인 경우

F	0	2	1	5
---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연구명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3년차)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 조사참여자 대상 기프티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정태연 심리학과 교수)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 짜 : 2020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 또는 V”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1) 귀하의 만 나이는? 만(            )세
-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 3) 본 설문지의 응답자 ID를 위해 사용한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  
 ① 핸드폰 번호(본인)    ② 자택 전화번호

문화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생각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및 활동을 말합니다.

- 4) 귀하는 최근 3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사설학원 제외)
- ① 있음                                    ② 없음

4-1) 최근 3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횟수 (            회)

4-2) 귀하가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 이상
------------	------------------	---------------	---------------	---------------	------------

4-3)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경우, 활동하신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국악	연극	미술	(국악 제외한 음악	영화	무용	만화/ 애니 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문화	전통 문화

- 5)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역 및 기관 홍보물)를 통해서
- ②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친구/선후배/동료/가족/지인 등)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
-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 ④ 기타 (                                    )

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시 지역                                      ② 읍·면 지역

6-1) 귀하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                      )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경기도  
⑤ 경상도        ⑥ 충청도        ⑦ 전라도        ⑧ 강원도        ⑨ 제주도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졸업    ⑥ 기타 (                      )

8) 귀하가 참여하신 프로그램 수행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유치원, ○○중학교, ○○복지관 등

9)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교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등교 대면            ② 비대면(온라인 원격)            ③ 대체과제 수행 중심

2.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와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기프티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기프티콘을 지급 받을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기프티콘은 설문 참여 후 2~3주 내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자	ID	—					
-----	----	---	--	--	--	--	--

\* 보호자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끝번호 기재

\*\* 남녀여부 표시 : 여자-F, 남자-M

예) 핸드폰 번호가 01\*-\*\*\*\*-0215이고, 여자인 경우

F	0	2	1	5
---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연구명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3년차)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 조사참여자 대상 기프티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정태연 심리학과 교수)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 짜 : 2020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O 또는 V”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귀하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1) 귀하 자녀의 만 나이는? 만(            )세
- 2) 귀하 자녀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 3) 본 설문문의 응답자 ID를 위해 사용한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  
 ① 핸드폰 번호(보호자 본인)    ② 자택 전화번호

문화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생각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및 활동을 말합니다.

- 4) 귀하 자녀는 최근 3년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사설학원 제외)

  - ① 있음    ② 없음

4-1) 최근 3년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횟수 (            회)

4-2) 귀하 자녀가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 이상
------------	------------------	------------

4-3)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한 경우, 활동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국악	(    ) 연극	(    ) 미술	(    ) (국악 제외한) 음악	(    ) 영화	(    ) 무용	(    ) 만화/ 애니 메이션	(    ) 공예	(    ) 사진	(    ) 디자인	(    ) 문학	(    ) 전통 문화
--------------	--------------	--------------	--------------------------	--------------	--------------	----------------------------	--------------	--------------	---------------	--------------	--------------------

5)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역 및 기관 홍보물)를 통해서
- ②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친구/선후배/동료/가족/지인 등)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
-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 ④ 기타 (    )

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시 지역                                  ② 읍·면 지역

6-1) 귀하의 자녀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                  )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경기도
- ⑤ 경상도          ⑥ 충청도          ⑦ 전라도          ⑧ 강원도          ⑨ 제주도

7)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신 프로그램 수행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OO유치원, OO중학교, OO복지관 등

8) 귀하의 자녀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교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등교 대면                  ② 비대면(온라인 원격)                  ③ 대체과제 수행 중심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자녀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는 스스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녀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녀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	①	②	③	④	⑤

	야기하는 편이다.					
22	자녀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자녀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자녀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자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녀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자녀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자녀와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자녀는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녀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자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자녀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자녀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자녀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문화예술교육은 자녀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기프트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기프트콘을 지급 받을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기프트콘은 설문 참여 후 2~3주 내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프트콘 전송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자	ID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 자택 중) 중 끝번호 기재

\*\* 남녀여부 표시 : 여자-F, 남자-M

예) 핸드폰 번호가 01\*-\*\*\*\*-0215이고, 여자인 경우

F	0	2	1	5
---	---	---	---	---

## 설문조사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연구명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3년차)

###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인 식별, 조사참여자 대상 기프티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 참여자 자택 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 수집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동일인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및 관련부처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자는 응답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정태연 심리학과 교수)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 짜 : 2020년 월 일

☺ 해당되는 곳에 기입 및 “○ 또는 V” 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1) 귀하의 만 나이는? 만(            )세
-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성    ② 여 성
- 3) 본 설문문의 응답자 ID를 위해 사용한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  
① 핸드폰 번호(본인)    ② 자택 전화번호

문화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생각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및 활동을 말합니다.

- 4) 귀하는 최근 3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사설학원 제외)
- ① 있음                                      ② 없음

4-1) 최근 3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횟수 (            회)

4-2) 귀하가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 이상
------------	------------------	------------------	------------------	------------------	------------

4-3)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신 경우, 활동하신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국악	연극	미술	(국악 제외한 음악)	영화	무용	만화/ 애니 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문화	전통 문화

- 5)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역 및 기관 홍보물)를 통해서
- ②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변사람(친구/선후배/동료/가족/지인 등)의 참여 권유를 통해서
-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참여
- ④ 기타 (                                      )

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시 지역                                      ② 읍·면 지역

6-1) 귀하가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                      )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경기도  
⑤ 경상도        ⑥ 충청도        ⑦ 전라도        ⑧ 강원도        ⑨ 제주도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졸업    ⑥ 기타 (                      )

8) 귀하가 참여하신 프로그램 수행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OO유치원, OO중학교, OO복지관 등

9)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교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등교 대면            ② 비대면(온라인 원격)            ③ 대체과제 수행 중심

2.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답해 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려운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화예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남은 시간이 생기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평소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문제가 해결된 후 문제해결책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예상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귀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가족(보호자)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와 가족(보호자)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분노, 포기, 조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문화예술교육은 코로나 19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기프티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기프티콘을 지급 받을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기프티콘은 설문 참여 후 2~3주 내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질적 조사 인터뷰 동의서 및 질문지

### 인터뷰 설명 및 동의서



중앙대학교

연구명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연구 소개

#### 1. 조사목적 및 수행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집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발달시기별·사업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 목적:** 2020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검증의 유의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 인구통계 정보, 인터뷰 참여자 대상 기프트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활용
- **수집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 수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연구 수행이 완료된 이후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3. 참여자의 설문 내용 관련 자료 검토 내용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4. 자의적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가자는 실험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논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정태연 심리학과 교수)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나는 \_\_\_\_\_ 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3.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참여자 확인: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날 짜 : 2020년 월 일

참여자 연령: 만 ( )세

성 별 : 남성  여성



구분		초등 고학년~노인 집단	학부모 및 교사(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강사
0. 면담자 소개	라포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참여 기간 및 내용, 기억에 남는 활동, 프로그램 특징 및 특이사항 등	자녀(학생)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참여 기간 및 내용, 기억에 남는 활동, 프로그램 특징 및 특이사항 등 - 프로그램 참여자 특징 및 특이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운영 방식, 프로그램 참여자 특징 및 특이사항, 프로그램 특징 및 특이사항 등
1. 문화예술 교육 참여동기	참여 동기	- 이전 문화예술(교육) 경험 - 참여 계기 - 프로그램 시작 전 기대했던 것 - 기대한 부분이 충족되었는지		- 프로그램 시작 전 활동 목표는 무엇 - 활동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2. 문화예술 교육 만족도 및 개선점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에 만족하시나요? - 만족 또는 불만족의 이유?		- 프로그램 진행 시 보람 있던 일, 좋았던 점 -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 -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운 점 - 개선사항
3. 문화예술 교육 효과	교육 효과 *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비 변화를 강조	- 프로그램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인 차원, 가족관계 ▶ 유아 및 청소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 성인: 직장생활에서의 변화 ▶ 중년: 직장생활에서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 양적 변화 척도와 동일하게 질적 변화의 측면에 맞춰서 추가 질문. 해당 영역에서 변화를 느끼는지? 그 이유 1) 문화예술 능력 차원(2): 문화예술감수성, 문화예술친숙성 2) 개인적 차원(7): 문제해결력, 문화수용력, 자기조절,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3) 대인관계적 차원(3): 공감, 소통능력, 친밀감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생활습관, 문제행동, 정서표현, 관계적 문제 등),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가 있었나요? - 예상했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 예상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긍정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타난 부정적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각 효과가 나타난 이유		-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개인 차원, 작품의 변화, 프로그램 내에서의 활동 및 대인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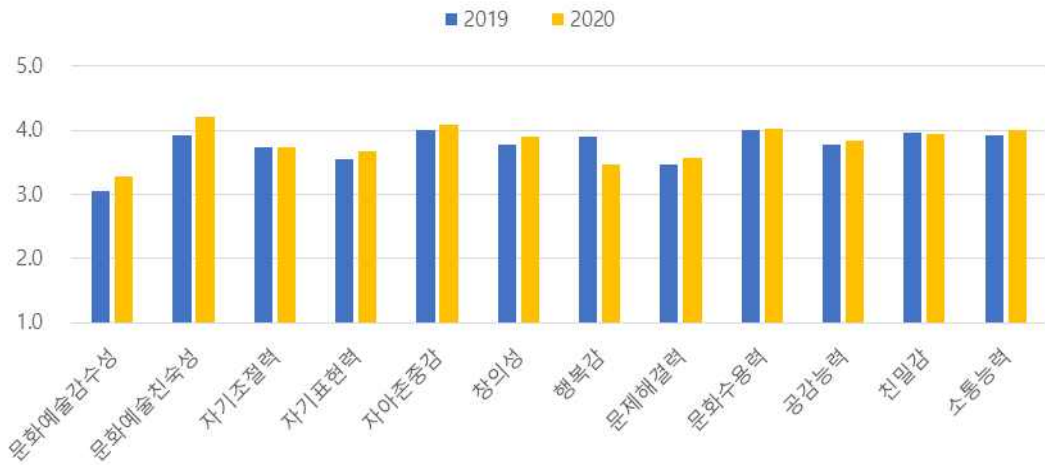
<p>4. 코로나 스트레스 경험 및 완화 여부</p>	<p>코로나 스트레스 완화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p>	<p>- 귀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셨나요? 예시) ① 감염에 대한 불안 ② 줄어든 친목활동 ③ 활동범위의 제약 ④ 야외활동의 감소 ⑤ 자기계발 기회 감소 ⑥ 양육시간의 증가 ⑦ 비대면 교육 혹은 근무에 부적응 ⑧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⑨ 불확실한 정보범람에 따른 피로감 ⑩ 기타( )</p> <p>- 위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었나요? -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완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 도움이 되었다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p>	<p>-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완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 도움이 되었다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는 무엇이 있나요?</p>
<p>5. 마무리</p>	<p>마무리</p>	<p>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 -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한 변화에 도움이 되었던 점 - 추가하고 싶은 것</p>	

### 3. 문화예술교육 효과 2개년(2019-2020) 비교

#### 1) 2019-2020 대응표본 t-test 효과 비교

##### (1) 전체

<표 부록-1> 2019-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진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722	3.05	3.91	3.73	3.54	4.00	3.77	3.89	3.46	4.00	3.77	3.96	3.91
2020	119	3.28	4.20	3.74	3.68	4.08	3.90	3.47	3.57	4.03	3.83	3.94	4.01

<표 부록-2> 2019-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722	3.29	4.03	3.78	3.60	4.04	3.85	3.98	3.52	4.06	3.79	3.98	3.97
2020	119	3.51	4.33	4.00	3.87	4.20	3.94	4.14	3.75	4.17	4.05	4.08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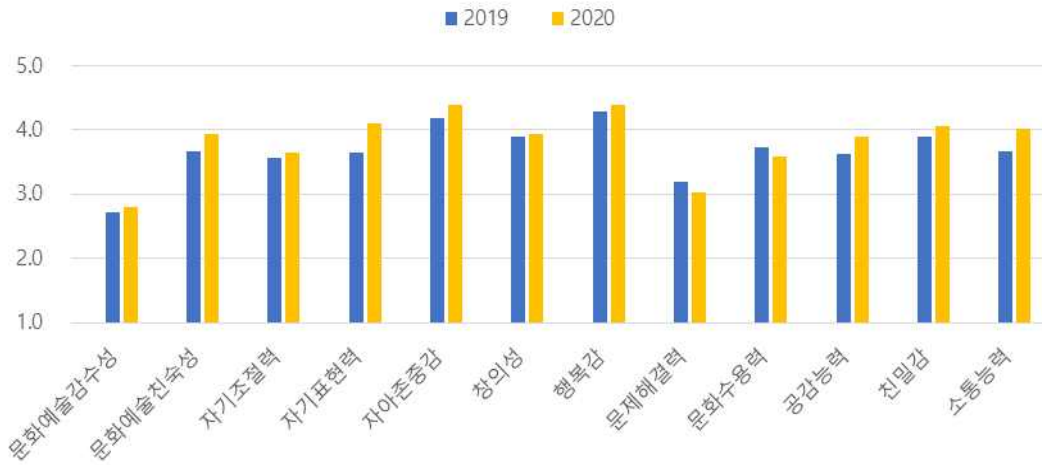
<표 부록-3> 2019-2020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722	0.25	0.11	0.05	0.06	0.05	0.08	0.09	0.01	0.05	0.02	0.02	0.06
2020	119	0.23	0.13	0.26	0.20	0.12	0.04	0.66	0.62	0.14	0.22	0.13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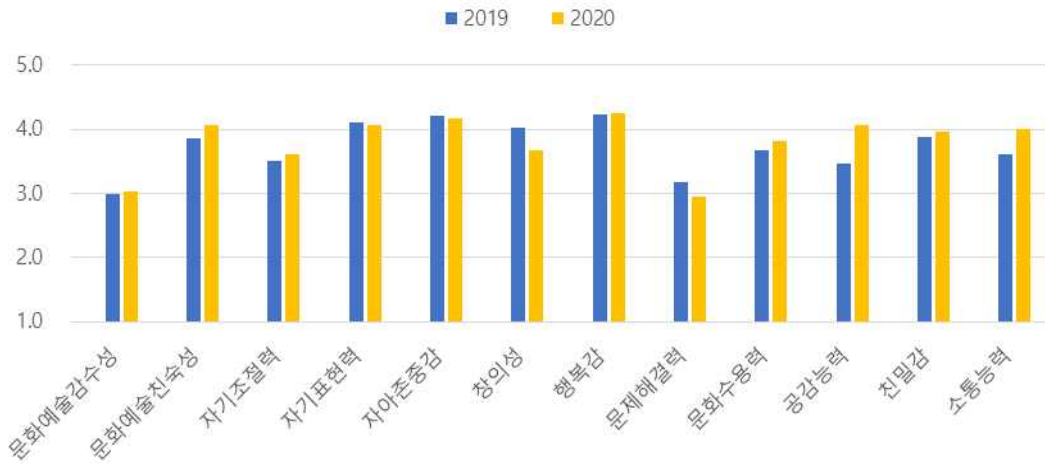
(2) 유아

〈표 부록-4〉 2019-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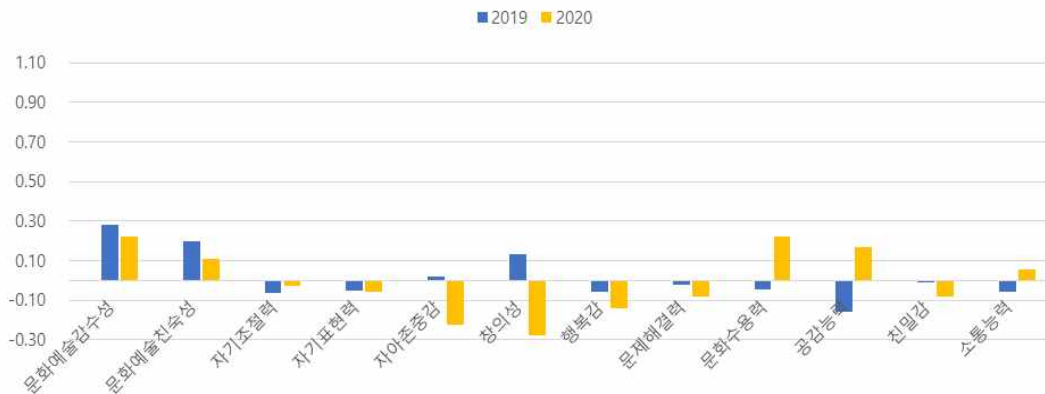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86	2.72	3.66	3.57	3.65	4.19	3.90	4.29	3.20	3.73	3.62	3.89	3.66
2020	12	2.81	3.94	3.64	4.11	4.39	3.94	4.39	3.03	3.58	3.89	4.06	3.94

<표 부록-5> 2019-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86	3.00	3.86	3.51	4.11	4.21	4.03	4.24	3.18	3.68	3.47	3.88	3.91
2020	12	3.03	4.06	3.61	4.06	4.17	3.67	4.25	2.94	3.81	4.06	3.94	4.01

<표 부록-6> 2019-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86	0.28	0.20	-0.07	-0.05	0.02	0.13	-0.06	-0.02	-0.04	-0.16	-0.01	-0.05
2020	12	0.22	0.11	-0.03	-0.06	-0.22	-0.28	-0.14	-0.08	0.22	0.17	-0.08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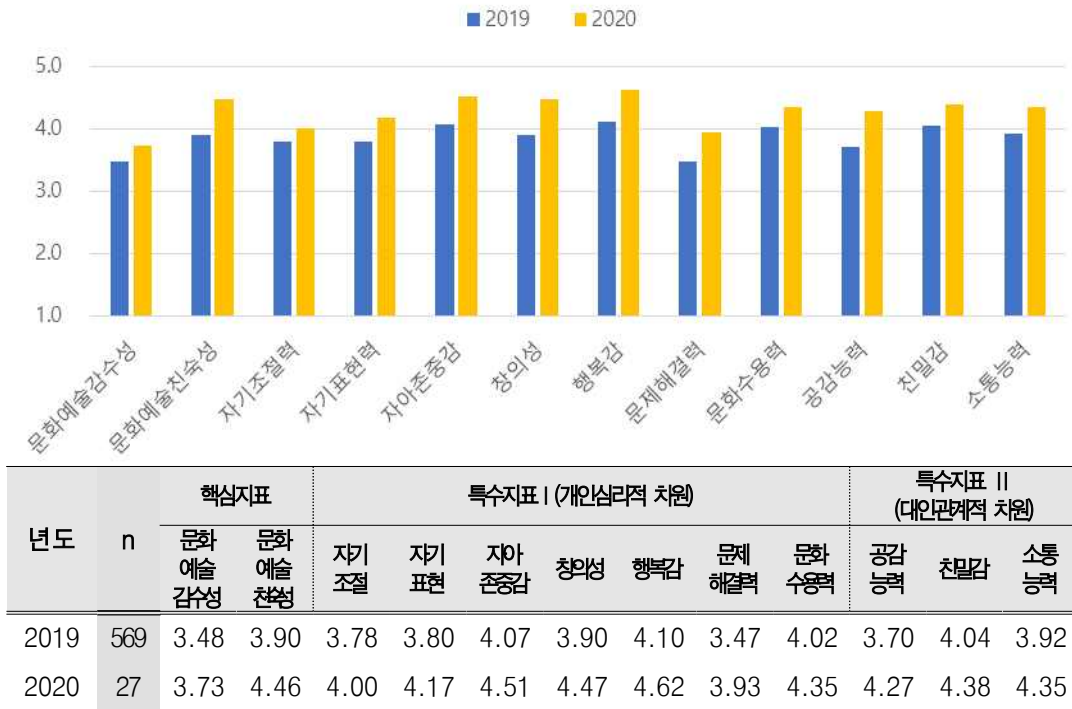
(3) 아동

<표 부록-7> 2019-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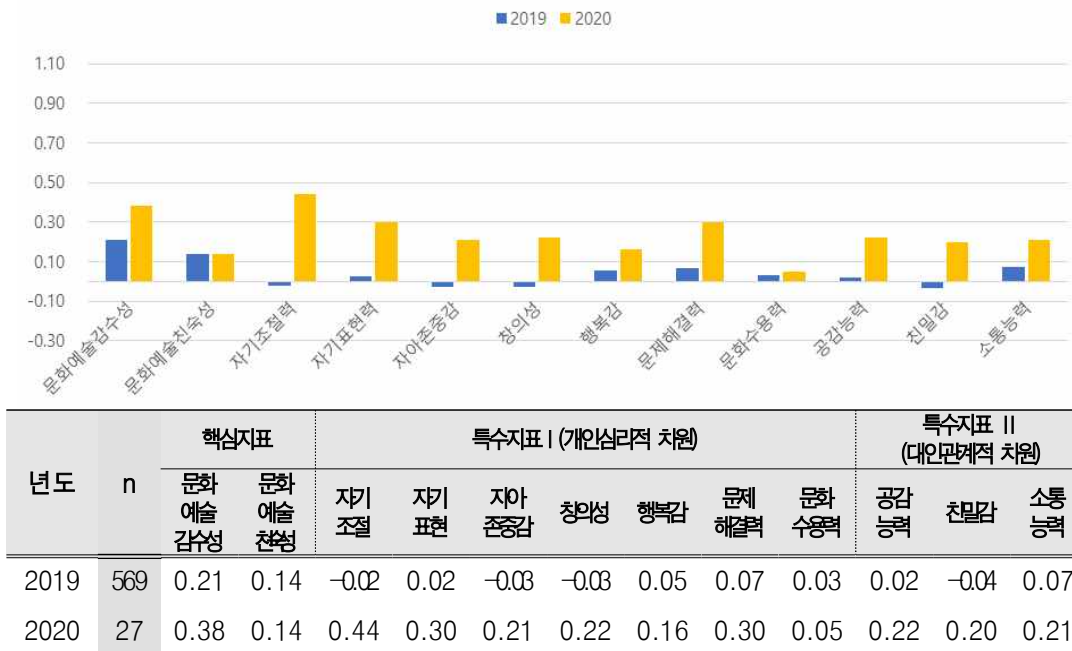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569	3.27	3.76	3.82	3.54	4.10	3.93	4.05	3.40	3.99	3.68	4.07	3.85
2020	27	3.35	4.32	3.73	3.96	4.3	4.25	4.46	3.63	4.30	4.05	4.19	4.14

<표 부록-8> 2019-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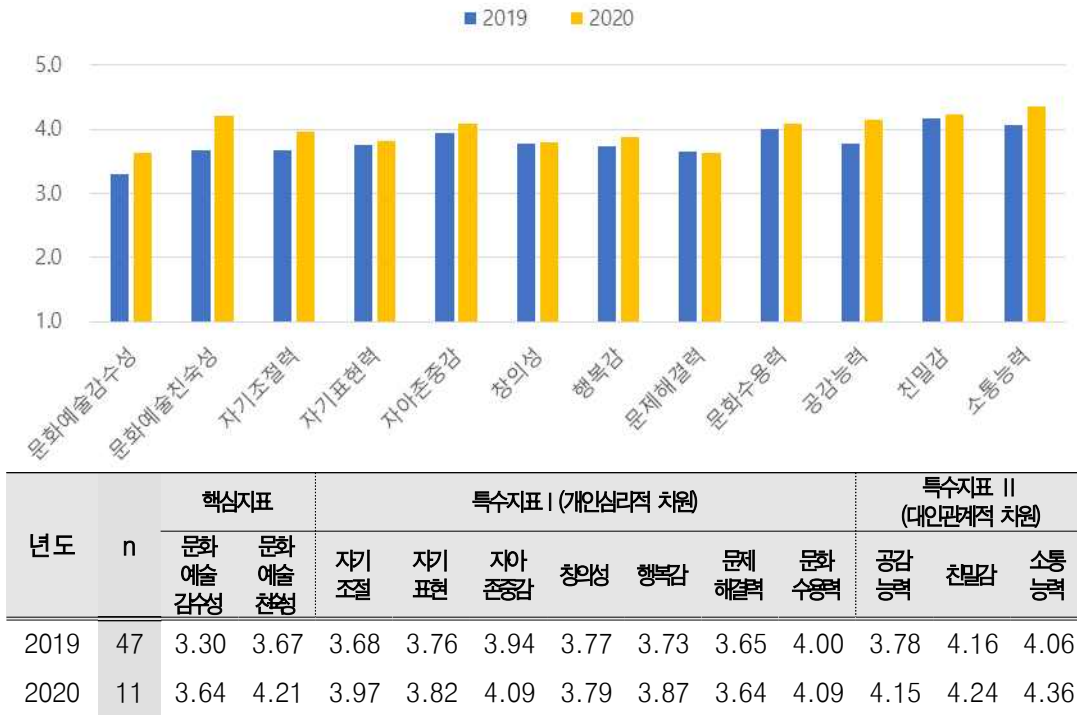
<표 부록-9> 2019-2020 아동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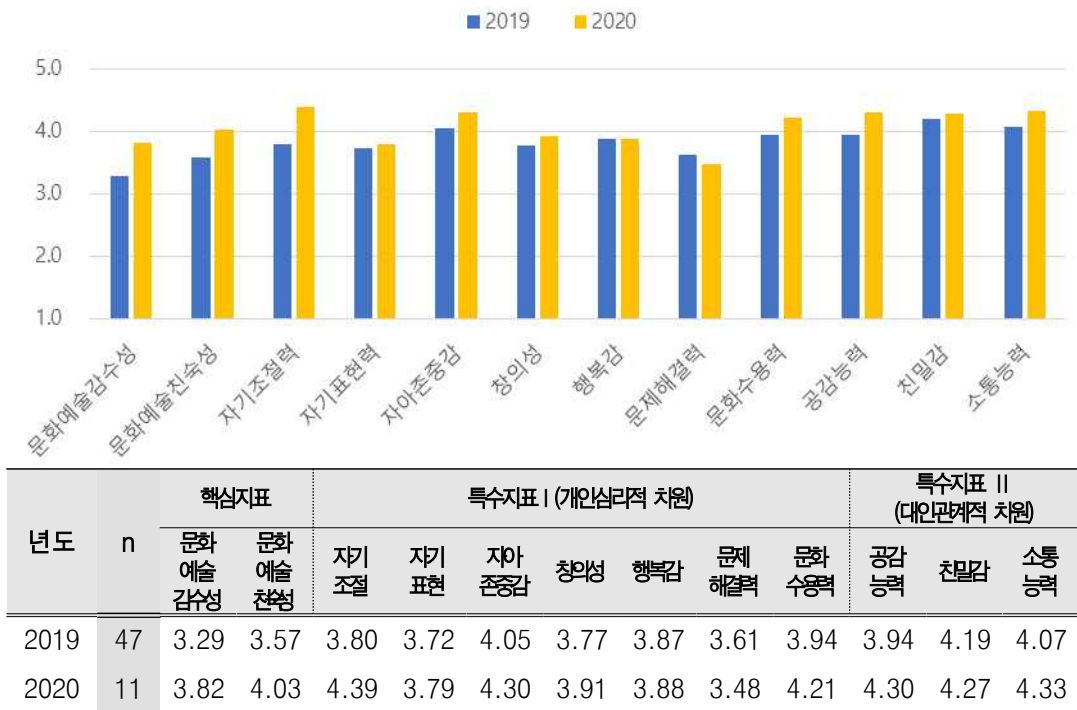


(4)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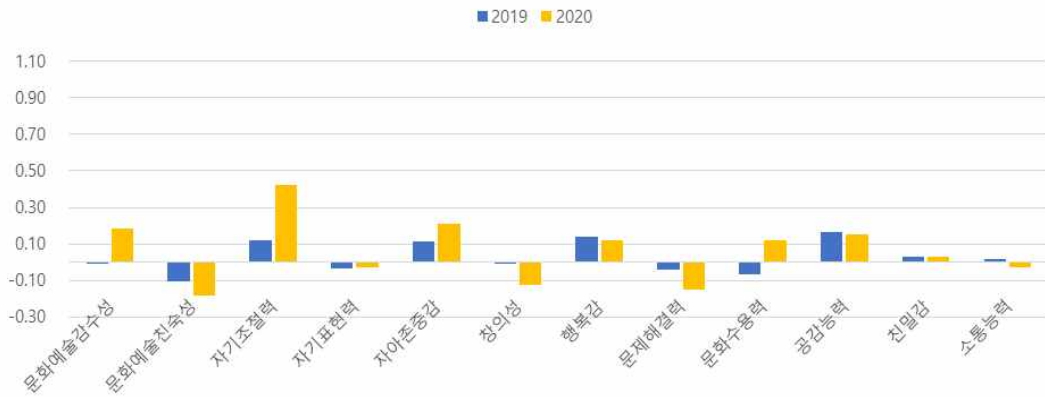
<표 부록-10> 2019-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표 부록-11> 2019-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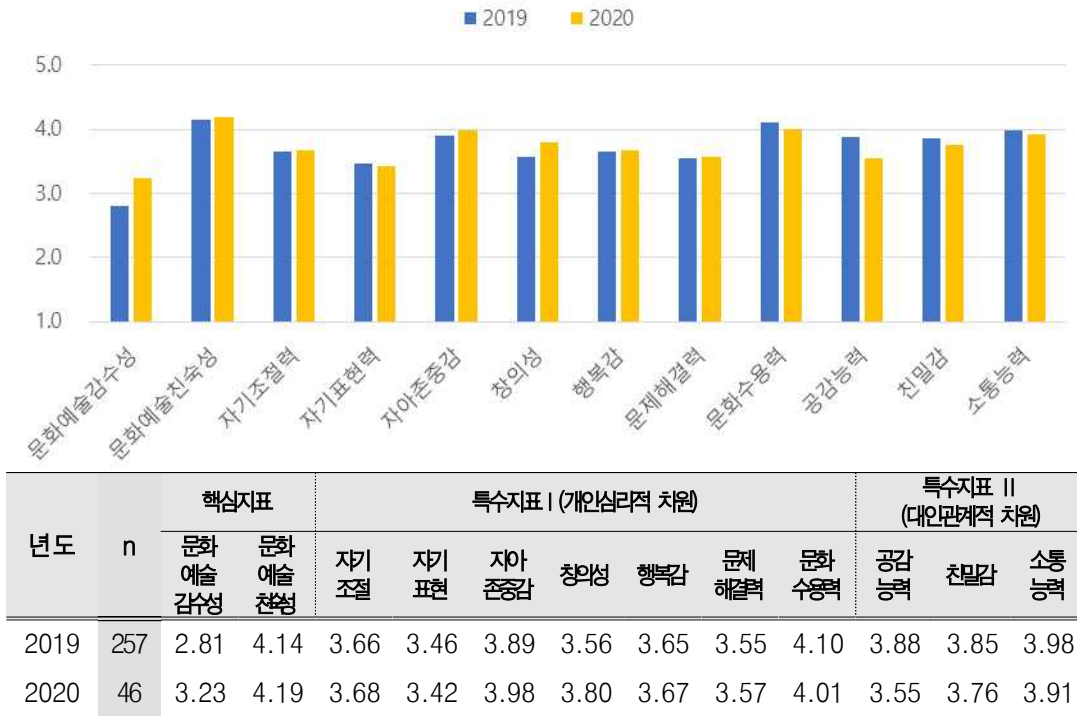
<표 부록-12> 2019-202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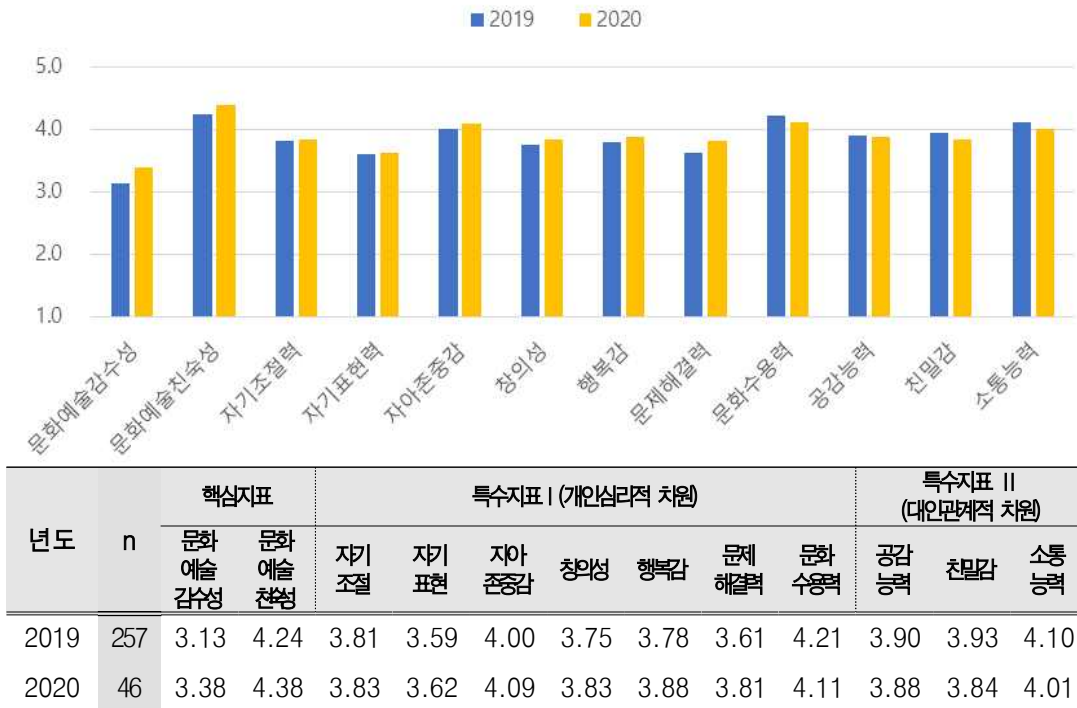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47	-0.01	-0.11	0.12	-0.04	0.11	-0.01	0.14	-0.04	-0.06	0.16	0.03	0.01
2020	11	0.18	-0.18	0.42	-0.03	0.21	-0.12	0.12	-0.15	0.12	0.15	0.03	-0.03

(5)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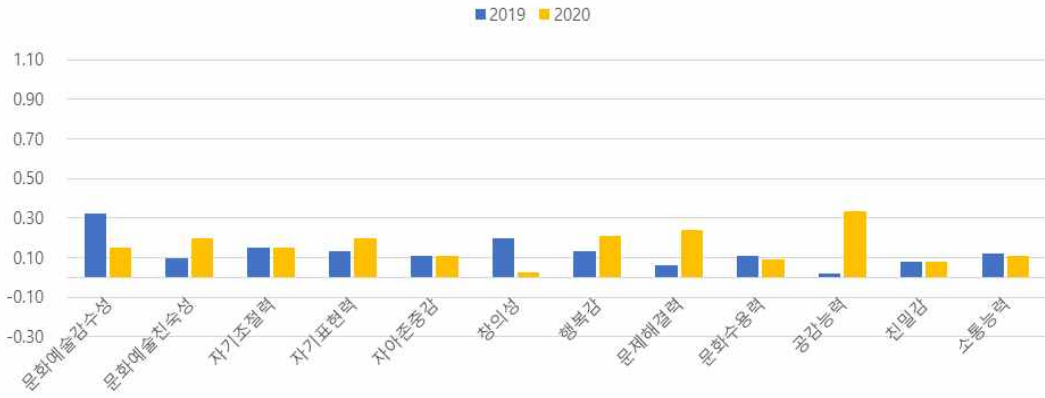
<표 부록-13> 2019-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표 부록-14> 2019-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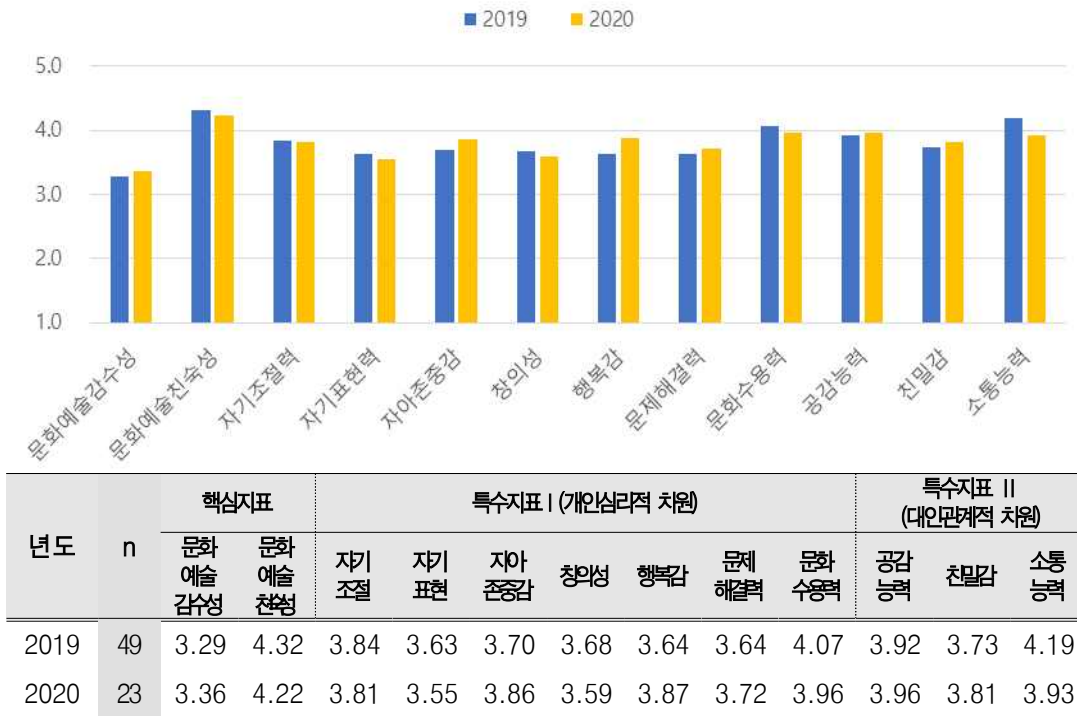
<표 부록-15> 2019-2020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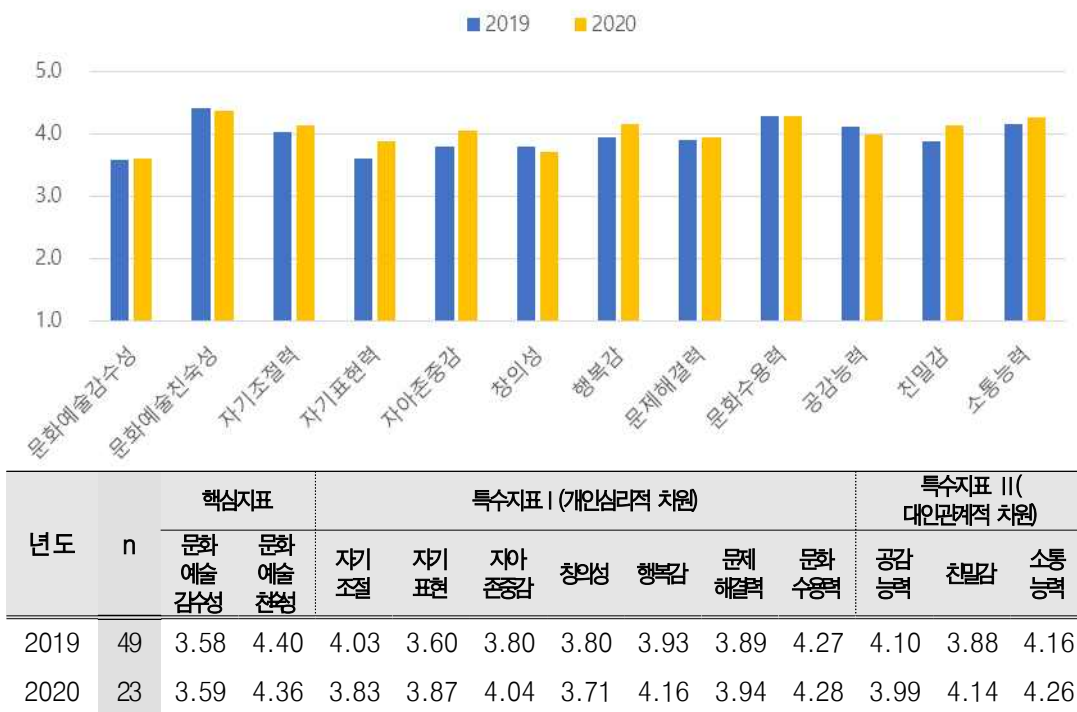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친숙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257	0.32	0.10	0.15	0.14	0.11	0.20	0.14	0.06	0.11	0.02	0.08	0.12
2020	46	0.15	0.20	0.15	0.20	0.11	0.03	0.21	0.24	0.09	0.33	0.08	0.11

(6) 노인

<표 부록-16> 2019-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전평균 비교



<표 부록-17> 2019-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사후평균 비교



<표 부록-18> 2019-2020 노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비교



년도	n	핵심지표		특수지표 I (개인심리적 차원)							특수지표 II (대인관계적 차원)		
		문화 예술 감수성	문화 예술 진수성	자기 조절	자기 표현	자아 존중감	창의성	행복감	문제 해결력	문화 수용력	공감 능력	친밀감	소통 능력
2019	49	0.29	0.08	0.19	0.11	0.10	0.12	0.30	0.25	0.20	0.18	0.15	-0.03
2020	23	0.23	0.14	0.33	0.32	0.19	0.12	0.29	0.22	0.32	0.03	0.33	0.33